

제 7 편 문 화

제 1 장 교육
제 2 장 종교
제 3 장 언론
제 4 장 문화와 예술
제 5 장 체육

여 백

제1장 교육

제1절 개요

교육은 인류가 교육이라는 문제를 말하기 전부터 벌써 시작되었고, 또 교육에 관한 형식이나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그 시대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교육제도 · 목적 · 내용 등을 발전시켜 왔다. 고종 13년(1876) 개항 이래 신식학교인 사립 원산학사(1883, 원산), 국립의 동문학(1883, 서울)과 육영공원(1886, 서울), 기독교계의 배재학당(1885, 서울) 등이 설립되어 각개별의 학교 법규(學校法規)가 있었으나, 국가수준의 교육법규(教育法規)는 1895년에 성립되었다. 즉 1895년의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서는 지(智) · 덕(德) · 체(體)를 갖춘 충군애국인상(忠君愛國人像)을 교육목표로 내세웠다.

일제의 교육침략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06년의 통감부 설치로 반식민지화한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1906년 〈보통학교령〉 · 〈사범학교령〉 · 〈고등학교령〉 · 〈외국인학교령〉, 1907년 〈고등여학교령〉, 1908년 〈사립학교령〉 등 이른바 학교령기의 반식민지 교육법제를 제정하였다. 이후 일제는 우리 나라를 합병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침략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일제의 교육정책은 여러 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1922)

무단 통치기로 4년제 보통학교의 기반 위에 4년제 고등보통학교, 3년제 고등여학교와 실업학교를 제도화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3 · 1운동 이후 1920년대 문화통치기부터 중일전쟁(1937) 직후까지의 시기로 교육법제는 4~6년제의 심상소학교, 4~5년제의 고보와 사범학교, 4년제의 전문학교와 대학을 기간 학제로 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일제가 중일전쟁에 이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

기로 6년제 심상소학교, 4~5년제 중학교와 사범학교, 2~5년제 실업학교, 2년제 예과에 3년제 학부의 대학 등을 기간학제로 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징병제(徵兵制), 학병제(學兵制), 조선여자연성소(朝鮮女子練成所)와 조선청년훈련소의 개설,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동원령의 공포, 학교 동원본부의 설치 등 총동원 체제 시기로서 교육의무가 아닌 '연성의무'를 온 국민에게 부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나라는 광복과 함께 미군정(1945~1948)이 실시되었다. 교육정책은 임정(臨政)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민주교육으로 정하여 근대적 교육사조에 알맞도록 하였다.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수신과(修身課)의 폐지,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의 회복 등 교육의 민주화를 급격히 진전시켰다. 그리고 학교계통도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특종(특수)교육의 5종으로 총 20년제를 채택하고 학교 학제도 6 · 3 · 3 · 4의 단선형을 도입, 2학기제로 변경 ·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 1946년부터 실행에 옮기고, 6년제 신중학교와 신제 고교를 제도화하되 중등교육을 3 · 3제로 분리 ·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하는 등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한 교육기관 개편을 단행하였다.

동두천시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는 1923년 6월 22일 조선 총독부령에 의거 설립된 동두천공립보통학교(1923.9.1)가 처음이고, 현재 교육기관은 유아원 19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그리고 특종학교 1개교가 있다.

제2절 유아교육

1. 유치원 교육의 유래

유아교육은 취학 전 교육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들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유아원 · 유치원 · 어린이집 등을 들 수 있다.

유아원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의 어린이 중 특히 3~4세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교육의 일부이다.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1~2년간 유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은 2~5세의 아동 중 취업여성의 자녀를 보호하는 기관이며, 일차적으로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근래에는 교육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취학 전 교육기관 중에서 형식적인 학교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이다.

우리 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시작된 것은 개화의 물결이 휩쓸던 1897년으로서 왕실이 설립한 유년학교가 효시라 할 수 있다. 한국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북도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며, 이후 1914년 브라운리(Charlottee Brown Lee)가 한국인을 위해 이화학당에 부설로 설립한 이화유치원과 1916년 서울에 설립한 중앙유치원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유치원은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늘었으나, 일제 식민지 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취학 전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인 증가를 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公敎育化)가 크게 추진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후반부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유아교육 발전의 새 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82년 3월 정부는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1983년 이후에는 유아교육이 정부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공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었다. 동두천시의 유치원은 모두 17개로 공립 7개, 사립이 10개이며 학급수는 29개로 원아의 총인원은 1996년 현재 941명으로 남자 466명, 여자 475명이다. 교원은 남자 5, 여자 36명으로 여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치원생 수료자는 남자 402명, 여자 362명으로 총 764명이다.

2. 유치원 현황

1)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동두천·동보·보산·사동·생연·소요·탑동 등 7개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각 유치원의 수용 인원 · 교육시설 · 교원 · 운영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교육기관이 운영되므로써 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표 1〉 공립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원장명	소재지
동두천	박수영	동두천시 생연동 469-2
동보	박용철	동두천시 동두천동 213
보산	김홍기	동두천시 보산동 370
사동	이경우	동두천시 생연동 283
생연	정대직	동두천시 생연동 411
소요	김창규	동두천시 상봉암동 239-2
탑동	이상진	동두천시 탑동동 395

출전: 경기도, ≪경기연감≫ (1996)

2)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효성 · 안흥 · 동부 · 아란 · 관세음 · 예름 · 풀잎 · 해바라기재능 · 신흥 · 가나유치원 등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시립유치원의 교육시설이나 수용인원 등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숫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현상과 같다.

〈표 2〉 사립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원장명	소재지
동두천	박수영	동두천시 생연동 469-2
효성	김용옥	동두천시 생연3동 613
안흥	김원용	동두천시 동두천동 506-1
동부	구정모	동두천시 생연1동 463-2
아란	이혜경	동두천시 생연동 268-20
관세음	김정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83-1
예름	최신자	동두천시 보산동 408-8
풀잎	김종애	동두천시 생연동 180-2
해바라기재능	심화섭	동두천시 생연1동 106-1
신흥	강신경	동두천시 생연1동 511-1
가나	윤용기	동두천시 지행동 338-1

출전: 경기도, ≪경기연감≫ (1996)

제3절 초등학교

1. 동두천초등학교


동두천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1동 469 - 2번지이다.

1923년 6월 22일 〈조선총독부령〉 보통교육 확충계획에 의거 동두천 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8월 30일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창말)에 교사 5개 교실을 준공하고 9월 1일 개교하였다. 1933년 4월 1일 6년제 학제로 변경되었다. 광복 후 1945년 10월 30일 동두천국민학교 초대교장으로 이보영 선생이 취임하였는데, 한국전쟁으로 휴교되었다. 9 · 28 수복 후에 이담면 지행리 209번지에서 개교하였으나, 이후 생연리(생골) K · S · C부대가 철수한 자리로 이전하였다. 제2대 정도식교장은 학교 신축교지 확보를 위해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김재회(작고)와 홍재운(작고)으로부터 각각 2,800평과 2,600평을 기증받았다. 이리하여 1954년 2월 2일 동두천시 생연동 469번지 현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 1956년 11월 27일 봉암분교를 설치하였는데 1958년 9월 28일 봉암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61년 4월 4일 걸산분교를 설치하였고, 1964년 3월 13일 동보분교가 동보국민학교로 승격 · 독립하여 사동국민학교로 분리되었다. 1973년 3월 1일에는 보산국민학교로 독립하였다. 1981년 3월 1일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92년 7월 동두천초등학교 총동문회를 조직하고 1993년 9월 1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개교70년사(開校七十年史)≫ 발간과 기념비 제막을 하였다. 1996년 2월 15일 제71회 졸업식을 갖고 총 18,6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동두천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훈은 "자율적이고 탐구적이며 예의바른 어린이"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심성이 바른 어린이

• 실력이 있는 어린이
• 생각을 하는 어린이
• 심신이 강한 어린이

상징물로 교화는 장미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며 특기교육은 축구이다.

학교관리 현황으로 우선 학급수와 재적학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처럼, 본교는 특수 2학급을 포함해 모두 38학급으로 학생수는 1,514명이다. 분교는 2~5학년생 반이 재학 중인데, 모두 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분교는 장차 폐교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학급수와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6	5	6	6	7	6	2	38
본교 학생수	남	123	130	127	128	158	123	(11)	789
	여	116	107	117	118	131	136	(8)	725
	계	239	237	244	246	289	259	(19)	1,514
분교 학생수	남	–	1	–	–	1	–	–	2
	여	–	1	1	1	–	–	–	3
	계	–	2	1	1	1	–	–	5
총 계		239	239	246	247	290	259	(19)	1,519

교직원은 〈표 4〉와 같이 교원 50명과 직원 8명 등 58명이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 1명씩이고, 주임교사 13명, 일반교사 32명 등이다. 특히 1980년 이후 조기교육이 정착되면서 초등교육 부설인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유치원교사 2명이 재직 중이다.

〈표 4〉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13	32	1	2		50	1		5	2	8	58

교육시설 중 중요한 것은 교사와 운동장이다. 교사대지는 12,450평이고, 운동장은 12,750

평이다. 교실은 보통과 특별을 합쳐 48개이며, 기타 12개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2,450	12,750	·	40	8	3.5	12

역대 교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6〉과 같다. 제1대에서 제5대까지 일본인이 재임하였는데, 재임기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해방 이후 제6대 교장으로 이진영이 부임한 이래 199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19대 교장인 박수영이 재직 중이다.

〈표 6〉 역대 교장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태기만차랑	1923. 9. 1~	11(6)	노 희 승	1968. 3. 1~1971. 2.28
2	진 도		12(7)	공 인 규	1971. 3. 1~1973. 2.28
3	장 곡 천		13(8)	김 관 수	1973. 3. 1~1975. 8.31
4	판 본 오		14(9)	이 정 석	1975. 9. 1~1979. 8.31
5	등 원	~1945. 8.15	15(10)	김 지 용	1979. 9. 1~1983. 2.28
6(1)	이 진 영	1945.10.30~1953. 8.29	16(11)	최 종 주	1983. 3. 1~1986. 8.31
7(2)	정 도 식	1953. 8.30~1958.11.12	17(12)	김 진 헌	1986. 9. 1~1989. 2.28
8(3)	조 남 희	1958.11.13~1961. 4.10	18(13)	심 상 옥	1989. 3. 1~1993. 8.31
9(4)	김 용 호	1961. 4.11~1963. 2.28	19(14)	박 수 영	1993. 9. 1~현재
10(4)	서 재 성	1963. 3. 1~1968. 2.28			

* 1대~5대까지는 일본인임 * ( )는 8.15 광복후 교장부임 순서(대)임

2. 동보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동안동 213번지이다.

1963년 12월 30일 동보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64년 3월 13일 개교하였다. 1996년 2월까지 제3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총 5,2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6년 3월



동보초등학교

1일 동보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훈은 "푸른 꿈, 깊은 생각, 바른 행동"으로 구체적인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 나라를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道德人)
- 스스로 공부하고 소질을 계발하는 어린이(創造人)
-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探究人)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健康人)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학교현황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학급수는 각 학년 2학급과 특수반 2학급 등 총 14학급이다. 학생수는 남학생 293명, 여자 249명 등 모두 542명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다. 특수반은 2학급에 남자 15명과 여자 5명 등 총 20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학급수와 학생 현황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반
학 급 수		16	2	2	2	2	2	2	2
학생수	남	293	34	50	56	51	55	47	(15)
	여	249	40	35	41	37	60	36	(5)
	계	542	74	85	97	88	115	83	(20)

교직원은 교원 27명과 일반직 4명 등 31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장과 교감이 각각 1명이고, 양호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각각 1명씩이다.

교육시설은 교사대지 6,192m²와 체육장 6,748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이 6개, 특별교실 10개, 관리실이 3개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한편 역대 교장은 〈표 10〉과 같다. 1964년 3월 18일 제1대 이병로가 재임한 이래 현재는

1996년 9월 1일부터 이순호가 제12대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표 8〉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6	15	1	1	2	27	1	·	3	·	4	31

〈표 9〉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6,192	6,748	1	6	10	3	1

〈표 10〉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병노	1964. 3.18~1971. 2.28	7	조성순	1982. 3. 1~1987. 2.28
2	김진헌	1971. 3. 1~1974. 2.28	8	이도섭	1987. 3. 1~1987. 6. 1
3	김문환	1974. 3. 1~1975. 8.31	9	이종봉	1987. 6. 2~1989. 8.31
4	김상문	1975. 9. 1~1977. 2.28	10	한상동	1989. 9. 1~1992. 2.28
5	신봉확	1977. 3. 1~1979. 2.28	11	김용철	1992. 3. 1~1996. 8.31
6	조태철	1979. 3. 1~1982. 2.28	12	이순호	1996. 9. 1~현재

3. 보산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보산동 370번지이다.

1971년 3월 1일 동두천국민학교 보산분교로 인가를 받았다. 1973년 3월 2일 보산국민학교(12학급)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1985년 3월 1일 병설유치원 개원과 특수학급(1학급)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21회 졸업생을 거행하여 3,435명을 배출하였다. 1996년 3월 1일 보산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산초등학교

교육 방침으로 교훈은 정직(도덕성), 예절(인사성), 질서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愛國人)
-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自律人)
- 잘 살피고 생각하는 어린이(創造人)
- 근면하고 협동하는 어린이(協同人)
-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健康人)

상징물로 교화는 장미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또한 특기 운동 종목은 유도를 채택하였다. 유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심신의 수련과 절도 있는 자세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현황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통해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학급수는 각 학년 3학급씩과 특수학급 등 모두 19개 학급이다. 학생은 남학생이 321명, 여학생이 328명으로 총 649명이다. 물론 특수학급에 소속된 10명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로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많다.

〈표 11〉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3	3	3	3	3	3	1	19
학생수	남	56	54	52	51	48	60	(8)	321
	여	55	51	52	57	55	58	(2)	328
	계	111	105	104	108	103	118	(10)	649

교직원은 교원이 27명 일반직 4명 등 총 31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즉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1명씩이고 주임교사 6명, 일반교사 15명, 양호와 유치원교사가 각각 1명씩이다.

교육시설은 교사대지 1,006m²이고, 체육장은 12,588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9개, 특별교실 5개, 관리실 4개 등이다. 특별교실은 실험실습실과 미술 · 음악 등 실기실이다. 즉 교육시설은 〈표 13〉과 같다.

〈표 1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6	15	1	1	2	27	1	·	3	·	4	31

〈표 13〉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006.2	12,588.1	·	19	5	4	1

한편 역대 교장은 〈표 14〉와 같다. 1973년 3월 1일 제1대 윤표영이 부임한 이래로 1993년 3월 1일부터 제9대 김홍기가 재임 중이다.

〈표 14〉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윤표영	1973. 3. 1~1975. 8.31	6	최우길	1985. 3. 1~1989. 2.28
2	김문환	1975. 9. 1~1979. 8.31	7	이근식	1989. 3. 1~1991. 2.28
3	김진헌	1979. 9. 1~1981. 2.28	8	기정환	1991. 3. 1~1993. 2.28
4	조남기	1981. 3. 1~1983. 2.28	9	김홍기	1993. 3. 1~현재
5	송문규	1983. 3. 1~1985. 2.28			

4. 사동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2동 783번지이다.

1969년 3월 2일 20학급으로 개교한 이래 1981년 3월 1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1년 3월 1일에는 특수학급 2학급을 설치하였다. 1996년 3월 1일 유치원 2학급 편성과 사동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27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5,5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방침으로 교훈은 "바른 마음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며 튼튼한 어린이"이다. 구체적인 교



사동 초등학교

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
-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 튼튼하게 자라는 어린이
- 생각하며 탐구하는 어린이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특기 체육 종목은 빙상과 축구이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빙상 선수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동두천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학교현황은 우선 학급수와 학생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표 15〉와 같다. 즉 각 학년은 3학급씩이고, 특수학급이 2학급 등 총 20학급이다. 재학생수는 남학생 417명과 여학생 390명 등 807명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다. 특수 학급은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학생은 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5〉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3	3	3	3	3	3	2	20
학생수	남	68	75(2)	62(1)	58(1)	81(4)	73(3)	(11)	417
	여	57	62	69(1)	63(2)	74(1)	65(4)	(8)	390
	계	125	137(2)	131(2)	121(3)	155(5)	138(7)	(19)	807

교직원 현황은 〈표 16〉과 같다. 교장을 포함한 교원은 31명이고, 일반직 6명 등 37명이다. 교원 중에는 양호교사 1인과 유치원 교사 2인도 포함되었다.

교육시설은 교지와 교사로 크게 구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교지 중 교사대지는 3,065m²이고, 운동장은 21,433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28개, 특별교실 4개, 관리실 2개, 기타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역대 교장의 명단과 재직기간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1969년 3월 2일 개교와 동

시에 초대 교장으로 최철근이 부임한 이래로 현재는 제10대 이순창이 1996년 9월 1일부터 재직 중이다.

〈표 16〉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6	19	1	2	1	31	·	1	3	2	6	37

〈표 17〉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3,065.7	21,433.5	·	28	4	1	2

〈표 18〉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최철근	1969. 3. 2~1974. 8.31	6	김상윤	1987. 9. 1~1990. 2.28
2	김진헌	1974. 9. 1~1979. 8.31	7	김종환	1990. 3. 1~1992. 2.28
3	최무석	1979. 9. 1~1981. 8.31	8	최영배	1992. 3. 1~1994. 8.31
4	한창섭	1981. 9. 1~1986. 2.28	9	이경우	1994. 9. 1~1996. 8.31
5	경춘섭	1986. 3. 1~1987. 8.31	10	이순창	1996. 9. 1~현재

5. 생연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411번지이다.

1968년 11월 20일 교사 4개 교실 신축·준공한 이후 1969년 3월 2일 16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81년에는 3월 9일 병설유치원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3월 5일 특수학급으로 1학급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1986년 3월 1일에는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1학급을 편성하였다. 1996년 3월 1일 39학급으로 인가(특수학급 2포함)와 더불어 생연초등학교로 명칭



생연초등학교

이 변경되었다.

교육 방침으로 교훈은 "날로 새로워지자"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바르고 정직한 어린이(創造人)
- 부지런히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어린이(自主人)
- 심신이 건강한 힘센 어린이(健康人)
- 창의력이 풍부하고 소질있는 어린이(創意人)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체육 특기 종목은 빙상 · 유도 · 태권도 등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체육활동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현황으로 학생수와 학급수 현황은 〈표 19〉와 같다. 일반 37학급과 특수 2개 학급 등 총 39개 학급이다. 학생수는 1~6학년이 각각 314 · 308 · 324 · 271 · 267 · 234명으로 저학년이 많다. 남녀 학생 비율 총 1,718명 중 남학생이 885명으로 여학생 833명보다 약간 높다. 학생수만으로 보면 동두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를 통하여 생연동이 동두천시 중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19〉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7	6	7(1)	6	6(1)	5	37(2)
학생수	남	171	156	180	126	138	114	885
	여	143	152	144	145	129	120	833
	계	314	308	324	271	267	234	1,718

교직원 현황은 〈표 20〉과 같다. 교원은 48명이고, 직원은 7명으로 총 55명이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1인이고, 주임교사 12명, 일반교사 31명, 양호교사 1명, 유치원교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직은 과장 1명, 서무 1명, 기능 3명, 기타 2명 등 7명이다.

〈표 20〉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12	31	1	2	·	48	1	1	3	2	7	55

교육시설은 교지와 교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교사대지는 4,537m²이고, 체육장은 9,989m², 기타 1,231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41개소, 특별교실 6개소, 관리실 3개소, 기타 7개소 등이다.

〈표 21〉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m²)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4,537	9,989	1,231.5	41	6	3	7

역대 교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22〉와 같다. 1969년 개교와 더불어 초대 교장으로 윤표명이 부임하여 1973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였다. 현재는 제8대 교장으로 정대식이 1992년 9월 1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표 22〉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윤표명	1969. 3. 1~1973. 2.28	5	신관식	1985. 9. 1~1987. 2.28
2	한종남	1973. 3. 1~1976. 8.31	6	심상옥	1987. 3. 1~1989. 2.28
3	이병열	1976. 9. 1~1980. 8.31	7	이상율	1989. 3. 1~1992. 8.31
4	이상준	1980. 9. 1~1986. 8.31	8	정대식	1992. 9. 1~현재

6. 소요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237-2번지이다.

1958년 9월 28일 동두천국민학교 분교에서 봉암국민학교로 승격이 인가되어 1959년 4월 1일 개교하였다. 이어 1964년 11월 1일 소요국민학교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4년 6월 15일에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6년 3월 1일에는 소요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2월 말 현재 37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3,159명을 배출하였다.

교육 방침으로 교훈은 "바르고 슬기롭게 건강히"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어린이(愛國人)
- 슬기롭고 끈기있게 탐구하는 어린이(實力人)
- 서로 도와 일하는 부지런한 어린이(協同人)
- 소질을 키워가는 어린이(機能人)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특기교육은 배드민턴과 농악이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체력 증진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수 현황은 〈표 23〉과 같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각 49, 60, 55, 40, 38, 52명이며, 학급수는 각각 1, 2, 2, 1, 1, 12개이다. 2~3학년과 6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학생수와 학급수가 많다. 학생의 남녀 비율은 총 294명 중 여학생이 153명으로 남학생보다 약간 높다. 이는 다른 초등학교와는 다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교직원은 교원 14명과 일반직 5명 등 모두 19명이 재직 중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 1인씩이고, 주임교사 2명, 일반교사 9명, 유치원 교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은 사무 1명, 기능과 기타가 각각 2명씩이다.

〈표 23〉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2	2	1	1	2	9
학생수	남	22	29	26	22	20	22	141
	여	27	31	29	18	18	30	153
	계	49	60	55	40	38	52	294

〈표 2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2	9	·	1	·	14	·	1	2	2	15	19

교육시설 현황은 〈표 25〉와 같다. 즉 교사대지는 3,731m², 체육장은 8,269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1개, 특별교실 3개, 관리실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교육시설 현황

구분	교지(m²)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3,731	8,269	·	11	3	2	·

소요초등학교의 역대 교장 명단과 재임기간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1957년 3월 27일 초대 교장으로 이병노가 부임한 이래 199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13대 교장인 김창규가 재직하고 있다.

〈표 26〉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병노	1957. 3.27~1961. 3.30	8	조태철	1976. 9. 1~1979. 8.31
2	홍성완	1961. 3.31~1964. 3.19	9	김문환	1979. 9. 1~1985. 8.31
3	채홍규	1964. 3.20~1969. 2.28	10	최홍관	1985. 9. 1~1989. 5. 1
4	최정식	1969. 3. 1~1969.10. 9	11	김종옥	1989. 5. 2~1991. 8.31
5	장한철	1969.10.15~1972. 8.31	12	박수영	1991. 9. 1~1993. 8.31
6	이석문	1972. 9. 1~1973. 8.31	13	김창규	1993. 9. 1~현재
7	유기양	1973. 9. 1~1976. 8.31			

7. 탑동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탑동 395번지이다.

1939년 3월 1일 포천 송우국민학교 탑동간이학교로 개설한 이래 1944년 7월 1일 탑동분교로 승격되었다. 1950년 4월 1일에야 탑동국민학교로 승격을 인가받았다. 1981년 3월 16일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조기교육의 정착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 3월 1일 탑동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2월까지 탑동초등학교는 47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2,3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방침으로 교훈은 "푸른 꿈을 키우는 어린이"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나라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어린이
-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 매사에 알뜰하고 절약하는 어린이
-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하는 어린이

상징물로 교화는 무궁화이고, 교목은 잣나무이다. 교화는 곧 우리의 국화인 셈이다.

학급수는 전 학년이 1학급이고, 학생수는 38 · 44 · 38 · 41 · 39 · 43명으로 총 244명이다. 학년 평균 40명 정도로 규모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가장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4	5	6	계
학 급 수	1	1	1	1	1	1	6
학 생 수	38	44	38	41	39	43	244

교직원 현황은 〈표 28〉과 같다. 즉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1인, 주임교사 2명, 일반교사 7명, 유치원 교사 1명 등 12명이다. 일반직은 서무 1명, 기능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8〉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총계
인원	1	1	2	7	·	1	·	12	·	1	2	·	3	15

교지는 교사대지 1,400m²과 체육장 6,369m²9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6개소, 특별교실 4개소, 관리실과 기타 등이다. 이러한 교육시설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m²)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400	6,369	·	6	4	1.5	3.5

역대 교장은 〈표 30〉과 같다. 초기에는 포천군 송우국민학교의 탑동간이학교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장이 없었다. 즉 1950년 4월 1일 탑동국민학교로 승격된 이후 비로소 교장이 재임하

였다. 탑동국민학교 승격과 동시에 초대 교장으로 유익수가 부임한 이래로 1996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13대 이상진이 재직 중이다.

〈표 30〉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유익수	1950. 4. 1~1956. 4. 1	8	채문현	1977. 9. 1~1980. 8.31
2	김순진	1956. 4.13~1957. 4.12	9	신관식	1980. 9. 1~1985. 8.31
3	안동희	1957. 4.13~1959. 6. 3	10	이상윤	1985. 9. 1~1989. 2.28
4	최범인	1959. 6. 4~1963. 3. 7	11	김도근	1989. 3. 1~1991. 2.28
5	김경렬	1963. 3. 8~1970. 7.15	12	감주환	1991. 3. 1~1994. 8.31
6	김문환	1970. 7.16~1974. 8.31	13	이상진	1994. 9. 1~현재
7	최홍관	1974. 9. 1~1977. 8.31			

제4절 중학교

1. 중앙중학교



중앙중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지행동 340번지이다.

1991년 7월 30일 동두천시 중앙중학교 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어 1992년 3월 1일 개교와 더불어 현판식을 거행하는 등 중앙중학교로 출발을 시작하였다. 1996년 2월 14일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현재까지 93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신흥 학교이다.

교훈은 "성실"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기른다(健康人)
- 도덕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기른다(道德人)
-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는 사람을 기른다(自立人)
- 과학기술능력 있는 사람을 기른다(科學技術人)
- 내 고장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른다(愛國愛族人)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이며, 교목은 잣나무이다.

학생과 학급수는 〈표 31〉과 같다. 학급은 1~3학년 모두 2학급씩이고, 인가학생수도 112명씩이다. 그런데 재학생수는 각각 101 · 109 · 112명으로 인가된 학생수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즉 인가된 학생수는 336명이지만, 재학생수는 322명으로 이보다 약간 적다.

〈표 31〉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인가학급수		2	2	2	6
편성학급수		2	2	2	6
인가학생수		112	112	112	336
학생수	남	52	55	54	161
	여	49	54	58	161
	계	101	109	112	322

교직원 현황은 〈표 32〉와 같다. 교감 1명, 주임교사 2명, 일반교사 9명 등 12명이다. 일반직은 서무과 기능이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장은 동두천 중앙종합고등학교장이 겸임한다.

〈표 3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	1	2	9	·	·	·	12	·	1	1	·	2	14

교사대지는 7,899㎡이고 체육장은 16,759㎡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6개, 특별교실 4개, 관리실 1개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7,899	16,759	·	6	4	1	·

한편 역대 교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34〉와 같다. 그런데 중앙중학교 교장은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장이 겸임하고 있다. 1992년 3월 1일 개교와 동시에 초대 교장인 안국승이 재임한 이래 199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2대 홍성복이 재직 중이다.

〈표 34〉 역대 교장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안 국 승	1992. 3. 1~1993. 2.28	2	홍 성 복	1993. 3. 1~현재

2. 동두천중학교



동두천 중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1동 산 44번지이다.

1959년 12월 9일 학교법인 청룡학회(靑龍學會) 설립 인가와 동두천중학교 인가(3학급)를 받아 1960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1961년 12월 23일 6학급의 증설 인가와 1962년 12월 6일 9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다. 1965년 9월 28일에는 12학급의 인가를 받았고, 1970년 2월 12일 18학급으로 증설 인가를 받는 등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1996년 2월 현재 41회 졸업식을 거행

하여 총 9,5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지(智), 덕(德), 체(體)"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성실하고 실력있는 사람을 기른다.
  · 기초 교육의 충실
  · 교육 여건의 개선
-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을 기른다.
  · 인간 교육의 내실
  · 국민정신 교육의 심화
- 명랑하고 건전한 사람을 기른다.
  · 건강한 생활인의 육성
  · 특별활동의 활성화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개나리는 근면과 성실을 의미하며, 은행나무는 정직과 협동을 뜻한다. 즉 동두천 중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전념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으로서 성장 ·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또한 특기교육은 빙상과 유도이다.

학생수와 학급 편성 현황은 〈표 35〉와 같다. 학급수는 1학년 4학급이고,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5학급으로 총 14학급이다. 재학생수는 1학년 208명, 2학년 270명, 3학년 247명 등 총 725명이다.

〈표 35〉 학급수와 학생 현황

학년 / 구분	1	2	3	계
학 급 수	4	5	5	14
학 생 수	208	270	247	725

교직원수는 교원 24명과 일반직 5명 등 총 29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 1인씩, 주임교사 8명, 일반교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설 현황은 〈표 37〉과 같다. 교지는 교사대지 6,270m²이고, 체육장 10,560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4개, 특별교실 9개, 관리실 3개 등이다.

〈표 36〉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총계
인원	1	1	8	14	·	·	·	24	·	2	3	·	5	29

〈표 37〉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6,270	10,560	·	14	9	3	·

역대 교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38〉과 같다. 1960년 10월 1일 원종구가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199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6대 교장인 김우택이 재직하고 있다.

〈표 38〉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원종구	1960.10. 1~1967. 2.28	4	안도식	1978. 1.14~1990. 4. 6
2	장봉상	1967. 3. 1~1970. 2.28	5	박찬혜	1990. 4. 7~1994. 8.31
3	원종구	1970. 3. 1~1977.11.30	6	김우택	1994. 9. 1~현재

3. 동두천여자중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1동 산 43번지이다.

1959년 12월 9일 학교법인 청룡학회(靑龍學會) 설립을 인가받았다. 1969년 8월 1일 교사 8개 교실을 신축하고 1969년 11월 17일 동두천여자중학교 6학급으로 설립되었다. 1970년 3월 2일 개교한 이래 1982년 1월 20일 18학급 증설 인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24회 졸업식을 거행하고 6,6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자"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여성을 기른다.

• 예절 바르고 질서를 지키며 협동 · 봉사하는 여성을 기른다.

• 알차게 실력을 쌓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여성을 기른다.

• 슬기롭게 생각하고 근검 · 성실하게 생활화하는 여성을 기른다.

• 몸과 마음이 튼튼한 밝고 명랑한 정서적인 여성을 기른다.



동두천여자중학교

상징물은 교화로 장미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특기교육은 빙상 · 사이클 · 검도 등으로 학생의 심신 수련에 기여하고 있다.

학급수와 학생 현황은 〈표 39〉와 같다. 학급수는 1학년이 4개 반, 2학년이 5개 반, 3학년이 6개 반으로 총 15개 반이다. 재학생은 1학년 200명, 2학년 251명, 3학년 261명 등 총 712명이다.

〈표 39〉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학 급 수	4	5	6	15
학 생 수	200	251	261	712

교직원은 교원이 27명, 일반직이 5명 등 총 32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0〉과 같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1인이고, 주임교사 8명, 일반교사 17명 등 27명이다. 일반직은 서무 2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0〉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8	17	·	·	·	27	·	2	3	·	5	32

한편 교육시설 현황은 〈표 41〉과 같다. 교지는 교사대지 2,632m², 체육장 4,916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이 15개, 특별교실이 4개, 관리실이 3개 등이다.

〈표 41〉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m²)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2,632	4,916	·	15	4	3	·

역대 교장은 〈표 42〉와 같다. 1970년 3월 2일 개교와 동시에 초대 교장인 장봉상이 1974년 3월 8일까지 재임하였다. 이어 제2대 박찬혜가 부임한 이래 199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7대 안도식이 재직 중이다.

〈표 42〉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장봉상	1970. 3. 2~1974. 3. 8	5	황윤태	1989. 1.10~1990. 5.13
2	박찬혜	1974. 3. 9~1981.10. 9	6	김우택	1990. 9. 1~1994. 8.31
3	유영근	1981.10.10~1988. 8.31	7	안도식	1994. 9. 1~현재
4	박찬혜	1988. 9. 1~1988.11.28			

4. 보영여자중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이다.

1960년 4월 14일 학교법인 신흥학원(新興學院)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67년 3월 2일 신흥여자중학교로 설립 인가와 동시에 개교하였다. 1969년 11월 24일 15학급 증설 인가와 더불어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1리로 신축교사를 이전하였다. 1974년 7월 20일에는 보영학원 설립 인가 및 보영여자중학교로 교명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어 1978년 12월 27일 18학급 증설 인가를 받았다. 1996년 2월 15일 제27회 졸업식을 갖고 총 6,8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을 경외(敬畏)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여성을 기른다.

• 소질을 계발(啓發)하고 새시대에 적용하는 실력을 갖춘 여성을 기른다.

• 심신이 건전하고 예절이 바르며, 여가를 선용하는 여성을 기른다.

• 책임감이 강하고 과학적이며, 경제적 생활을 하는 여성을 기른다.

•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알차게 일하며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을 기른다.



보영여자중학교

상징물로 교화는 백화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특기교육은 빙상 · 사이클 · 검도 등이다. 이러한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성장과 수련에 크게 이바지하는 실정이다.

학생수와 학급수는 〈표 4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14개 학급에 총 709명이 재학 중이다.

〈표 43〉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학 급 수	5	4	5	14
학 생 수	250	203	256	709

교직원 현황은 교원 24명, 일반직 5명 등 총 29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 1인씩, 주임교사 8명, 일반교사 14명 등 24명이다. 일반직은 서무 2명과 기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8	14	·	·	·	24	·	2	3	·	5	29

교육시설 현황은 〈표 45〉와 같다. 교지는 교사대지 13,689㎡이고, 교육장 7,000㎡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4개, 특별교실 9개, 관리실 3개, 기타 4개 등이다.

〈표 45〉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3,689	7,000	·	14	9	3	4

역대 교장은 1967년 3월 2일 개교와 동시에 강순경이 부임하여 1979년 9월 27일까지 재직하였다. 현재는 1979년부터 9월 28일부터 이종효가 재직 중이다.

〈표 46〉 역대 교장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강 순 경	1967. 3. 2~1979. 9. 27	2	이 종 효	1979. 9. 28~현재

5. 신흥중학교



신흥 중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이다.

1960년 4월 14일 학교법인 신흥재단(信興財團) 설립 인가를 받고, 1961년 2월 28일 신흥중학교로 3학급 인가를 받아 1961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6학급으로 증설되었다. 1969년 12월 18일에는 18학급 증설 인가를 받았다. 1996년 2월 15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하는 총 7,7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 "진실, 박애, 근로"이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알차고 다듬어진 지성인(知性人)의 육성
• 사랑과 봉사에 충실하는 이성인(理性人)의 육성
• 건강하고 진취적인 세계인(世界人)의 육성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꽃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특기교육은 축구 · 태권도로 학생들의 심신 수련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학급수와 재학생 현황은 〈표 47〉과 같다. 학급수는 1학년 5개 반, 2학년 4개 반, 3학년 5개 반 등 14개 학급이다. 재학생은 1학년 219명, 2학년 245명, 3학년 239명 등 703명이다.

〈표 47〉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인가학급	5	4	5	14
편성학급	5	4	5	14
총학생수	219	245	239	703

교원은 23명이고, 일반직원은 5명 등 총 28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교원은 교감 1인, 주임교사 7명, 일반교사 15명이다. 일반직원은 서무 2명, 기능직 3명 등이다.

〈표 48〉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	1	7	15	·	·	·	23	·	2	3	·	5	28

교육시설 현황은 〈표 49〉와 같다. 교지는 교사대지 18,858m² 체육장 10,213m², 기타 2,579m² 등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3개, 특별교실 3개, 관리실 2개 등이다.

역대 교장의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50〉과 같다. 1961년 2월 28일 초대 교장으로 강순경이 부임한 이래 1971년 4월 5일부터 제2대 교장인 강신경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교장은 신흥고등학교장까지 겸임한다.

〈표 49〉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8,858	10,213	2,579	14	3	2	·

〈표 50〉 역대 교장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강 순 경	1961. 2.28~1971. 4. 4	2	강 신 경	1971. 4. 5~현재

제5절 고등학교

1.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지행동 340번지이다.

1974년 11월 29일 설치 인가를 받아 1975년 3월 6일 6학급 양주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1976년 11월 29일 12학급으로 증설되었다. 1972년 3월 6일 직업과정 전자과 설치와 1981년 11월 29일 인문계 7학급 증설로 21학급 학칙을 변경하였다. 1990년 9월 30일 21학급 중 전자과 9학급 설치하는 등 남녀공학으로 학칙을 변경하였다. 1991년 3월 1일 동두천양주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후 1994년 9월 26일 일반계 남녀공학이 되었다. 1996년까지 제19회 졸업식을 갖고 4,820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교훈은 "성실"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기른다(健康人)
- 체육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기른다(體育人)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을 기른다(自主人)
- 과학기술능력 있는 사람을 기른다(科學技術人)
-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른다(愛國愛族人)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꽃이고, 교목은 잣나무이다. 특수교육은 복수기능사 자격취득 직업교육과 양주별산대놀이 전수교육 등 기능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급수와 학생수 현황은 〈표 51〉과 같다. 학급수는 각 학년별 7개 학급으로 총 21개 반이다. 이 중에 보통 4개 반, 인문 3개 반, 자연 3개 반, 위탁과 직업이 각각 1개 반씩, 전자가 9개반이다. 재학생은 1학년이 349명, 2학년 324명, 3학년 269명 등 총 942명이다.

〈표 51〉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소 계						총계
		보통	전자	계	인문	자연	직업	전자	계	인문	자연	위탁	직업	전자	계	보통	인문	자연	위탁	직업	전자	
인가학급		4	3	7	2	2	1	3	7	1	1	1	1	3	7	4	3	3	1	1	9	21
편성학급		4	3	7	2	2		3	7	1	1	1	1	3	7	4	3	3	1	1	9	21
인가학생수		216	162	378	92	92		162	346	46	46	46	46	162	346	216	138	138	46	46	489	1,070
학생수	남	136	154	290	45	69		136	250	47	45	22	29	115	258	136	92	114	22	29	405	798
	여	51	8	59	45	14		15	74	-	-	-	-	11	11	51	45	14	-	-	34	144
	계	187	162	349	90	83		151	324	47	45	22	29	126	269	187	137	128	22	29	439	942

교직원 현황은 교원이 45명이고, 일반직이 6명 등 51명이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 1인이고, 주임교사 12명, 일반교사 31명 등이다. 일반직은 과정 1명, 기능 4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교육시설 현황은 〈표 53〉과 같다. 교사대지는 7,899m², 체육장 16,759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2개, 특별교실 22개, 관리실과 기타가 각각 7개 등이다.

역대 교장의 명단과 재임기간 등은 〈표 54〉와 같다. 1976년 3월 1일부터 초대 교장인 오윤근이 부임한 이래 199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6대 교장인 홍성복이 재임 중이다.

〈표 5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12	31	·	·	·	45	1	·	4	1	6	51

〈표 53〉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7,899	16,759	·	21	22	7	7

〈표 54〉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오윤근	1976. 3. 1~1978. 2.28	4	이달섭	1985. 3. 1~1986. 8.31
2	박윤섭	1978. 3. 1~1979. 8.31	5	안국승	1986. 9. 1~1993. 2.28
3	박재남	1979. 9. 1~1985. 2.28	6	홍성복	1993. 3. 1~현재

2. 동두천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 44번지이다.

1959년 12월 9일 학교법인 청룡학회(靑龍學會)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1962년 1월 29일 동두천고등학교로 인가되었고, 1963년 3월 2일에 3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63년 12월 6일에는 3학급 증설이 인가되었다. 1972년 12월 6일 동두천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73년 12월 8일 상업과 6학급 인가를 받았다. 1983년 10월 13일 보통과 3학급 증설로 보통과 9학급, 상업과 6학급으로 편성되는 등 교세가 늘어났다. 1985년 11월 7일 보통과 12학급, 상업과 3학급으로 학칙을 변경하였고, 1986년 10월 15일 동두천고등학교로 교명 변경과 동시에 보통과 15학급이 되었다. 1996년까지 제31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5,50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지(智) · 덕(德) · 체(體)"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면학에 정진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기른다(지).
- 근면, 성실하며 덕성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덕).
-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체력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체).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꽃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교화는 구면과 성실을 의미하는 반면 은행나무는 정직과 협동을 의미한다. 특기교육은 MRA(Sing-out)와 기능자격취득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급수와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학급수는 각학년이 5학급씩이지만, 편성 내용은 다르다. 1학년은 공통이 5개 반이나 2학년은 인문이 3개 반과 자연 2개 반이고, 3학년은 인문 · 자연 · 직업이 2 · 2 ·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재학생은 1학년 270명, 2학년 227명, 3학년 210명 등 707명이다.

〈표 55〉 학급수와 학생 현황

학년 / 구분	1		2			3				합계
	공통	계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직업	계	
학 급 수	5	5	3	2	5	2	2	1	5	15
학 생 수	270	270	136	91	227	85	85	40	210	707

교직원 현황은 〈표 5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1명, 주임교사가 8명, 일반교사가 21명 등 31명이다. 일반직은 과장과 서무가 각 1명, 기능이 3명 등 총 5명이다.

교육시설은 교지와 교사로 파악하였다. 교사대지는 2,706m²이고, 체육장은 11,550m²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5개, 특별교실 10개, 관리실 4개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역대 교장은 1963년 3월 1일 개교와 동시에 초대 교장인 원종구가 부임하여 1967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였다. 현재는 1996년 9월 1일부터 제11대 교장은 홍경섭이 재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표 56〉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8	21	·	·	·	31	1	1	3	·	5	36

〈표 57〉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2,706	11,550	·	15	10	4	·

〈표 58〉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원종구	1963. 3. 1~1967. 2.28	7	유영근	1988. 9. 1~1989. 2.28
2	장봉상	1967. 3. 1~1970. 2.28	8	유계선	1989. 3. 1~1989.12.27
3	원종구	1970. 3. 1~1977.11.30	9	안도식	1990. 4. 7~1994. 8.31
4	안도식	1977.12. 1~1979. 7.20	10	박찬혜	1994. 9. 1~1996. 8.31
5	원종구	1979.10. 2~1984.11.13	11	홍경섭	1996. 9. 1~현재
6	홍경섭	1985. 1.26~1988. 8.31			

3.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 43번지이다.

1969년 11월 17일 동두천여자원예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1970년 3월 2일 개교하였다. 1971년 8월 20일 상업과 3학급 신설이 인가되면서 1971년 12월 21일 동두천여자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72년 12월 8일 가정과 3학급 신설이 인가된 이후 1973년 9월 5일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과 1975년 12월 24일에는 12학급으로 증설되었

다. 1976년 12월 2일 15학급으로 증설 인가되었다. 1978년 12월 4일 18학급 인가와 1980년 11월 5일 21학급 인가, 1987년 10월 12일 24학급 인가, 1992년 9월 29일 정보처리과 3학급 개편 인가, 1995년 9월 29일 정보처리과 6학급 및 상업디자인과 3학급 개편 인가를 받았다.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훈은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자"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투철한 자유민주정신으로 애국애족하는 여성을 기른다(愛國人)
- 선의지의 생활을 바탕으로 덕성을 지닌 여성을 기른다(德性人)
-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여성을 기른다(能力人)
- 과학적인 사고력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여성을 기른다(節約人)
- 심신단련을 통하여 조화적 균형을 이룬 건강한 여성을 기른다(健康人)

상징물로 교화는 목련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목련은 소망과 순결을 상징하며 은행나무는 정직과 강인함을 의미한다. 특기교육으로 고적대 · 연극 · 민속놀이(농악) · 사이클 · 빙상 등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급수는 각 학년 모두 8학급씩 총 24개 학급이다. 즉 상업디자인과 1개 반, 상업과 19개 반, 정보처리과 4개 반 등이다. 재학생은 1학년 432명, 2학년 369명, 3학년 358명 등 1,159명이나 된다. 상업디자인과는 1학년에만 1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재학생과 학급수를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교직원 현황은 〈표 60〉과 같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1명이고, 주임교사는 11명, 일반교사는 38명, 양호교사는 1명 등 52명이다. 일반직은 과장과 서무 1명, 기능직 3명 등 5명이다.

교육시설은 교지와 교사로 구분된다. 교지는 교사대지 3,979m²이고, 체육장 7,150m²이다. 교사로 보통교실은 24개, 특별교실은 9개, 관리실은 5개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역대 교장은 〈표 62〉와 같다. 1970년 3월 2일 개교와 동시에 초대 교장인 장봉상이 부임하였다. 현재는 1996년 8월 1일 이래로 제4대 교장으로 원신이 재임하고 있다.

〈표 59〉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상업디자인과	상업과	정보처리과	계	상업과	정보처리과	계	상업과	정보처리과	계	상업디자인과	상업과	정보처리과	계
학급수	인가	1	5	2	8	7	1	8	7	1	8	1	19	4	24
	편성	1	5	2	8	7	1	8	7	1	8	1	19	4	24
학생수		54	270	108	432	324	45	369	311	47	358	54	905	200	1,159

〈표 60〉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11	38	1	·	·	52	1	1	3	·	5	57

〈표 61〉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지(㎡)			교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3,979	7,150	·	24	9	5	·

〈표 62〉 역대 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장봉상	1970. 3. 2~1974. 3. 8	3	홍경섭	1988. 9. 1~1996. 8.31
2	박찬혜	1974. 3. 9~1988. 8.31	4	원 신	1996. 9. 1~현재

4.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1동 34번지이다.

1960년 4월 14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67년 3월 2일 신흥여자고등학

교로 개교한 이후 1969년 11월 24일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1리로 신축 교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71년 12월 20일에는 6학급 증설을 인가받았다. 1974년 7월 20일 학교법인 보영학원 설립 인가와 보영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74년 11월 20일 12학급 증설과 1976년 11월 26일에는 15학급 인가, 1978년 11월 20일에는 18학급 인가, 1980년 11월 4일에는 21학급으로 인가되었다. 1981년 10월 20일 학칙 변경과 함께 상업과 15학급과 보통과 6학급을 인가 받아 1982년 3월 1일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86년 10월 30일 학급 증설 인가로 상업과 21학급과 보통과 6학급이 되었다. 1993년 9월 27일 상업과 21학급, 보통과 6학급을, 1993년 9월 27일 상업과 2학급과 정보처리과 2학급 등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까지 27회 졸업식을 거행해 7,5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

교훈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을 경외(敬畏)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여성을 기른다.
- 소질을 계발(啓發)하고 새시대에 적응하는 실력을 갖춘 여성을 기른다.
- 심신이 건전하고 예절이 바르며, 여가를 선용하는 여성을 기른다.
- 책임감이 강하고 과학적이며, 경제적 생활을 하는 여성을 기른다.
-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알차게 일하며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을 기른다.

상징물로 교화는 백합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한편 학급수와 학생현황은 〈표 63〉과 같다. 학급수는 각 학년 9개 반으로 총 27개 학급이다. 현재 재학생은 1학년 486명, 2학년 405명, 3학년 405명 등 1,295명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임을 알 수 있다.

교직원 현황은 〈표 64〉와 같다. 교원으로 교장과 교감은 각 1명, 주임교사는 12명, 일반교사는 41명, 양호교사는 1명 등 56명이다. 일반직은 서무 2명, 기능직 3명으로 5명이다.

교육시설 현황은 〈표 65〉와 같다. 교지로 교사대지는 13,689m^{2}이고, 체육장은 7,000m^{2}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27개, 특별교실 4개, 관리실과 기타가 각각 2개씩 등이다.

한편 역대 교장은 보영여자중학교와 같다.

〈표 63〉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 분		인가학급수	편성학급수	인가학생수	편성학생수	총 계
1	산 업 과	5	5	270	270	486/486
	정보처리과	2	2	108	108	
	보 통 과	2	2	108	108	
	계	9	9	486	486	
2	상 업 과	5	5	235	223	405/421
	정보처리과	2	2	94	93	
	보 통 과	2	2	92	89	
	계	9	9	421	405	
3	상 업 과	5	5	235	223	405/421
	정보처리과	2	2	94	94	
	보 통 과	2	2	92	88	
	계	9	9	421	405	
총 계		27	27	1,328	1,295	1,295/1,328

〈표 64〉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12	41	1	·	·	56	·	2	3	·	5	61

〈표 65〉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3,689	7,000	·	27	4	2	2

5. 신흥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이다.

1960년 4월 14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설립을 인가 받아 1960년 5월 3일 신흥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1963년 12월 6일 신흥상업고등학교 교명 변경과 동시에 농업과 3학급과 상업과 2학급으로 개편하였다. 1984년 3월 20일 청심헌을 개관하고 같은해 11월 23일 청심당을 개관한 이후 1987년 3월 1일 신흥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6년 2월에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지금까지 3,4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진실 - 지식의 탐구, 박애 - 사랑의 실천, 근로 - 땀의 희열"이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알차고 다듬어진 지성인의 육성
- 사랑과 봉사에 충실하는 이성인의 육성
- 건강하고 진취적인 세계인의 육성

상징물로 교화는 개나리꽃이고,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교화는 화목과 단결을 상징하며 은행나무는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

학급수는 각 학년 4학급씩 12개 학급이지만, 편성 내용은 다르다. 즉 1학년은 모두 인문계이고, 2~3학년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각각 2학급씩이다. 재학생은 1학년 217명, 2학년 178명, 3학년 169명 등 564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6〉과 같다.

교직원 현황은 〈표 67〉과 같다. 교원으로 교장과 교감이 각각 1명, 주임교사는 6명, 일반교사는 17명 등 25명이다. 일반직으로 과장과 서무가 각 1명, 기능직 3명 등 5명이다. 즉 교직원은 모두 30명이 재직하고 있다.

교육시설 현황은 〈표 68〉과 같다. 교지로 교사대지는 18,858, 체육장은 10,213, 기타는 2,579이다. 교사는 보통교실 12개, 특별 교실 3개, 관리실과 기타가 각각 2개 등이다.

교장은 개교 이래 강신경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표 66〉 학급수와 학생 현황

구분	1	2		3		총계	
	인문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가학급	4	2	2	2	2	8	4
편성학급	4	2	2	2	2	8	4
학 생 수	217	86	92	84	85	387	177
총 계	217	178		169		564	

〈표 67〉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급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	과장	서무	기능	기타	계	
인원	1	1	6	17	·	·	·	25	1	1	3	·	5	30

〈표 68〉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 지(㎡)			교 사(개)			
	교사대지	체육장	기 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보유량	18,858	10,213	2,579	12	3	2	2

6. 경기실업고등기술학교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 65번지이다.

1961년 2월 28일 재단법인 경기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61년 4월 16일 경기고등기술학교로 개교하였다. 당시 재학생은 미용과 2학급, 이발과 1학급, 양재과 1학급 등 총 4학급 160명이었다. 1975년 2월 6일 이발과와 양재과를 폐과하고, 3년제 전자과와 상업과 각 3학급의 신설을 인가받았다. 1985년 3월 1일 현재의 교사(校舍)자리로 건평 33,069㎡의 신축 · 이전하였다. 1991년 3월 16일 14개동의 교사를 신축하고 1992년 1월 3일 학력인정학교로 인가되었다.

1992년 3월 2일에는 경기실업고등기술학교로 개명하였다. 1996년까지 3,3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훈은 "올바른 정신, 알찬 기술연마, 정성을 다하는 기능인"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업고등기술학교

•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책임을 다하는 한국인을 양성한다.

• 알찬 기술연마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능력있는 기능인을 육성한다.

• 정성을 다하고 과학을 생활화하는 과학인을 만든다.

학급수와 학생 현황은 〈표 69〉와 같다. 학급수는 1학년이 4학급이고,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2학급씩 총 8학급이 있다. 즉 전자과와 미용과는 6개와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재학생은 현재 1학년만 59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 69〉 학급수와 학생 현황

학년별 / 구분 / 과별		1		2	3	소 계		총 계
		전 자	미 용	전 자	전 자	전 자	미 용	
인가학급수		2	2	2	2	6	2	8
편성학급수		·	2	·	·	·	2	2
인가학생수		100	100	100	100	300	100	400
학생수	남	·	6	·	·	·	·	6
	여	·	53	·	·	·	·	53
	계	·	59	·	·	·	·	59

교직원으로 교원은 교사 2명 등 3명이다. 일반직은 과장과 사무원 1명씩 2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0〉과 같다.

교육시설은 교지 33,000m², 체육장 3,000m²이다. 교사는 특별교실과 관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설 현황을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표 70〉 교직원 현황

급별 / 직위 / 인원 / 성별	교원					일반직			총계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계	과장	사무원	계	
인원 남	·	·	·	1	1	1	·	1	2
인원 여	1	·	·	2	3	·	1	1	4
인원 계	1	·	·	3	4	1	1	2	6

〈표 71〉 교육시설 현황

구분	토지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실별 / 기준	교지	체육장	보통교실	컴퓨터실	과학실	전자실	도서실	미술실	상담실	휴게실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	숙직실	급수장	변소	창고
보유	33,000	3,000	4.95	82.5		82.5			82.5		26.4	82.5	26.4	20.63	26.4	52.8	20.63

역대 교장은 1961년 5월 20일 개교와 동시에 초대 교장으로 원종구가 부임하였다. 현재는 제4대 교장인 서병상이 1991년 3월 16일부터 재직 중이다. 역대 교장의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72〉와 같다.

〈표 72〉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원종구	1961. 5.20~1962. 5. 5	3	원응선	1990. 2. 1~1991. 3.15
2	하순근	1962. 5. 6~1990. 1.31	4	서병상	1991. 3.16~현재

제 6 절 사설학원

교육 열기와 더불어 동두천시에도 사설학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컴퓨터붐과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이러한 학원들이 많이 성립되었다. 사설 학원 현황은 〈표 73〉과 같다. 그러나 영세한 학원 난립으로 교육 내용의 질적인 저하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 73〉 사설학원 현황

학 원 명	설 립 자	위 치
21C 외국어학원	윤 석 경	동두천시 보산동 421-1
개성영재주산속셈	이 재 전	동두천시 생연4동 584-18
개성컴퓨터학원	김 현 송	동두천시 생연4동 583-3
경희보습학원	정 영 달	동두천시 생연동 688-10
고려보습학원	오 영 석	동두천시 생연동 304-3(3층)
고려속셈학원	최 숙 자	동두천시 생연동 304-3(3층)
공간나누기미술	현 재 호	동두천시 생연동 611-94, 9596
광명서예학원	유 정 숙	동두천시 생연4동 584
국제어린이외국어	김 현 정	동두천시 생연동 575
그린독서실	원 병 주	동두천시 생연동 348
글샘웅변학원	이 영 은	동두천시 생연동 464-9 우성A
다니엘속셈학원	강 명 성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37
다솔컴퓨터학원	공 인 석	동두천시 생연2동 687-16
달님속셈학원	최 선 진	동두천시 보산동 407-46(3층)
대림웅변학원	정 호 양	동두천시 생연3동 304
대성속셈학원	김 은 희	동두천시 생연동 303-1
대성외국어학원	김 미 선	동두천시 생연동 303-1
대성입시학원	김 은 희	동두천시 생연동 303-1
대성컴퓨터학원	백 경 엽	동두천시 생연4동 821-30
대신속셈학원	조 광 수	동두천시 생연1동 479
대양컴퓨터부기	이 종 훈	동두천시 생연3동 483-1
대한속셈학원	박 성 진	동두천시 생연동 589-67

학 원 명	설 립 자	위 치
동그라미미술학원	유 은 옥	동두천시 생연2동 814-5
동두천국악무용	전 영 희	동두천시 생연3동 489-6
동두천미술학원	황 정 택	동두천시 생연동 304-3(2층)
동두천서예학원	송 순 화	동두천시 생연동 304
동두천종로보습	안 주 철	동두천시 생연동 395번지
동두천종로속셈	안 주 철	동두천시 생연동 395
동두천중앙속셈	김 수 경	동두천시 생연동 607-11
동연보습학원	김 문 옥	동두천시 생연2동 447-2
동연외국어학원	김 문 옥	동두천시 생연3동 447-2
동은서예학원	강 건 남	동두천시 생연3동 602-6
모짜르트피아노	박 태 성	동두천시 생연동 787-2
무지개음악학원	이 미 영	동두천시 생연동 411-1
미래미술학원	박 시 형	동두천시 생연3동 658-4
미로컴퓨터학원	박 상 균	동두천시 생연3동 602-5,6
빛샘음악학원	이 영 미	동두천시 생연2동 696
샛별피아노학원	홍 경 미	동두천시 생연동 728-17
생연미술학원	김 영 운	동두천시 생연동 304
샬롬속셈학원	김 영 희	동두천시 생연동 268-5
살롬음악학원	김 영 희	동두천시 생연동 268-5
서울보습학원	주 준 학	동두천시 생연동 698-10 1/1
선형피아노학원	이 선 형	동두천시 생연동 397-1
세종속셈학원	박 순 희	동두천시 보산동 412-49 3/4
순흥컴퓨터학원	김 미 경	동두천시 생연1동 505-4
순흥학원	김 성 현	동두천시 생연1동 505
스잔나음악학원	조 순 자	동두천시 생연2동 814-5
신미래부기학원	강 인 혁	동두천시 생연동 491-21
신미래컴퓨터학원	강 인 혁	동두천시 생연3동 491-21
신미술학원	신 영 일	동두천시 생연3동 555 5/4
신애피아노학원	이 은 정	동두천시 생연2동 669-13
신일부기학원	김 종 택	동두천시 생연3동 643-1
신일컴퓨터학원	김 종 택	동두천시 생연3동 643-1
아담미술학원	박 재 중	동두천시 생연동 85
아름미술학원	김 인 선	동두천시 생연3동 484-4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알파미술학원	이길연	동두천시 생연2동 663-12
야후컴퓨터학원	최정옥	동두천시 생연동 601-3
양덕속셈학원	전양경	동두천시 지행동 275-15
연지보습학원	전지웅	동두천시 생연동 404-2
연지속셈학원	전지웅	동두천시 생연동 404-2
연지음악학원	김은아	동두천시 생연동 404-2
열린보습학원	홍경숙	동두천시 내행동 396-5
열린속셈학원	홍경숙	동두천시 생연동 396-5
예원미술학원	장현우	동두천시 생연2동 698-6
예원속셈학원	정봉조	동두천시 생연2동 698-6
예원피아노학원	정미연	동두천시 생연2동 698-6
예일속셈학원	한진순	동두천시 동두천동 209-14
온누리속셈학원	김동석	동두천시 생연동 397-1
우신보습학원	박신현	동두천시 생연3동 598-4
우신속셈학원	박신현	동두천시 생연3동 598-4
웅비속셈학원	이철웅	동두천시 생연동 683-18
으뜸주산속셈학원	박재홍	동두천시 생연2동 821
이화미술학원	신선용	동두천시 생연동 342-5
이화음악학원	박우정	동두천시 생연동 85번지 3층
인디안헤드부기학원	강성종	동두천시 생연동 523-1
인디안헤드외국어	강성종	동두천시 생연1동 523-1
인디안헤드컴퓨터	강성종	동두천시 생연동 652-4
제일독서실	박태수	동두천시 생연2동 819 5/2
제일속셈학원	안종철	동두천시 지행동 289-1
제일외국어학원	안종철	동두천시 지행동 289-1
제일음악학원	안종철	동두천시 지행동 289-1
지연음악학원	이정희	동두천시 생연동 351
집현독서실	박상일	동두천시 생연3동 575-11
참소리피아노학원	안재빈	동두천시 보산동 412-27
청운외국어학원	김경훈	동두천시 생연1동 497-23
초록피아노학원	김성화	동두천시 생연3동 607-7
하이텔컴퓨터학원	유현승	동두천시 생연동 303-1
한림속셈학원	이덕환	동두천시 생연2동 666-6

학 원 명	설 립 자	위 치
한림학원	이 덕 환	동두천시 생연2동 666-6
한샘컴퓨터학원	김 두 익	동두천시 생연동 555-4
한샘학원	김 두 익	동두천시 생연3동 595-1
한소리피아노학원	김 선 옥	동두천시 생연동 400-1
한양보습학원	류 도 균	동두천시 생연동 344-5
한양속셈학원	김 진 성	동두천시 생연동 342-5
현경피아노학원	이 선 옥	동두천시 생연동 464-9
현희속셈학원	서 일 섭	동두천시 상봉암동 209-3
형제웅변속셈학원	주 혜 령	동두천시 생연3동 559-11
희망속셈학원	이 홍 식	동두천시 생연2동 823-39

제7절 동두천교육청



동두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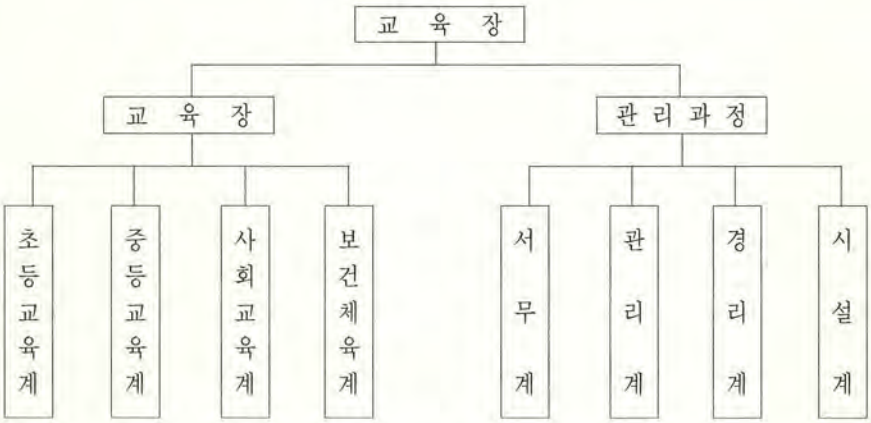
동두천교육청은 1981년 7월 1일 동두천의 시 승격과 함께 개청(開廳)되었으며, 양주군과 동두천지역을 관할한다. 1983년 3월 29일 현재의 위치에 청사(대지 2,310㎡, 건평 1,240㎡)를 준공하여 5월 3일 이전하였으며, 1985년 12월 7일에는 청사 3층을 증축(건평 492㎡)하여 회의실과 전시실을 마련하였다.

1991년 3월 26일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발맞추어 광역교육자치제(廣域敎育自治制)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8월에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양주·동두천지역에서는 남면 출신의 조웅래가 선출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교육예산안의 심의·의결 등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기구표는 〈도표 1〉과 같다.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장과 관리과정으로 구분된다. 초등교육계 · 중등교육계 · 사회교육계 · 보건교육계를 산하에 두었다. 관리과정은 서무계 · 관리계 · 경리계 · 시설계를 관장한다.

교육청의 소재지는 동두천시 지행동 284-1번지이다.



〈도표 1〉 기구와 조직표

역대 교육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74〉와 같다. 1981년 7월 1일 초대 교육장 박응서가 부임한 이래로 1995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제9대 이홍구가 재직 중이다.

〈표 74〉 역대 교육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박응서	1981. 7. 1~1983. 3. 4	6	하윤민	1990. 3. 1~1991. 8.31
2	김상해	1983. 3. 5~1984. 8.31	7	박인희	1991. 9. 1~1993. 8.31
3	김현규	1984. 9. 1~1986. 8.31	8	김정완	1993. 9. 1~1995. 3. 1
4	안병한	1986. 9. 1~1989. 2.29	9	이홍구	1995. 3. 2~현재
5	윤태권	1989. 3. 1~1990. 2.28			

〈홍경섭〉

제2장 종교

제1절 불교

1. 개관

삼국시대까지도 종교라면 단지 자연신이나 조상신을 숭배하는 형태이거나 무속(巫俗) 등 원시상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씨족공동체에서 부족으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고등종교를 필요로 하였다. 이때에 불교가 전래되어 삼국의 고대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 우리 고유의 토착사상을 포섭 · 융합하면서 발전하였다. 그 까닭에 불교는 외래사상이면서도 삼국의 지도이념으로써 기초를 확립하고 한국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삼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의 왕 부견이 보낸 순도가 불상(佛像)과 불전(佛典)을 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백제에는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에서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와서 불교를 전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다같이 왕실의 보호와 장려 속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늦게 눌지왕대(416~458)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사상과 대립으로 포교가 금지되었고, 이 때문에 민간에 널리 퍼지지 못하고 법흥왕 14년(527)에야 이차돈(李次頓)의 순교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 즉 고구려 · 백제와는 달리 신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초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지만, 통일을 전후한 7세기 경에는 불교 전성시대를 확립하였고, 황룡사 · 분황사 · 감은사 등 대찰이 설립되었다. 또한 원강(圓光) · 자장(慈藏) · 의상(義湘) 등 고승이 배출되어 불교 교리 연구와 대중 교화에 힘썼다. 특히 원효(元曉)는 정토교(淨土敎)를 통하여 교화와 불교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삼국의 불교 전래는 고대국가 성립과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공헌하였고, 왕실의 보호 속에 호국신앙(護國信仰)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는 5교9산(五敎九山)으로 분리되어 서로 대립하다가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한 후 불교는 다시 정

비되기 시작한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훈요십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교로 장려하였기 때문에 호국불교 또는 현세구복신앙으로 크게 융성하였다. 이때 5교9산은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으로 통합 · 정리되는데,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이 큰 역할을 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화엄종에 바탕을 두고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포섭하려고 천태종(天台宗)을 개창하였고, 지눌은 무신난 이후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하여 조계종(曺溪宗)을 창시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불교는 5교양종(五敎兩宗)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불교는 불력(佛力)으로 외적을 퇴치하려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축조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공헌할 뿐 아니라 호국불교의 역할을 담당한 내용이다. 그러나 후기에는 불교 자체의 타락상이 노출되고, 이때 새로이 전래된 성리학과 이를 신봉하는 사대부들의 비난 속에 배불론(排佛論)이 제기되고, 마침내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어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선시대 불교는 배척과 억압을 당하는 수난기를 맞이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불교가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다. 태조의 내원당과 무학대사 우대책, 세종의 내불당, 세조 때의 간경도감 설치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 국왕들 중에는 국가 정책과는 달리 국왕 개인의 신앙심으로 불교가 보



자재암

호되었고, 민간의 신앙심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성종 이후 계속적인 불교억제책으로 불교는 수난 속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같은 수난 속에서도 불교는 꾸준히 자기 수행과 인고로 명맥을 유지하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구국활동에 앞장섰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서산대사(西山大師) · 영규대사(靈圭大師), 병자호란 때의 명조(明照)와 각성(覺性)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삼국시대 이래의 호국불교 사상과 고려시대의 선교겸수(禪敎兼修)의 경향을 면면히 계승시켰다.

갑오개혁 이후에 불교는 근대화의 조류에 따라 재건되었다. 건양 원년(1896)의 승려의 도성 출입 허용, 광무 8년(1904)의 원흥사 건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1911년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하여 불교를 식민정책에 이용하려 하였다. 이 결과 불교 교단은 30본산으로 나뉘고 교구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반대하는 승려들은 〈사찰령〉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등 불교계는 극렬히 대립하였다. 한용운(韓龍雲)과 같이 3 · 1운동을 주동하여 나라의 독립에 이바지한 승려들도 나타나고, 불교개혁을 제창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다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내부의 자성과 부단한 정진을 통하여 발전하면서, 사회 요구에 부응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18개 종단이 등록되었고, 이것이 대표적인 교파이다. 18개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 진각종(眞覺宗), 진언종(眞言宗), 불입종(佛入宗), 법화종(法華宗), 일승종(一乘宗), 천태종(天台宗), 원효종(元曉宗), 화엄종(華嚴宗), 총화종(總和宗), 법상종(法相宗), 미륵종(彌勒宗), 정토종(淨土宗), 용화종(龍華宗), 보문종(普門宗), 한국불교태고종(太古宗), 법화종(法華宗), 천화불교(天華佛敎) 등이다.

2. 동두천의 불교

현재 관내에는 9개 종단 산하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선덕여왕 14년(645)에 창건한 자재암을 비롯하여 33개의 사찰이 있다. 각 종파별 특성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

(1)조계종의 성립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9산선문(九山禪門)을 고려시대에 지눌이 통합하여 개창한 교파이다.

조계(曹溪)는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慧能)의 별호에서 유래한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래된 불교는 고려시대에 5교9산(五敎九山) 또는 12종(十二宗)의 분파를 이루며 조직적인 통일 교단을 정비하여 통합운동을 벌여 교관겸수(敎觀兼修) ·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하며 천태종(天台宗)을 개립하였고,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은 쇠퇴한 선문(禪門)을 재흥시키기 위하여 교선조화(敎禪調和) · 정혜겸수(定慧兼修)를 주창하며 조계종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불교는 5교양종으로 정비되었고, 고려 말에 이르러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는 5교9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세웠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숭유의 결과 불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였다. 이때 조계종 · 천태종 · 총남종이 합쳐 선종이 되었고, 교종의 여러 종파는 선교 양종(禪敎兩宗)으로 전국에 본산 36사만을 인정하는 8도도총섭제도(八道都總攝制度)를 취하면서(1425년)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임진왜란 후 한말까지 남북총섭시대(南北總攝時代)로, 이때 선종과 교종이 양립되어 선종은 조계종 · 천태종 · 총남종으로, 교종은 화엄종 · 자은종(慈恩宗) · 중신종(中神宗) · 시흥종(始興宗)으로 분리되었다. 즉 조계종은 선종으로서 별도의 종단을 구성하게 된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여 30본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교 양종의 명칭이 사용되었고, 1913년에는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제도가 실시되더니, 이듬해에는 선교 양종을 통합하여 조선불교조계종을 설립하였다. 1923년에는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이사제도가 실시되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대한불교 각 도 종무원제도가 실시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부터 비구(比丘) · 대처(帶妻)사이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나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때 비구측에서는 1962년에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을 결성하여 25교구본사제도(二十五敎區本寺制度)를 실시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불교재단 등록을 하였다. 1988년에는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전통사찰보존법(傳統寺刹保存法)〉을 공포 · 시행하여 697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였다.

현재 조계종을 종정(宗正)을 대표로 총무원장이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된 사찰은 약 700여 사, 승려수 약 1만4천 명, 신도수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불교종단 최대의 교세를 이루고 있다.

(2) 조계종사찰 현황

현재 동두천시에는 11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도수는 1,550명으로 최대의 교세(敎勢)

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계종사찰 현황

교 파	사찰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조계종	보문사	이종례	1947.2.6	생연1동 151	100	865-3374
〃	보리암	정봉순	1923.6.29	보산동 428	150	865-5520
〃	일연사	김덕기	1945.9.29	송내동 180	200	865-4120
〃	원각사	신명순	1948.2.12	동두천동 37	200	865-8503
〃	송라암	문원자	1923.12.29	동두천동 122-1	30	63-0661
〃	보광사	김명자	1943.12.2	동두천동 122-1	10	62-7488
〃	선양사	이승재	1942.9.7	안흥동 172	10	62-5444
〃	자비사	나필수	1933.5.22	동두천동 4	50	62-7491
〃	자재암	신광수	1946.5.16	상봉암동 산1	300	865-4045
〃	원흥사	김학민	1959.12.8	광암동 466-6	200	867-3593
〃	약수암	신보암	1947.7.7	상패동 산8	300	64-0399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신도수는 선양사 · 보광사의 각각 10명에서 자재암 · 약수암의 300명 등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규모의 사찰은 없다.

2)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敎太古宗)

(1) 태고종의 성립

태고종의 종조(宗祖)는 고려말 태고 보우국사이다. 식민지시기에 한국불교는 〈사찰령〉이 제정되어 30본산제도를 실시하였다. 1945년 해방을 맞아 30본산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을 설립하여 단일 종단을 구성하였다.

광복 직후부터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의 대립으로 종단의 분규가 발생하여 교단은 큰 혼란을 맞았다. 고승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1962년에 조계종 재건비상총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종헌을 제정 · 공포하여 통합종단을 결성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출가승(出家僧)과 재가승(在家僧)의 생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할 수

없어 2년 뒤에 대처승들은 이탈하여 종권(宗權)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1969년 조계종의 종권이 비구승에 있다고 판결하자, 대처승들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고, 불교단체 등록을 마쳤다. 이후 1988년에는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법인을 설립하였다.

(2) 태고종사찰 현황

현재 동두천시에는 6개 사찰에 620명의 신도가 등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태고종사찰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태고종	선화사	천선화	1939.6.12	생연1동 458	400	865-6836
〃	청룡암	유태희	1915.6.25	생연2동 665-10	100	865-6524
〃	승룡사	고운근	1942.7.29	지행동 227-4	10	62-1126
〃	광덕사	김현덕	1916.7.22	상패동 23	70	865-4122
〃	덕수사	함덕순	1926.11.15	상패동 835	30	62-6687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표 2〉와 같이 신도는 선화사의 400명에서 승룡사 10명이다. 이처럼 태고종계의 사찰은 동두천에서 아직까지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3) 일붕선교종(一鵬禪敎宗)

(1) 일붕선교종의 성립

서경보(徐京保)가 1975년에 사단법인체로 일붕선종회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불교의 한 종파이다. 서경보는 1969년 대한불교미국중앙선원(大韓佛敎美國中央禪院)과 일붕사(一鵬寺)를 창건하고, 이곳에서 선(禪)의 행법을 지도 · 보급하여 도의와 정신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다시 1975년에는 국내에 일붕선종회를 창설하여 현대인들에게 선의 철학체계(哲學體

系)를 이해시켜 불교의 대중화와 선리(禪理)를 생활철학의 근본으로 하여 호국불교와 보살사상을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붕선종회는 약 2,500명이고, 회지 ≪일붕선사상≫ 발간, 불교경전 번역, 선사상강연회 개최 등 활동을 하였다. 일붕선교종은 포교단체 일붕선종회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선사상을 보급하여 불교를 대중화시키고, 나아가 선리를 생활화하려는 목적에서 형성된 불교 종단이다.

(2) 일붕선교종사찰 현황

현재 동두천시에는 5개 사찰이 있으며, 신도수 1,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일붕선교종사찰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일붕선교종	쌍용사	김충남	1927.4.5	생연동 403	200	865-8170
〃	미황사	이순례	1923.1.29	생연동 43-1	300	865-3093
〃	칠봉사	오정애	1939.10.10	탑동동 561-1	250	867-8681
〃	대원사	이원근	1946.1.18	상패동 3-14	200	865-4893
〃	동원정사	현송자	1942.5.4	상패동 4-2	50	64-0880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신도수는 미황사 300명, 칠봉사 250명, 쌍용사 · 대원사가 각각 200명, 동원정사 50명 등이다.

4) 대한불교용화종(大韓佛敎龍華宗)

(1) 용화종의 성립

우리나라 불교 18개 종단 중의 하나이다. 인도의 무착(無着)과 중국의 현장(玄裝)을 종조로 하고, 법상종(法相宗)를 창종한 신라의 진표(眞表)를 우리 나라의 시조로 삼아 1932년 진공이 창종하였다.

진공은 구성사(九聖寺; 전남 구례)를 창건하여 용화신앙의 재가수도를 권장하였고, 1935년에는 경남 하동에 포교당, 1943년에는 상불사(上佛寺; 경남 하동)를 창건하고 총림(叢林)을 설

치하였다. 1947년에는 위봉사(威鳳寺; 전북 완주)로 이동하여 선농일여(禪農一如)로 정진하였고, 1955년에는 용화사(龍華寺; 전북 김제)를 창건한 후 1963년에 대한불교 용화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쳤다.

용화종의 총불사는 원각사(圓覺寺; 전북 전주시)이다. 근본경전은 미륵성불경이고, 본존불은 미륵불이며, 견성오도(見性悟道)하여 미륵불의 정신으로 지상불국토를 실현하고, 미륵용화세계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단기구로는 종주 밑에 종단의 종무운영을 통괄하기 위하여 총무 · 교무 · 재무 등을 두었고, 최고의결기관인 승려중전체대회(僧侶衆全切大會)가 있어 제반중요 사항을 의결 · 처리한다.

(2) 용화종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소속 사찰로 3개가 등록되었으며, 신도수는 선덕사 100명, 화장사 50명, 용운암 10명 등 160명이다.

종단 소속 사찰과 현황은 〈표 4〉와 같다. 3개 사찰에 소속된 신도수는 160명이다.

〈표 4〉 용화종 사찰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용화종	선덕사	최춘엽	1945.6.11	생연1동 239	100	865-5564
〃	화장사	정충원	1942.8.19	상패동 산29	50	62-0419
〃	용운암	현돈숙	1942.2.23	상패동 43	10	865-5403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5) 한국불교법륜종(韓國佛教法輪宗)

(1) 법륜종의 성립

법륜종은 태고종에서 분파되어 나온 종파다. 때문에 18개 등록종단에도 누락되어 있다.

(2) 법륜종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3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도수는 265명이다. 홍연암 150명, 대도사 50명, 용암사 15명으로, 종단 소속 사찰과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법륜종사찰 현황

교 파	사찰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법륜종	홍연암	김영수	1914.8.20	생연동 445	150	865-3012
〃	대도사	김증희	1930.2.9	송내동 산80	100	865-4892
〃	용암사			안흥동 172	15	62-4549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6) 대한불교총화종(大韓佛敎總和宗)

(1) 총화종의 성립

불교 18개 종단 중의 1개 종단이다. 1969년 최득연(催得淵)이 총화회로 창립한 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총화회로 불교 단체 등록을 하였으나, 1979년에 대한불교총화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사는 종로 2가에 있고, 종지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구현하고자 대승행원(大乘行願)을 닦아 대중을 교화하는 것이다. 근본경전은 반야경(般若經),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다.

종단기구는 종무를 통괄하는 총무원과 사무 감사를 관장하는 사정위원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가 있고, 부속기관으로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과 의식을 집행하는 전법원(傳法院)이 있다.

(2) 총화종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과음사와 복천암에 각각 290명과 300명 등 총 59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종단 소속 사찰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총화종사찰 현황

교 파	사찰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총화종	과음사	박홍성	1945.9.29	생연1동 189	290	865-5287
〃	복천암	정순달	1930.9.20	생연동 산48	300	865-770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7) 대한불교일승종(大韓佛敎一乘宗)

(1) 일승종의 성립

1968년 법화경의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으로 중생제도와 호국안민의 서원을 이룩하려고 창립된 종단이다. 처음 최호민(催浩敏)을 중심으로 일승종단을 창단하였으나, 1969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대한불교일승종포교원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하였고, 1973년에는 대한불교일승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종지는 법화경의 회삼귀일사상을 본지로하여 교관겸수(敎觀兼修)하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나라를 지키며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다.

종단기구로는 종무 전반을 통괄 처리하는 총무원과 감찰기관인 감찰원, 종책수립(宗策樹立)을 위한 종책위원회,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宗議會)가 있다. 총무원 밑에는 총무부 · 교무부 · 재무부 · 사회부가 있다.

(2) 일승종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사찰에 3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일승종사찰 현황

교 파	사찰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일승종	자비암	송덕선화	1932.1.12	상패동 산34	30	62-5286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8) 대한불교법상종(大韓佛敎法相宗)

(1) 법상종의 성립

우리나라 불교 18개 종단 중의 하나로 신라시대의 진표(眞表)를 종조로 하여 전영동(全英東)이 1969년에 전라북도 금산사에서 창종하고, 1970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불교단체 등록을 하였다. 1977년에는 대한불교 법상종으로 개칭하였다.

근본 경전은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점찰선악업보경(占擦善惡業報經),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 등으로 미륵불의 자비 실천, 10선(十善)을 통한 재가실천(在家

實踐), 국가 사회를 위한 공헌, 지상낙원 구현의 이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존불은 미륵불이고, 종단 기구로는 집행기관인 총무원, 감사기관인 감찰원이 있고, 그 외에 참선원 · 교육원 · 연구원이 있다.

대의기관으로 승려대회와 신도대회가 있으며, 사회사업기관으로 불암보육원(충남 논산)이 있다.

(2) 법상종 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소속 사찰로 1개의 사찰에 70명의 신도가 등록되었으며, 사찰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법상종사찰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법상종	성 불 암	이소선	1943.12.5	상패동 3-9	70	865-4890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9) 대한불교본원종(大韓佛敎本願宗)

(1) 본원종의 성립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18개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 종단이다. 총화종에서 분파되었다.

(2) 본원종사찰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도수는 30명이다. 종단 소속 사찰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본원종사찰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본원종	보 현 사	정기선	1924.11.6	송내동 92	30	865-528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3. 반야심경언해 초간본



반야바라밀다심경 약소 언해본

반야심경의 본래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으로 줄여서 반야심경(般若心經)이라고 한다. 이 경전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인 600부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서 핵심부분을 발췌하여 집약한 것이다. 이 경전은 조계종을 표방하는 한국불교의 소의 경전으로 종파와 관계없이 모든 불교행사나 의식에서 독송되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큰 지혜를 완성하는 진수를 설한 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玄奘)의 한역(漢譯: 649년)과 법장(法藏)의 약소(略疏: 702년), 다시 송나라 때 중희(仲希)가 주해(註解: 1044년)를 붙인 것이다. 일찍이 세조는 1464년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반야심경언해 초간본이 자재암(소요동 소재) 주지에 의하여 발견되어 1994년 10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211호로 지정받았다. 또한 이것을 널리 읽게 하려고, 동국대학교에 의뢰하여 더욱 연구하고 번역하여 ≪첫한글반야심경(甲法陀 · 金英培 · 張榮吉 編者)≫으로 도서출판 대흥기획에서 1995년 출판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산문(山門)과 학계의 연구자료로 선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 속에 불심을 깨치는데 크게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야심경언해본은 세조가 1464년에 간경도감에 명하여 왕 자신이 특별히 현토한 것을 효령대군과 한계희(韓繼嬉) 등에게 번역 ·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간행된 초간본은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일사본(一蓑本)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자재암본(自在庵本)이 발견됨으로써 초조본은 2권이 보존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책은 책머리에 규장각 소장본에 있는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와 같은 판식(板式)과 내용이 같은 진금강경심경전(進金剛經心經箋)이 있고, 책 끝부분에는 한계희의 심경발문이 붙어 있어 금강경언해와 같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의 표지는 없이 한지 한 장을 앞 뒤로 붙여 놓았고,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선장(線裝)한 것이나, 지질이 좋지

않은 고정지(藁精紙)인 점 등은 인쇄본과 같다. 보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책의 판본은 네 가지가 있다(〈표 10〉 참조) . 즉 초쇄본(1464, 세조 10년 간행의 인사본과 자재암본)과 이의 후쇄본(1495, 연산군 원년 간행의 홍치본), 그리고 복간본 2종류(1553, 명종 8년 간행의 황주 심원사 판본과 1565, 명종 20년 간행의 순창 무량사 판본)이다. 그리고 각 판본의 편차는 〈표 11〉과 같다.

〈표 10〉 각 판본의 일람표

판본(板本)	판본명	간 행 연 대	소장처	책 크 기	광곽(匡郭)	영 인
초간본	일사본(一蓑本)	천순 8년 (세조 10년: 1464)	서울대 규장각	28㎝×19㎝	21.2×15.5	1973년 일지사
	자재암본(自在庵本)	천순 8년 (세조 10년: 1464)	동두천시 자재암	32.5㎝×19㎝	21.8×15.8	1995년첫 한글 반야심경의 영인저본
초간본의 후쇄	홍치판(弘治板)	홍치 8년 (연산군 원년: 1495)	故 최범술			1972년 불서보급사
	심원사판(深源寺板)	가정 32년 (명종 8년: 1553)	서울대 규장각	30.3㎝× 18.8㎝	21.5×15.8	
	무량사판(無量寺板)	가정 44년: (명종 20년: 1565)	故최명기 박사	28.5㎝× 14.9㎝	20.5×14.9	

〈표 11〉 각 판본의 편차 일람표

판 본 명	진 전 문	조 조 관	본 문	발 문	장수계
일사본(一蓑本)			언해본문 1-67장	심경발1-2장	69장
자재암본(自在庵本)	금강심경전(金剛心經箋)	조조관 1-2장	〃	〃	74장
홍치판본(弘治板本)			〃	학조발1-3장	70장
심원사필본(深原寺本)			〃	간기1장	68장

제2절 천주교

1. 개관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선조 · 광해군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지 서양 학문으로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에 명칭도 천주학(天主學) 또는 서학(西學)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서양인들에게 알려진 때는 15세기 말 인도 항로가 발견된 후 비로소 서양인의 동양진출이 시작되었고,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기반을 모색하였으며, 해외무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상들이 동양에 관심을 갖게된 17세기 초부터이다.

중국에는 이미 1583년 마테오릿마테오릿치(Mattea ricci)가 북경에 도착하여 신종의 신임을 얻어 성당을 건립하였다(1601년). 이후 중국은 서양선교사를 통하여 그들의 문물을 접하게 되었다. 이무렵 명나라에 왕래하던 사신들이 서양문물과 천주교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처음 이수광(李睟光)은 마테오릿치가 중국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저술한 ≪천주실의(天主室義)≫를 조선에 들여와 자신의 저술인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소개함으로써 천주교는 조선인들에게 처음으로 서학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일찍 임진왜란 때에는 세스페데스(Gregorio Cespedes)가 일본군 종군신부(從軍神父)로 1593년 부산에 상륙하여 1년간 머무른 적도 있다. 그는 단지 일본군 종군신부일뿐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전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천주교의 전래는 천주실의가 소개된 선조 · 광해군 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수광 이후 계속하여 정두원(鄭斗源)이 인조 9년(1631) 천주교 서적을 전하였고,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천주교 서적과 천주상을 갖고 돌아온 후 서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더니, 영조 · 정조 때에는 남인계 학자들이 서학에 특별히 관심을 표하였다. 이때부터 천주교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종교 · 신앙의 경향을 띠고 확대되었다. 이벽(李檗), 이가환(李家煥), 권일신(權日身), 정약종(鄭若鍾) 3형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 당시 서학에 대하여는 몇가지 견해가 있었다. 즉 서양의 것은 모두 사(邪)로 보고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입장이 그 첫번째요, 그 다음은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하나 사상과 종교는 배격하는 견해였고, 마지막으로는 서양의 것은 합리적인 것이요 특히 종교는 진리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견해였다. 이러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주교에 정식 입교한 사람은 이승훈(李乘薰)이다. 그는 정조 7년(1783)에 부친 이동욱(李東郁)을 따라 북경에 가서 그라몽(Louis de Grammant; 예수회 소속 선교사)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베드로(Peter)라는 교명을 얻었다. 그는 귀국할 때 천주교 서적과 성화(聖畵)·성물(聖物) 등을 갖고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힘썼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새로운 자극 속에 신앙운동이 전개되더니, 마침내 김범우(金範遇)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1784), 신자수도 점차 늘어 갔다. 이같이 천주교 신앙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사회의 지배적인 도덕률은 점차 동요될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우려하던 중 정조 12년(1788)에 이경명(李景溟)의 서학 폐단에 대한 상소가 있은 후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서학 탄압의 조치가 내려졌다(1791년).

천주교 탄압은 이미 정조 9년(1785)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예배를 보다 적발되어 김범우가 처형되고, 정조 11년(1787)에는 반촌(伴村)에 있는 김석대(金石大)의 집에서 천주교 교리를 강습하다가 적발되어 김석대가 처형된 사실이 있다. 당시 주자학 일변도의 조정 신하들은 "천주교는 충효사상을 배반하고 군신의 도를 어지럽히며 사회윤리를 해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탄압은 계속되었다.

정조 15년(1791)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尹持忠)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소각하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루다 발각되어 처형되었으며(신해사옥), 순조 원년(1801)에는 이승훈, 이사환, 정약종 등 신도 300여 명과 1785년에 잠입한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謀)가 처형되었다(신유사옥). 이 무렵 황사영(黃嗣永)은 북경 주교에게 신유사옥의 실상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는 백서(帛書)를 전하려다 발각되어 효수(梟首)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하였다(1827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중에 정하상(丁夏祥: 1801년에 순교한 정약종의 둘째아들)은 1816년부터 북경을 왕래하며 노력한 결과 순조 31년(1831)에는 교황 그레고리(Gregorio)16세의 허가를 얻어 조선교구가 설치되었다. 이후 모오방(Maubant)·앙베르(Imbert)·샤스탕Chastan) 등 프랑스 신부들이 계속 입국하고 신자수도 9,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정은 풍양조씨의 집권으로 벽파(僻派)가 득세하면서 천주교 탄압은 계속되었다(1839). 이때 모오방·앙베르·샤스탕과 청나라 신부 유방제(劉方濟), 그리고 신자인 정하상·조신철(趙信喆) 등 80여 명이 학살당하였다(기해사옥). 조정에서는 천주교도들을 근본적으로 색출기 위해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발표하는 등 철저하게 대처하였으나 천주교도들의 활동은 비밀리에 계속 확대되었다. 1845년에는 김대건(金大建:

Andrew)이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어 프랑스 신부 페레올(Ferreol) · 다버뤼(Daveluy)와 함께 귀국하여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하였다(병오박해).

계속되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천주교의 전도활동은 계속되었다. 이때에 프랑스 신부들이 쉽게 입국하여 전도하였고, 교회 서적이 목판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수도 점차 증가되어 고종 2년(1865)에는 23,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종 3년(1866)에는 다시 대원군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어 6년간에 프랑스 신부 9명과 남종삼(南鐘三) 외에 약 8,000명의 신자들이 순교하였다(병인박해).

천주교는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도활동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1886년의 한불조약(韓佛條約)에 따라 신교(信敎)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1898), 성분도 수녀회(1908)가 한국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한 결과, 1910년에는 성직자 61명(외국인 신부 46명, 한국인 신부15명), 수녀 59명, 성당 69개소, 신자수 73,517명에 이르는 규모로 교세가 신장되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천주교는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으로 수난을 당하였으나, 조선교구가 서울 · 대구의 두 교구로 분리되었고(1911년), 전국 주교회의가 개최되었으며(1931년), 미국인 신부가 강제 출국 당하고, 일본인 신부가 교구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1941년).

그러나 노기남(盧基南)신부가 서울 · 평양 · 춘천 교구의 임시교구장에 임명되더니(1942), 마침내 1943년 한국최초의 주교에 서품되어 교구장이 되었다. 이어 같은 해 홍용오(洪龍浩)신부가 평양교구 주교로 서품되었다. 이같이 식민지 통치기간에도 한국천주교는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여 해방 당시는 성직자 240명, 수사 56명, 수녀 380여 명, 신도수 183,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1962년에는 노기남 주교가 한국 최초로 대주교로 승품되고, 1969년에는 김수환 대주교가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승품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요한 바오르 2세(Joannes Paulus Ⅱ)가 103위 시성(諡聖)을 확정하였고, 1984년에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여 천주교 전파 200주년 행사를 주관하고 103위 시성식을 집례하였다.

2. 동두천의 천주교

동두천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성본당 관할 신암리공소가 1901년에 설치되었고, 신암리가 본래 산골마을로 궁벽한 곳이기 때문에 조선 말 천주교신


천주교 동두천교회

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미 1901년 이전에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1개의 성당과 동두천 본당 관할 공소 1개가 있으며, 약 500명의 신자가 있다.

서울교구 소속 성당으로 1956년 동두천 공소를 시작하여 1959년에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1956년 동두천 공소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이 지역 교우들이 멀리 신암리 공소(당시 개성본당 관할)에 가서 미사를 보는 형편이었다.

신암리공소는 1925년 일시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나, 재정적 궁핍으로 다시 행주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고(1931년), 그 이후 덕정리본당 관할(1935년), 의정부본당 관할(1946년)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역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1956년 동두천공소가 설치되어 교우들의 절대적인 환호를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의정부본당 신부가 1년에 2차(봄·가을) 동두천공소를 방문하여 성사를 집전하였는데 거리가 멀고, 교통상의 문제로 이 지역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때문에 동두천 교우들은 미 7사단파견 군종신부에게 주로 신앙생활을 의탁하고, 주일 미사에도 군인성당에 참례하는 형편이었다(당시 신자 20~30명 정도).

항상 성당 건립을 갈구하던 이지역 신자들은 때마침 지금까지 공소로 사용하던 이태구 형제의 집이 낡고 비가 새는 것을 알고 의정부 본당의 이계광 신부와 협의한 후 군종 신부의 지원금, 이창화(요한) 형제의 희사금을 합하여 생연리 613번지(현 성당 자리) 504평을 매입하고(1958) 성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1958년 가을에 성당 기공식을 하였고 1959년에는 동두천 공소가 의정부 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으로 승격되어 성당 건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60년에 이용선(베드로)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여 1961년 9월 30일 성당과 사제관을 완공한 후 10월 28일에는 노기남 대주교를 모시고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동두천 본당은 1980년에는 25사단 비룡성당, 1983년에는 28사단 필승성당 건축에 정성껏 지원하는 등 남을 돕는 성당으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무렵 새로운 성전 신축 움직임도 일어났다(1983). '한세대 한평 짓기운동', '성모님께 청원기도', '봉헌함 운동', '김대건 신부 소유해 가정 순회 기도' 등을 추진하면서 성전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미 2사단의 도움과 염수환 신부의 동창 신부들의 협조로 주위에 있는 가옥을 매입하였다(가옥 3채, 대지면적 221평).

마침내 1987년 8월 성전 기공식을 갖게 되었는데, 다시 재원 문제로 성전 건축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때 이철호 신부의 모금활동과 바자회 등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1988년 9월 13일 1차로 사제관과 수녀원을 완공하였다. 계속하여 대성당과 부속건물 공사를 계약한 후 1989년 5월 28일 완공하였다. 이리하여 현재의 성전은 대지 1081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성당과 사제관 · 수녀원 · 유치원 · 기타 부속 건물을 포함하여 건평 총 746.098평의 새로운 건물이 완성된 것이다.

현재 동두천 천주교회는 부속유치원,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동두천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5대 구본영(바오로) 신부가 1992년 부임하여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주교회의 현황과 역대 주임신부는 〈표 12〉와 〈표 13〉과 같다.

〈표 12〉 천주교 현황

교 파	사 찰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서울교구 (성당)	천주교 동두천교회	구본영 (바오로)	1958.11.4	생연3동 613	500 (3)	64-4300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표 13〉 역대 주임신부

역대	성 명	재 임 기 간	전 임 지	현 임 지
1	이용선(베드로)	1960. 3 ~1964. 8	혜화동	보좌 선 종
2	김희선(요 셉)	1964. 8 ~1965. 7.20	동성중 · 고등학교 교사	당사동본당
3	백일성(도미니코)	1965. 7.20~1966.12.14	동성중 · 고등학교 교사	선 종
4	김승훈(미티아)	1966.12.14~1967.10.15	아현동 보좌	왕십리본당
5	이창숙(그레고리오)	1967.10.15~1968.10.12	소신학교 교사	선 종
6	한희동(그레고리오)	1968.10.12~1970. 1.16	가평본당주임	길음동 본당
7	안상인(요셉)	1970. 1.16~1973. 5.18	대방동 보좌	연희동 본당

역대	성 명	재 임 기 간	전 임 지	현 임 지
8	한정관(바오로)	1973. 5.18~1976. 6.10	중림동 보좌	카톨릭대학교수
9	임덕일(아마뚜스)	1976. 6.10~1979.12.31	시흥본당주임	청담동 본당
10	정무웅(임마누엘)	1979.12.31~1982. 9. 9	아현동 보좌	카톨릭대학교수
11	염수완(야고보)	1982. 9. 9~1985. 8.30	군 종	오류동 본당
12	이재룡(시 몬)	1985. 8.30~1986. 3. 6	잠실본당 보좌	로마 유학
13	이철호(암브로시오)	1986. 3. 6~1991. 2.13	대치동 보좌	
14	임병헌(바오로)	1991. 2.22~1992. 2.13	카톨릭대학교수	
15	구본영(바오로)	1992. 2.13~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제3절 개신교

1. 개 관



동두천 성결교회

한국에서 개신교가 정식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고종 19년(1882)에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이전에도 서양인 신자나 선교사들이 왕래하면서 종교적 영향을 미쳤다. 인조 6년(1628)에 네델란드 박연(朴淵; Jan Janes Weltevree) 일행 3명이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제주도에 기착하였고, 효종 4년(1653)에도 네델란드인 하멜(Hamel)일행 36명이 제주도 근해에 표류한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개신교 전래의 기원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이들은 선교의 뚜렷한 족적(足跡)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는 순조 32년(1832)에 입국한 독일 선교사 규츨라프(Karl A · F Gutlaff)였다. 그는 1832년 장산곶과 군산만에 와서 약 1개월 동안 섬사람들에게 한문 성서와 교리서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다가 돌아간 적이 있다. 또한 고종 2년(1865)에는 영국 출신 선교사 토마스(R · Jthomas)가 대동강 연안과 백경도를 순회하면서 한문 성서와 전도문서를 전하다가 체포되어 고종 3년(1866)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였다.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선교가 정식으로 인정된 1882년을 전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전도에 힘썼다. 이때 입국하여 활동한 대표적인 선교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미션(Mission)선교사 로스(John Ross) · 맥클린티르(John MacIntyre)목사, 미국계 선교사인 맥클레이(Robert Maclay)목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 G Underwood)목사,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H · G Appenzeller)목사 등이다.

로스 목사와 맥클린티르 목사는 이미 1876년에 이응찬 · 백홍준 · 이성하 · 김진기 등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들은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들 4명은 1874년부터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1878년에는 서상륜 등과 함께 만주 우장에서 선교사들과 공동으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882년 봉천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행하고 계속하여 1887년에는 ≪예수성교전서≫를 간행하였다.

맥클레이 목사는 일본에 주재하다가 1884년 서울에 파견되어 선교 개설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미 박영효 일행을 따라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은 야스가와 (安川亭)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낙스(George William Know) 목사의 인도로 동경 노월정(露月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1883년). 이어 한국 선교를 위하여 미국 교회에 선교사 파견 요청서를 보냈다. 이때 한국의 정치 실력자 민영익(閔泳翊)을 만난 후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느낀 구처(Johnh Goucer)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맥클레이를 서울에 파견하게 되었다. 맥클레이는 서울에 약 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김옥균(金玉均)의 주선으로 황제를 알현하고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허락받은 후 돌아갔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85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언더우드는 서울에 예수교학당(儆信學校 전신)을 창설하였으며 새문안과 연못골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게일(J · S Gale) · 클락크(C · A Clark) 등도 함께 활동하였으며, 1890년까지는 서울지역으로 선교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이후 교세는 점차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아펜셀러는 서울에 배재학당(培材學校 전신)을 창설하였다. 배재학당은 감리교 선교부의 공인을 얻어(1886년) 미션스쿨(Mission school)의 효시가 되었고, 다음해에는 고종의 사액간판이 하사되어 민족 전체의 학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스크랜톤(W · B Scranton) 선

교사 부처와 함께 선교활동을 펴 1887년 서울에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선교부가 설치된 이후 다른 교파들도 계속 입국하여 선교지구를 설치하고 전도에 힘썼다. 1889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선교부(경상도 남부지역), 1890년에는 영국 성공회 선교부(인천 · 서울지역)와 침례교 선교부(강원도지역),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전라도지역)와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함경도 지역), 1896년에는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경기도와 강원도지역), 1904년에는 안식교 선교부(평안도와 서울지역), 1907년에는 성결교 선교부(서울과 평안도 지역), 1908년에는 구세군 선교부(서울지역)가 각각 선교구역을 정하고 전도 · 교육 · 의료 · 자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에서 유례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다.

초기 기독교의 전도사업은 외국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도사들도 크게 활약하였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1888년 서상륜(경기도 담당), 정공빈과 최명오(해서지방 담당) 전도사를 선정하여 활동시켰다. 이들 4명은 한국 최초의 전도사가 되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민족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교회는 민족정신의 분출처로서 독립운동의 온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일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나, 일본 침략에 항거하는 강력한 단체로 발전하였다. 1910년 해서교육회사건, 1911년 신민회사건, 1914년 국민회사건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독립운동사에 최대 규모였던 3 · 1운동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제는 3 · 1운동 이후에도 기독교 탄압을 계속하여 교직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더니,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은 한국기독교회는 날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2. 동두천의 개신교

동두천지역에 분포된 개신교(기독교)는 장로교파 교회 36개를 비롯하여 총10개 교파 57교회가 있다. 시전역에 분포된 교파와 소속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장로교

(1) 장로교의 성립

장로교는 장로주의(Presbyterianism)에 따르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 교파이다. 칼빈(J · Calvin)이 주장한 것으로, 교황권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도(敎島) 경영을 장로들의 합의에 따라 하도록 조직하였다. 칼빈의 사상은 독일 · 네델란드 · 프랑스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르러 녹크스(G · W Knox)가 이를 체계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628년에 제1네델란드 개혁파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남북전쟁으로 남 · 북장로파로 분열되었다가 1958년에 양파가 합동을 이루었다. 영국은 청교도혁명의 독립파에 대립하는 종파인 동시에 정치에서도 한 당파를 이루었다.

장로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인 알렌(H · Allen)이 인천에 상륙하여 고종의 어의(御醫)로 활동한 때부터이다. 1년이 지나 언더우드 목사가 정식 입국하고,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 데이비스(Davis)가 내한하여 선교하였다. 한국에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에 의하여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고, 황해도 소래[松川]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1887년에 언더우드가 자택에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회는 현 새문안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1893년에는 남 · 북장로회선교회가 합하여 선교공의회를 조직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입국하여 원산에서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를 조직하고, 호주 선교부와 함께 참여하여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해에 마포삼열(馬布三悅: Samyel Austin Moffett) 목사가 그의 집에서 평양신학교를 개설하였다. 1907년에는 평양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독노회를 해체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한국교회 억압책으로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주기철 · 최봉석 등 50여 명의 목사들이 순교하였으며, 평양신학교가 강제 폐쇄되었다. 이때에 조선장로회는 해체되어 일본기독교 산하의 조선장로교단으로 흡수 · 개편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교단 재건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1949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5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고신파가 분리되고,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현 한국신학대학 전신)가 중심이 되어 한국기독교장로회를 구성하여 분리되었다. 또한 1959년에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통합총회가 구성되어 예수교장로회는 다시 양분되었고, 1972년에는 다시 대신파가 분열되었고, 합동파는 주류 · 비주류로 갈리었다. 이같이 장로교파는 여러 교단으로 분산되었으나, 현재 개신교 최대의 교파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2)장로교 교회 현황

현재 동두천시에는 36개 교회에 6,821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장로교 교회 현황

교 파	교 회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장로교	동령교회	이정광	1941. 4. 8	생연1동 160-4	120(1)	865-8007
〃	생명교회	장금철	1942.10.23	생연1동 495-1	200(2)	62-6956
〃	동부교회	구교상	1954. 3. 8	생연1동 463-2	100(1)	62-2964
〃	반석교회	함창기	1958. 1. 4	생연1동 473	200(2)	62-9103
〃	경일교회	김민희	1955. 6. 9	생연1동 455	50	865-3455
〃	사동교회	김달호	1957. 5.23	생연2동 786	100	62-2819
〃	중앙교회	남정쇠	1949. 3. 1	생연2동 686	200	63-2522
〃	초대교회	소주호	1952. 5. 7	생연2동 788-4	30(1)	64-4738
〃	시민교회	조일상	1961. 5. 7	생연2동 814-5	50	62-1616
〃	한마음교회	권봉구	1932.12.30	생연2동 812	10	64-3725
〃	충성교회	이광수	1950. 7.25	생연2동 666-1	16	62-6649
〃	동두천 제일교회	류백근	1920. 3.19	생연3동 557	200(1)	865-2905
〃	제일감리교회	권중길	1927. 1.28	생연3동 616	600(2)	865-2636
〃	목양교회	강보선	1952. 2. 9	보산동 448	10	62-8045
〃	창대교회	백 준	1949. 1.26	생연동 307	100	64-0983
〃	동은교회	한기평	1949. 9.17	생연동 307	100	865-3531
〃	동산교회	김춘택	1947. 3.19	생연동 400	700	865-5063
〃	신광교회	이건호	1949.12.12	생연동 362	1800(7)	64-3401
〃	안흥교회	강신경(김원용)	1954. 8.26	동두천동 506	250(1)	865-5370
〃	성광교회	옥지권	1920.10. 2	동두천동 214	150(1)	865-8005
〃	동두천장로교회	김주섭	1929. 8.12	동두천동 245	200(2)	865-2930
〃	소명장로교회	홍광표	1955.12.12	동두천동 282	40	63-9074
〃	창말교회	윤동석	1948. 7.11	동두천동 289	300(3)	865-3482
〃	소망교회	권순의	1956.11.14	상봉암동 128	110	865-6042
〃	제일소망교회	김인복	1945.10.19	상봉암동 142-7	120	867-5717
〃	상봉암교회	윤덕로	1938. 5.12	상봉암동 387	35	865-2216

교 파	교 회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	성암교회	박인영	1941. 3.10	하봉암동 314	200	865-2822
〃	광성교회	황호준	1949. 6. 6	광암동 486-2	350	867-8777
〃	탑동교회	최 준	1939.12.16	광암동 205-5	50	867-5877
〃	남산교회	신진구	1953.12.15	상패동 산10-1	100	865-4849
〃	서림교회	박상명	1944. 7.28	상패동 248-2	150	865-5588
〃	상패동교회	박종선	1949. 7.24	상패동 427-11	60	62-0134
〃	만민교회	김영두	1955.11.28	상패동 29-10	100	62-0554
〃	은성교회	신경섭	1959. 8.16	생연4동 547	270(2)	865-3504
〃	성지교회	박성호	1956. 4.18	생연4동 584	300(2)	865-6989
〃	송내교회	한점용	1941.11.15	송내동 580	120(3)	865-7084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의 신도수는 최저 10명에서 1700명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계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침례교

(1)침례교의 성립

침례교는 크리스트교의 한 교파로 침례의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다. 이 교파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99년 캐나다 선교사 펜윅(Femwick)이 내한하여 서울 · 황해도 · 원산 등지에서 선교하면서 부터이다. 1906년에는 강경에서 31개 교회로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고 만주 · 시베리아 등지까지 교세를 확장시켰으나, 1921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동아기독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해방 이후 194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가 되었으나,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 존 아버나티 부부가 내한하여 활동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1952년에 대한기독교연맹 총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5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 연맹총회가 이탈 · 독립하더니 마침내 1968년에는 침례교파가 합동하여 한국침례회를 조직하고 1976년에 이르러 기독교한국침례회가 되었다.

(2) 침례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6개의 교회와 750명의 신자가 등록되어 있다. 즉 신자수는 동성교회가 400명이고, 방주침례교회는 20명에 불과하는 편차가 심하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침례교 교회 현황

교 파	교 회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침례교	동성교회	최 덕 한	1932. 3.20	생연3동 611	400(2)	865-2523 64-2523
〃	동두천침례교회	김 영 호	1942.12.15	보산동 397-1	150	865-3077
〃	제일침례교회	김 낙 식	1938.12.22	보산동 410-9	30	865-8006
〃	평강교회	박 순 택	1936. 4.19	보산동 410-28	30	865-8006
〃	믿음교회	성 금 동	1952. 8. 6	지행동 292	120	62-8604
〃	방주침례교회	서 경 재	1948.11.13	상패동 66-3	20	62-5523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3) 감리교

(1) 감리교의 성립

감리교파는 1729년 영국에서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이다. 웨슬리는 옥스포드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성클럽(Holy Club)을 조직하여, 청년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메소디스트(Methodist: 格式主義)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들 조직원은 성경 · 신학 연구에 힘쓰고 빈민 · 병자 · 죄수를 찾아 전도에 열성을 다하였다.

원래 웨슬리는 영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독자적인 운동을 폈다. 이에 영국교회는 그의 설교를 금지하고, 미국에 파견할 선교사의 안수를 거절하자 그는 독자적으로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하면서 실제로 한 교파로 분리 · 형성하였다. 교리는 사도신경에 제시된 크리스트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으나, 감리교의 특색은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생활과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 감리교가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감리회 소속 맥클레이(Maclay) 박사가

내한하여 교육 · 의료 · 선교사업의 허락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된다. 1885년에는 아펜셀러(Appenzeller) 목사 부부와 스크랜톤(W · B,Scranton) 의사 부부가 내한하여 교육 · 의료 · 선교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887년에는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 중국 선교사 강부인이 내한하여 포교하더니, 마침내 1930년에는 남북감리교회가 통합하여 기독교 조선감리교회를 조직하고, 양주삼(梁柱三) 목사를 초대 총리사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탄압 속에 1944년에는 36개의 교회가 폐쇄되는 수난을 당하였으나, 1945년 광복 이후 다시 감리교회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재건파와 부흥파로 분열되더니, 1949년에는 양파의 합동총회가 개최되어 대한감리회를 조직하고 헌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때 김유순(金裕淳) 목사가 감독으로 선임되어 통합을 이루었다. 이후 1954년에는 호헌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동을 이루고(1959년), 1961년에는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를 창립하더니, 1962년에는 전덕성(全德成) 목사가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조직하였으나, 1974년에는 갱신총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 감독제가 폐지되었다(1978년).

미국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전도로 성립된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은 일찍이 통합을 모색하여 1930년에는 조선감리회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해방 이후 재건파와 부흥파와의 분리 · 통합, 초헌파의 분리 · 통합, 갱신총회의 분리 · 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 예수교대한감리회로 크게 구분된다.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믿는 복음주의의며 교육 · 의료 · 사회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2) 감리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교파 소속 교회가 4개이며, 신자수는 785명에 이른다. 즉 동두천감리교회는 500명인 반면에 복된 감리교회는 2명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감리교 교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감리교교회	복된감리	손승옥	1956. 8. 6	생연2동 789-13	2	865-3723
〃	동두천중앙교회	김종식	1960. 2.20	생연3동 620	15	63-2820
〃	동두천감리교회	김찬수	1947. 4.15	생연4동 825	500(3)	865-2210
〃	지행교회	윤용기	1950. 9.16	지행동 338	250	865-8008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4) 성결교

(1) 성결교의 성립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20년에 카우만(C.E.Cowman)과 길보룬(E.A.Kilbolune)이 동경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복음 전도관에서 4중복음(四重福音), 즉 중생(重生) · 성결(聖潔) · 신유(神癒) · 재림(再臨)을 교회의 중요한 명제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제를 도모하려는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교파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7년 김상준(金相濬)과 정빈(鄭彬) 두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이들은 일본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종로 감곡(監谷, 현 무교동)에 동양선교회 선교사 카우만과 길보룬의 도움으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다.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1910년에는 동양선교회총본부에서 파견한 영국인 토마스(John Thomas) 선교사가 활동하였고, 드디어 1911년에 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 전신)을 설립하게 되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은 1921년에 이르러 기독교중앙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1932년에는 조선성결교회 자치를 선언하고 장로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유지재단의 설립, 연회의 조직 등 교세 확장에 주력하던 중 일제의 탄압을 받아 많은 교역자와 신도가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루는 등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건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아 다시 수난을 겪는다. 1951년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동양선교회 주한선교부가 활동을 개시하고, 마침내 1957년 선교 5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에는 연합기관의 탈퇴문제로 일시 교단이 분리되어 현재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나뉘었다.

(2) 성결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4개의 교회에 1,075명의 신자가 등록되어 있다. 성결교회 600명, 중부교회 400명, 성심교회 50명, 나눔교회 25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17〉 성결교 교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결교	중부교회	민 홍 식	1953. 9.21	생연2동 678-13	400(1)	62-7914
〃	성결교회	황 한 동	1953. 3.26	생연4동 590	600(1)	865-2908
〃	성심교회	이 신 현	1954. 1.12	안흥동 391	50	62-3686
〃	나눔교회	김 미 숙	1963.10.30	상패동 10	25	64-4357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5) 순복음교

(1) 순복음교의 성립

이 교파는 기독교 오순절파의 한 갈래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본래의 명칭이다. 오순절파는 1829년 독일 출신의 미국인 목사 빈브래너(J.Wnbrennre)가 창설하였다. 이 교파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28년 미국에서 럼시(Mary C.Rumsey) 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활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1932년에는 일본에서 박성산과 배부근이 입국하여 서빙고교회를 설립하고, 교세를 확장해 가던 중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외국선교사가 강제 추방되어 수난을 겪게 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오순절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곽봉조 · 윤성덕 · 김성환 · 김진윤 목사가 각각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던 중 6 · 25사변으로 다시 시련을 맞이하였다.

오순절운동이 직접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된 것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소속 채스넛(Arthur.B.Chesnut) 선교사가 내한하여 박성산 목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한 결과 1953년에 하나님의 성회를 창설하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나 1957년에 신학교 맹휴사건으로 교단이 분열되어 대한기독교 오순절교회파가 이탈하였다. 1959년에는 미국의 아세아 선교부장 케참목사가 내한하여 2만 달러를 희사하고, 선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때 중앙복음회관이 건립되고, 신학교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분열되었던 대한기독교 오순절교회도 다시 통합되었다(1972년).

1981년에는 다시 교단에 분규가 일기 시작하였다.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과 간부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문책하고 제명처분 운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순복음교회에서는 끝까지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복음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란 속에 하나님의 성회 본부는 동양선교부장 허스트 목사를 파견하여 교단의 화합을 꾀하고,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 하나님의 성회를 주도해 온 중심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하자 뜻있는 오순절파 교인들은 새로운 교파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무렵 1984년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짐머만(T.F.Zimmerman) 목사와 조용기 목사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제 하나님 교회에 가입한 교단으로 새로이 예수교 대한하나님성회를 창립하여 기독교 대한하나님성회와는 무관한 새 교파로 출발하였다. 이후 두 교파는 상호 갈등을 빚더니 기독교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하나님의 성회는 1971년 통합선언대회를 열고 다음해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열된 양 교단은 10여년 만에 다시 결속되었다.

(2) 순복음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2개 교회와 신자 430명이 등록되어 있다. 즉 순복음 교회는 400명, 순복음선교회 30명 등이다. 〈표 18〉은 교단 소속 교회의 신도수와 위치 등 현황이다.

〈표 18〉 순복음 교회 현황

교 파	교 회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순복음	순복음교회	이 기 준	1946. 7.26	생연4동 567	400(3)	865-4092
〃	순복음선교교회	이 모 세	1935.10. 1	보산동 423-9	30	62-9547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6) 구세군

(1) 구세군(Salvation Army)의 성립

1878년 영국의 부우드(Booth)에 의하여 창립된 민중전도(民衆傳道)와 사회사업에 열중하는 기독교 교파이다. 부우드는 처음에는 감리교파의 전도자였으나, 이제까지 전도방법은 서민계급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런던 동부의 빈민굴에 들어가 구제운동을 일으킨 것(1865년)이 구세군의 창립동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동 런던 복음전도회로 시작되었으나(1877

년), 조직과 제도를 군대식으로 개편하면서 구세군이라 불렀다(1878년). 교리는 중생(重生) · 성결(聖潔) · 봉사(奉仕)이며, 종교적 군대 조직으로서 사관(士官)과 군인의 제복 착용 · 군기 · 군악 등을 채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구세군 자선냄비

입군(入軍)의 조건은 엄정한 금주, 단체주의에 대한 충성에 있으며, 종교활동은 전도사업과 사회사업으로 양분되어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군영(軍營)과 지영(支營)이 전세계 93개국에 16,792개소에 이르며 단원은 약 46만 명이다. 또한 136종의 간행물이 매달 200만 부 이상 발간되고 있다. 사회사업으로는 고아원 · 양로원 · 병원 · 숙박소 · 부녀구제소 등 약 46종에 2,200여 개소를 운영하고 그 외에 801개의 학교, 285개의 육 · 해 · 공군에 사업소를 설치 · 운영한다.

만국본영(萬國本營)은 런던에 있고, 서기관부가 있어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미국에 각각 민국서기관을 파견하여 담당하고 있다. 각 군국에는 군국사령관이 엄격한 군령과 군률로 군국본영을 통활하고, 지방본영과 영문은 지방사관과 담임사관이 주관한다. 철저하게 군대식 계급 칭호를 두고, 보고 · 지시 · 검열이 엄격한 조직체이다.

구세군대한본영(救世軍大韓本營)은 1908년 영국의 사관인 호가아드(Hoggard)에 의해 전래되었다. 부우드 대장이 1907년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호가아드 정령(正領) 등 사관을 보내 평동에 본영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본영은 서울 정동에 있다.

본영의 부서는 사령관 총무서기관 밑에 비서부 · 재무부 · 자산부 · 사회사업부 · 가정단부 · 청년부 · 번역겸 편집부가 있다. 이외에 유년단 · 소년단 · 소녀단 · 의용단 · 청년단 · 거화단(炬火團)의 부속조직과 구세군 · 사관학교가 있다. 본영 밑에는 서울 · 충청 · 충서 · 전라 · 경상 · 경동으로 전국에 지방군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2) 구세군 영문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영문이 있고, 이곳에 약 30명의 신자가 등록되어 있다. 〈표 19〉는 구세군 소속 영문의 현황이다.

〈표 19〉 구세군 교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구세군	구세군동두천영문	문용식	1955. 4.16	상패동 51-13	30	62-447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7) 밀알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1) 밀알성도 예수그리스도교(Church of gesus christ of datterday saints)의 성립

이 교파는 1830년 죠셉 스미스가 미국 뉴요크주의 맨처스터에서 창립한 교단이다. 이 교파는 신 · 구성서 외에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만들었다는 ≪모르몬경≫을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르몬교라고도 부른다.

이 교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믿는 점 등은 정통적 크리스트교와 같으나, 스미스에 내린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수한 현현(顯現), ≪모르몬경≫,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것이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나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被造物)이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은 일반 크리스트교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모르몬교의 교인들은 12세가 지나면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는데, 전문적인 성직자는 없다. 스미스는 1843년 계시에 의해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여러 곳에서 중혼(重婚)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한 적도 있다. 1844년 스미스는 군중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때 상당수의 교인이 살해되거나 피신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중혼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금지시켰고, 교회에서도 이를 금하는 결의를 발표함으로 일단락되었다. 스미스의 후계자가 된 브리암 영은 1847년 본부를 유타주 솔틀이크로 옮겨 이후 30년간 교세(教勢)를 크게 떨쳤다.

한국에는 1951년 김호직(金浩稙)박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浸禮)를 받고 귀국하여 부산에서 미군들과 함께 예배를 본 후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의 신자수는 약 6만 5천명에 이르고 활동하는 선교사는 300여 명이다.

(2) 밀알성도 예수그리스도교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동두천지부가 설치되어있으며 약 70명의 신자가 등록되었다. 〈표 20〉은 동두천 지부의 자세한 현황이다.

〈표 20〉 밀알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밀알성도	동두천지부	정명제	1961.9.23	생연2동 678-3	70(4)	62-2344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8) 여호와의 증인

(1) 여호와의 증인의 성립

미국에서 기원한 크리스트교 종교단체이다. 미국 뉴욕시 브르클린에 있는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sylvania)를 국제 본부로 236만여 명의 증인들이 있다.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야훼), 즉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여호와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전파한다. 또한 성경전서가 야훼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고 이의 성취를 확신하고 가르친다. 침례를 행하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이 교단에서는 사람의 법과 성서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양심적으로 성서의 법을 우선 순위에 두며, 교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 보수를 받고 성직에 종사하는 일도 없다.

회중(會衆)단위로 집회장소인 왕국회관(王國會館)을 갖고 있으며, 매주 5시간의 정기 집회를 갖는다. 성경 자격을 가진 남자들이 장로 혹은 감독자로서 회중을 돌보고 있다. 교단에서는 ≪파수대: The Watchtower≫, ≪깨어라: Awake≫,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등을 발행하는데 모두 각국어로 발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1921년에 선교사 홀리스터가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1952년에 이르러 사단법인 워치타워 성서책임자협회가 설립됨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약 545개 회중에 약 3만명의 증인들이 있다.

(2)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왕국회관과 증인 220명이 등록되어 있다. 〈표 21〉은 왕국회관의 현황이다.

〈표 21〉 왕국회관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여호와의증인	왕국회관	임 승 태	1943. 2. 2	생연1동 468	220	62-5258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9) 통일교

(1) 통일교의 성립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世界基督敎統一神靈協會)가 본래의 명칭이다. 이 교파는 1954년 문선명(文鮮明)목사가 창시한 신흥 그리스도 교파이다. 통일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통일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활동을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다.

1957년에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原理講論)≫을 완성하여 체계를 수립한 후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등 선교활동에 힘쓴 결과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신자를 확보하였으며, 전 세계에 약 300만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교리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으며 신 ·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들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구주인 동시에 복귀된 선(善)의 조상으로 믿는다.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한국에 재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족사회가 될 것으로 믿는 가운데, 구원 섭리의 최종 목표는 지상과 천상에서악과 지옥을 없애고 선과 천국을 세우는 데 있음을 믿고 있다.

통일교단의 중요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선문대학과 선화예술중 · 고등학교, 언론활동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일보≫를 미국에서 ≪워싱톤타임지: Washington Times≫, ≪뉴욕트리뷴지: Newyork Trbune≫를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통일산업 · 일화(一和)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

(2) 통일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교회에 약 150명의 신자가 등록되어 있다. 〈표 22〉는 동두천 통일교의 자세한 현황이다.

〈표 22〉 통일교 교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통일교	통일교회	조용현	1963.12. 3	생연1동 464	150	865-454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10) 안식교

(1) 안식교의 성립

그리스도의 재림과 안식일 엄수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이다.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윌리암 밀러(W · Miller) 주도 하에 재림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때를 이 교파의 효시로 본다. 신도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명중 넷째 계명,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스도가 개체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며 이를 가장 큰 소망으로 믿고 있다.

이 교파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04년 하와이로 이민 간 손흥조(孫興祚)가 일본에서 진리를 전해 듣고 이를 임기반(林基盤)에게 전한 후, 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일본의 구니야히데(國谷秀) 목사와 일본 주재 선교사 피일드(Field)를 초청하여 전도대회를 연 데서 비롯된다. 1905년에는 스미스 목사가 첫번째 선교사로 내한하여 순안에서 교육사업과 출판사업을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근억(李根億), 정문국(鄭文國)이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전도에 힘써 교세가 확장되어, 1919년에 이르러 조선합회 제1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식민통치기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탄압을 받고, 투옥되었으며, 연합회장 최태현(崔泰鉉) 목사가 순교하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교회를 재건하고 합동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87년에는 공산권 선교를 위한 Awr아시아방송국을 설립하여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등 선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육대학을 비롯하여 27개의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사업, 위생병원 운영, 삼육식품공장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안식교 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교회에 신자 167명이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안식교 교회 현황

교 파	교 회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안식교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장 지 연		생연2동 667	167	65-5914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11) 기독교연합회

기독교엽합회는 동두천시에 있는 복음적인 신앙고백을 함께 하는 교회와 기독교기관이 연합하여 전도 · 봉사 · 신앙운동과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기 위한 기독교 단체이다.

매년 1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때 각 부서의 활동 보고, 임원 개선, 예 · 결산과 중요 안건을 토의 · 결정한다. 또한 임원 회의의 결의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총회와 회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임원회가 있다. 연합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1명), 부회장(2명), 서기 · 부서기(각 1명), 회계 · 부회계(각 1명)과 감사(2명)을 두고, 그 밑에 예배 · 전도 · 교육 · 음악 · 친교 · 봉사 · 사회 · 청년 · 학생 · 군선 · 홍보 · 환경 · 의료 등 1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분담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1970년 7월 20일 연합회가 구성된 이래 현재(95년 11월 29일)까지 27회 정기총회를 갖고 초대회장 곽철형 목사(동두천 감리교회)로부터 시작하여 27대 김주섭 목사(동두천 장로회)에 이르렀다. 총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매년 차이가 심하나 최소 20명에서 최고 56명에 이른다. 기독교 연합회는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기독교 협의체이다.

제4절 기타종교

1. 천도교

1) 천도교의 성립

동학(東學)은 철종 11년(1860)에 한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로 창도자는 최제우(崔濟愚)이다. 그는 경주 가정리에서 순조 24년(1824)에 태어났다. 그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는 홍경래(洪景來)난 이후의 사회 혼란 속에 민심이 불안한 때였다.

최제우는 불우한 청소년시절에 고향을 떠나 구도를 하면서 전국을 방황하다가 31세(1854)에 이상한 도인으로 부터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 책 한 권을 받았다. 이후 최제우는 전국을 순회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세상을 구제하려는 결심 하에 본래의 이름을 제선(濟宣)에서 제우(濟遇)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최제우는 대도의 이치를 밝히고 포덕할 대법을 세우기 위하여 주문을 짓고 〈용담가〉, 〈안심가〉, 〈검가〉 등의 가사를 지었다. 또한 〈포덕문〉, 〈몽중노소문답가〉, 〈도수사〉 등을 펴면서 포덕에 착수하였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도를 전하는데 그쳤으나, 그 수가 늘어나자 유생들의 비난과 관아의 눈총을 받게 되어, 제자 1명과 함께 집을 떠나 남원 은적암(隱寂庵)에 여장을 풀고, 도를 닦으며 〈수덕문〉, 〈권학가〉 등 6편의 글을 지었다.

1862년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최제우는 포덕에 열중하였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인심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제우는 이때 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포덕에 열중하여, 교단을 조직하고 수제자인 최경상(崔慶翔)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최제우는 체포되어(1863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명으로 1864년 참수형을 받았다.

최시형(崔時亨)은 경주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에 조실부모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35세에 동학에 입도한 후 정성으로 득공하고, 최제우의 명령에 따라 영해 · 영덕 · 예천 · 정도 · 울진 · 흥해 등 각지에서 포덕하였고, 37세에 종통을 승계받아 동학의 2세 교주가 되었다. 최제우가 순교한 후 최시형은 태백산맥 속 산골로 숨어 다니면서 동학 재건과 사태 수습에 헌신하면서 1880년 ≪동경대전(東經大典)≫을 강행하고 ≪용담유사(龍潭遺詞)≫를 펴냈다.

최시형은 교세가 점차 늘어나고 교단조직이 완비됨에 따라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의 누명을 씻어주는 동시에 동학의 포교자유를 얻으려는 교도의 숙원사항이었다. 신원운동은 1892년의 삼례집회와 그 다음해의 복합상소, 보은

집회로 연결되면서 교도들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외치며 반외세 운동(反外勢運動)을 전개하였다.

보은집회가 관아의 탄압으로 해산된 후 교도들은 1894년 동학 접주 전봉준(全捧準)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합세하여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탐학(貪虐)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켰다. 전봉준이 인솔한 동학군은 백산을 점령한 후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올려 전라도 일대를 휩쓸었다. 정부에서는 당황하여 홍계훈(洪啓熏)을 양호초토사로 삼아 황룡촌에 투입하였으나 역시 패퇴하였고, 동학도는 마침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청 · 일 양국 군대가 침입하자 부득이 동학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한 후 12개조의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집강소를 통한 개혁은 농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은 대부분 동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출병한 청 · 일 양국은 결국 충돌하여 청일전쟁이 반발하고, 일본은 이때를 이용하여 한국을 강점하려고 하였다. 동학군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시할 수 없어 재봉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전봉준은 순창에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당하였다.

2세 교주 최시형은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참패한 후 영동 · 청주 등지로 피신하다가 1897년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된 후 처형되었다(1898년).

손병희는 청주 출생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는 부패한 세상에 실망하여 낭인생활을 하다가 22세에 동학에 입도한다. 이후 수도에만 전념하면서 초인적 용기로 수련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3대 교주가 되었다. 그러나 교도 이용구가 동학도를 이끌고 일진회와 연합하여 반민족적 친일행위를 자행함으로 그를 축출하고 실추된 동학의 인상을 씻고자 천도교(天道教)라 개칭하였다.

3 · 1운동 후 천도교는 애국계몽운동에 주력하였고, 천도교 청년당(청우당)을 결성하고, 종합잡지 ≪개벽(開闢)≫을 위시하여 ≪어린이≫, ≪학생≫, ≪신여성≫, ≪농민≫과 기타 여러 계통의 월간잡지를 간행하는 한편 어린이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천도교는 이같이 사회개혁운동, 민족운동,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천도교의 기본교리는 교주 최제우의 저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세주의적이다.... 내세의 가치를 부인하고, 현세에 비중을 두면서 새로운 도로 개벽할 것을 강조한다.

② 한울님의 신앙이다....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서 한울님은 유일한 분, 인격적인 초월자,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분이며 사회 구제의 길은 한울님을 잘 모시고 그 도리와 참뜻을 지키고 따르는데 있다.

③ 인내천(人乃天)과 평등관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울님을 그 몸에 모셨으니 한울님과 같이 존엄하다고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역설하였다.

④ 선악관(善惡觀).... 사람의 행위에는 귀천이 있다. 귀한 행동은 한울님의 참뜻에 맞는 것이요 이것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성운(盛運)의 입장이 되고, 악행은 한울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쇠운(衰運) 이 된다. 따라서 수양체계는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데 있다.

천도교는 종교운동일 뿐아니라 사회개혁운동 · 계몽운동 · 애국민족운동으로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동두천의 천도교

동두천지역에 천도교가 전파된 것은 동학혁명 이후로 추측된다. 당시 동학은 국금의 대상이었기에 전도활동도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수는 없다.

1911년에 경성교구에서 전도사가 파견되어 윤종원 · 윤자원 · 한명규 등과 합동으로 묵은전도실(默隱傳道室)과 하도전도실(下道傳道室)을 양주지역에 설치하였다. 1913년에는 유경(柳景)이 천도교 양주전교실을 운영하였음을 볼 때, 1910년대에 천도교가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1개의 교당에 약 5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천도교 현황

교 파	교 회 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천도교	동두천천도교	조 형 주		생연3동 489	50	65-2375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2. 대순진리회

1) 대순진리회의 성립



대순진리회 동두천 제생병원

증산교(甑山教) 계통의 민족종단 중의 하나이다. 태극도(太極道)에서 분리되었으며, 현재 증산교 계통의 여러 교단 중에서 교세가 가장 크고 활동도 왕성하다.

1958년 태극도의 도주(道主)이었던 조철제(趙哲濟)가 사망한 후 2대 도주로 선출된 박한경(朴漢慶)과 조철제의 아들인 조영래(趙永來)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때 박한경은 1969년 서울 성동구 중곡동으로 옮겨 교단 명칭을 대순진리회로 바꾸었다. 대순이라함은 강일순(姜一淳)이 진멸에 빠진 천하창생을 살리기 위하여 구천에서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전경(典經)의 구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막힘이 없음, 무극, 원(圓)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진리는 강일순이 상계를 개벽하여 지상선경을 열게 됨으로써 천하창생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에 옮겨온 후에는 적극적으로 포교와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교세가 크게 확장되고, 1971년에는 종단의 도장도 완공되었다. 1987년에는 여주에 수도장도 건립하였다.

조직의 운영은 도헌(道憲)에 따르며, 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와 집행기관인 종무원이 중심기관이다. 종의회는 전국의 선감(宣監) · 교감(敎監) · 포정(布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무원에는 기획 · 총무 · 교무 · 수도 · 교수부로 나뉘어 각각 직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설기구로 대순출판부, 대진학원이 있다.

중심교리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이며,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造化) · 해원상생(解寃相生) · 도통진경(道通進境)이고, 성(誠) · 경(敬) · 신(信)을 수도 요체로 안심(安心) · 안신(安身)의 두 율령을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지상천국 건설을 신앙의 목적으로 한다. 경전은 강일순의 언행과 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7편 17장 839절로 되어 있는데, 신도들의 생활 근본 지침이다.

2) 동두천의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가 이 지역에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현재의 포덕소(대표: 양옥자)가 처음으로 입소식을 갖었다. 이후 교세가 점차 번성하고, 1989년에는 포덕소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동두천포덕소는 강동 14방면 포덕소로 약 2,000가구에 신도 2,15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내에 종단에서 대규모 종합병원을 신축하고, 이웃 포천군에 대진대학이 설립되어 교세가 확대되고 있다.

동두천지역의 대순진리회 현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대순진리회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대순지리회	동두천포덕소	양옥자	1947. 7.20	생연2동 819	2,150	62-9540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3. 원불교

1) 원불교의 성립

1916년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小太山大宗師 朴重彬)에 의하여 창설된 교단이다. 교조 박중빈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인생 문제로 고뇌하다가 26세(1916)에 오랜 입정(入定)으로부터 출정(出定)하면서 대각(大覺)을 성취하였다.

대각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민중에게 교화시키는 한편 과거 성인들의 경전을 열람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금강경(金剛經)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일치함을 보고 불교와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세계교화와 생명구제를 위하여는 과거 불교만으로는 될 수 없어 새로운 불교를 구상하게 된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펴기 위하여 포교 여행을 떠나는 대신 저축조합설립, 공동작업과 숯장

사, 방언공사(영광군 백수면 해면 방언), 엿장사, 농축장, 양잠, 한약업 등 생산경영에 힘쓰는 한편 경전편찬, 신앙과 훈련 등 생활과 종교훈련을 병행하였다. 그는 신앙과 종교를 실생활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당시 고질적인 부조리한 예(禮)의 간소화, 미신타파 등을 실천하여 풍속을 바꾸어 근대화시키는데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소성대(以小成大), 일심합력(一心合力), 근검저축(勤儉貯蓄),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창립정신으로 강조하였다.

교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우주의 근본 진리요 마음의 본질로 보아 이를 신앙과 수행의 주체로 하였다. 따라서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 · 자력과 타력 · 동(動)과 정(靜) · 종교와 현실 · 도덕문명과 과학문명 · 정신과 물질이 서로 만나고 나누어진 모든 법을 통합하는 중심원리로 생각한다. 이같은 일원의 진리에 입각하여 사은(四恩) · 천지 · 동포 · 법률 · 부모를 직접적인 죄복의 근원으로 숭상하며, 현실을 죄와 벌에서 구제하고 서로 보은하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의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

지상낙원 건설에는 수양 · 연구 · 실천의 삼학(三學)을 강조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끊임없이 이를 구도(求道)하는 무시선(無時禪)의 공부에 힘쓰도록 한다. 이밖에 현실 개조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子女教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의 사요(四要)가 제창된다. 이를 실천하면 인권평등 · 지식평등 · 교육평등 · 생활평등의 원만한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교단에서는 원광대학교와 남녀중 · 고등학교, 농원, 정미소, 한약업, 출판사를 운영하며, 수양원 · 고아원 등 사회사업활동에도 힘쓴다. 경전은 교조의 친저인 ≪정전≫과 언행록인 ≪대종경≫을 주경(主經)으로 한다.

2) 동두천의 원불교

동두천지역에 원불교가 정식으로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교당이 의정부 교당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교당 설립 이전에도 이미 몇명의 신도들이 의정부 교당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수는 없다. 다만 의정부교당이 1963년에 발기협회를 갖고 1964년에 봉불식을 거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60부터 1986년 사이에 이미 신도들이 산발적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동두천지역에는 1개의 교당과 약 5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다음 〈표 26〉은 원불교 교당에 관한 현황이다.

〈표 26〉 원불교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원불교	동두천교당	이 근 행	1952.10.17	생연1동 466	50	62-409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4. 증산교

1) 증산교의 성립

증산교(甑山教)는 1902년 전라북도에서 강일순(姜一淳)에 의하여 창시된 신흥종교이다. 창시자의 호를 따서 증산교라 하나, 일제시대에는 흠치교(歆侈教)라고도 하였다. 이 종교는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갖고 강일순이 중심이 되어 그들을 결집하여 종교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의 창시자 강일순은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성종교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신명(神明)에 의한 도술(道術)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유교 · 불교 · 선교의 교리와 음양 · 풍수 · 유교 · 불교 · 선교의 교리와 음양 · 풍수 · 복서 · 의술 등을 연구하는 한편 신명을 부리며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도통공부를 하였다. 그후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도하여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닫고, 욕심 · 음란 · 성냄 ·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되었다(1901년). 강일순이 도를 깨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그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계대권(三界大權)을 갖고 조화로써 천리를 개벽하고, 선경(仙境)을 열어 고통 속의 중생(衆生)을 건지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왔다고 설교하였다.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강일순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교주 강일순은 1902년부터 1909까지 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종교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 체계를 정립하지 않고 포정소(布政所) · 대학교(大學校) · 복록소(福錄所) · 수명소(壽命所) 등의 명칭만을 사용할 뿐이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종교의식의 중심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고 주변 사람을 상대로 교리와 사상을 가르칠 뿐이었다.

강일순이 종교활동을 한 지 5년 뒤인 1907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병을 모의한다는 혐의로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으나, 이때부터 그의 권능에

회의를 품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1909년 허망하게 죽고, 대부분 무리들은 실망한 채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열성신자들은 그의 재림을 굳게 믿었다. 2년 뒤에 강일순의 미망인 고부인이 갑자기 졸도한 후 깨어나서 강일순의 성령(聖靈)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하며 강일순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강일순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은 고부인 중심으로 집결하여 다시 집단을 형성한 후, 1914년에는 강일순을 교조로, 고부인을 교주로 하고, 교명을 선도교(仙道敎: 일명 太乙敎)라 하면서 교세를 확대시켰다. 교세가 점차 번성함에 따라 고부인과 그의 이종사촌동생(강일순의 추종자였다)인 차경석(車京石)이 대립하여 고부인은 태을교(太乙敎), 차경석은 보화교(普化敎; 1년 뒤에 普天敎로 개명)를 세워 분립하는 등 각파가 독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차경석은 교세의 번창함을 믿고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하여 강일순의 가르침이나 권위를 무시하자 보천교의 간부들이 회의를 품고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세웠다. 이같이 분파가 발생하여 증산교 계통은 100여 개로 분파되었다. 1938년에 이르러 증산교는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다시 분리·해산되더니 이후 각 교파들이 교단을 체계화하고, 민중종교로서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교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후천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은 어느 한 종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종교의 장점을 모아 통합하는데 있다는 강일순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유교·불교·기독교와 동학의 교리를 새롭게 체계화시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찬양하고, 성(誠)·경(敬)·신(信)을 수양방법으로 삼는다. 증산교 각 교파의 공통된 교리는 이들이 경전으로 사용하는 ≪대순전경(大巡典經)≫과 증산종단 친목회에서 간행한 ≪증산종단개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개벽(開闢)의 세계관, 신인동형적신관(神人同形的神觀)과 의인간적다시관(擬人間的多神觀),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며, 핵심은 인존사상(人尊思想)·해원사상(解寃思想)·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2) 동두천의 증산교

증산교 동두천 도장이 설치된 것은 1989년인데,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지역에는 몇몇 신도들이 증산도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증산도가 전래된 시기는 1980년 초로 볼 수 있다.

현재 동두천지역에는 1개의 교당과 이곳에 약 10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증산교 동두

천도장은 박대흥이고, 소재지는 생연3동 598번지이다. 교당의 자세한 현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증산교 현황

교 파	교회명	대 표		소 재 지	신도수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증산교	동두천도장	박대흥		생연3동 598	100	64-4286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제5절 동두천의 종교 현황

1. 종교별 현황

종교기관과 신도수를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기관은 기독교 57개소, 불교 33개소, 천주교 1개소, 천도교 · 증산교 · 대순진리회 · 원불교가 각각 1개소이다. 신도수는 10,498명, 4,315명, 500명, 기타 2,350명 등이다. 신도수는 기독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표 28〉 종교 현황

구분 / 종교명	교회(사찰포덕소,교당)수	신자(도)수	비 고
기 독 교	57	10,498	
불 교	33	4,315	
천 주 교	1	500	
기타종교	4	2,350	천도교,증산교,대순진리회,원불교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2. 동별 종교 현황

동별 종교기관과 신도수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즉 상패동 17개소, 내행동 15개소 등인 반면에 생연4동과 소요동은 5개소, 광암동은 4개소로 가장 적다. 한편 신도수는 내행동이 3,8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연2동으로 3,146명이다. 반면 소요동은 765명, 보산동은 400명으로 가장 적다. 생연3동은 종교기관수는 적지만 모든 종교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29〉 동별 종교현황

구분 / 동별	합 계			불 교			기 독 교			천 주 교			기 타 종 교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교당수	교직지수	신도수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합 계	95	99(3)	17,496	33	37	4,315	57	57	10,331	1	1(3)	500	4	4	2,350
생연1동	12	12	1,980	4	4	890	7	7	1,040				1	1	50
생연2동	12	12	3,146	1	1	100	10	10	896				1	1	2,150
생연3동	7	7	1,865	-	-	-	4	4	1,215	1	1	500	2	2	150
생연4동	5	5	2,070	-	-	-	5	5	2,070						
보산동	6	7	400	1	2	150	5	5	250						
내행동	15	16	3,810	8	8	2,290	7	8	2,520						
동안동	12	13	1,305	6	6	315	6	7	990						
소요동	5	8	765	1	4	300	4	4	465						
광암동	4	4	850	2	2	450	2	2	400						
상패동	17	15	1,305	10	10	820	7	5	485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3. 기독교 교파별 현황

기독교의 교파별 교회와 신자수는 다음의 〈표 30〉과 같다. 즉 장로교회는 36개로 전체 57개 중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에 구세군 · 통일교 · 안식교 등은 각각 1개소에 불과한다.

신도수 역시 교파별 교회수와 마찬가지로 장로교가 6821명으로 전체 10,498명 중 68%를 차지한다. 구세군과 밀알성도 예수크리스트교는 30명과 70명으로 아직까지 교세가 미약한 실

정이다.

〈표 30〉 기독교 교파별 교회 현황

교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밀알성도예수크리스트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식교	총계
교회수	36	6	4	4	2	1	1	1	1	1	57
(신자수)	(6,821)	(750)	(785)	(1,075)	(430)	(30)	(70)	(220)	(150)	(167)	(10,498)

출전:동두천시, ≪통계연보≫.

4. 불교 종단별 현황

불교의 종단별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에 나타난 바처럼, 조계종 11개, 태고종 6개, 일붕선교종 5개이다. 신도수는 1,550명, 620명, 1,000명이고, 불교계의 모든 종단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화종 · 법륜종 · 총화종 · 일승종 · 법상종 · 본원종 등도 동두천의 곳곳에 사찰을 운영하다.

〈표31〉 불교 종단별 현황

종 단	조계종	태고종	일붕선교종	용화종	법륜종	총화종	일승종	법상종	본원종	총계
사찰수	11	6	5	3	3	2	1	1	1	33
신도수	1,550	620	1,000	160	265	590	30	70	30	4,315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5. 기타종교 현황

기타 종교 현황은 〈표 32〉와 같다. 천도교 · 증산교 · 대순진리회 · 원불교 등이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법상종 70명, 일승종 · 본원종은 각각 30명에 불과하다.

〈표 32〉 기타종교 현황

종 교 명	천 도 교	증 산 교	대수진리회	원 불 교	총 계
교당수	1	1	1	1	4
신자수	50	100	2,150	50	2,350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6. 백백교와 동두천

1) 백백교의 살인만행

백백교(百百敎)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37년까지 한국사회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유사종교의 형태를 가장한 비밀결사체이다. 그들은 우매한 농민들을 황당무계한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헌성금(獻誠金)이란 명목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처녀들을 시녀현상이란 명목으로 유혹하여 정조를 유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폭로될 것을 꺼려한 교주는 교도들의 불평 · 불만을 일소시키고, 교단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불평하는 교도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한 후, 그들의 지하실에 48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깊은 산 속에 암매장하는 등 잔인한 살인마의 행각을 벌렸다.

1937년 2월 사교박멸에 전력을 기울이던 경찰은 우연한 기회에 백백교의 살인마 행각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동대문서와 경기도 경찰부, 경성지방법원검사부의 협조 속에 그해 12월 말까지 무려 10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였다. 이때의 수사 내역을 보면 총수사비 3만여 원, 수사경찰관 약 5,000명, 판명된 살해자 346명, 암매장 발굴시체 308구, 갈취 재산액 10여만 원 등이다. 이로써 백백교의 만행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서는 50여 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국에서는 그 중 30명을 구속 · 송치하였다. 그들의 죄명은 살인 · 신체유기 · 살인강도 · 외설 · 사기공갈 · 약취유괴 · 공문서 위조 등 14개 죄명이나 된다.

전국 각지에 암매장된 교도들의 시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현 소요동)에서도 약 6구의 암매장 시체가 발굴되어(1937년 11월 12일) 백백교의 잔인한 죄상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들은 경원선철도로 이동하여 암매장한 것이며 이 지역 신도들은 아니다.

2) 백도교의 성립

백도교(百道敎)는 전정예(全庭芮)에 의하여 1899년 함경남도 문천군 운림면에서 창립되었다. 전정예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 동학에 입도한 후 금강산에서 3년간 기도하던 중 천지신령의 계시를 받아 백도교를 창도하고 초대 교주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문천에 가서 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입교하는 신자가 점차 늘어났다. 1912년에는 강원도 김화군 오성산에 본거지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포교한 까닭에 신자수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 교는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포교를 하였고, 교단도 역시 비밀결사체의 형태를 취하였다. 교리는 주문을 외우며 하늘과 땅에 예배하면 무병장수하고 신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주는 불로장수하고 지상신선이 된다고 가르치면서, 결백하고 신통한 교주의 마음으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한 후 지상에 극락을 세운다고 선전·포교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전정예는 용주(龍珠)·용해(龍海)·용석(龍石) 삼형제를 두었는데, 1919년 그가 죽자 포교의 방법을 놓고 삼형제가 대립하였다. 즉 종전과 같이 비밀 포교의 방법, 공공연한 포교, 병합절충형 포교 방법 등의 대립이었다. 이 무렵에 평안남도 강서의 신자 정근일(鄭根一)은 그의 아버지 정성희(鄭聖禧)가 백도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것에 격분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

이러한 교단 내의 혼란 속에 많은 신도들이 이탈하고, 자체 내의 분열이 싹트게 된다. 이희룡(李禧龍)은 평소부터 교단의 간부인 우광현(禹光鉉)의 횡포에 분개해 오다가 교단이 혼란한 틈을 타 교주의 장남 용주를 내세워, 백도교에서 이탈하여 인천도(人天道)를 세웠다(1923년). 우광현은 교주의 차남 용해와 함께 교명을 백백교라 개칭하였고, 이듬해 우종일(禹宗一)이 백백교에서 떨어져나가 천명도(天命道)를 세웠다. 이로써 백도교는 인천도, 백백교, 천명도로 3분되었다.

3) 백백교의 정체

백도교의 간부 우광현은 교주 전정예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고 차남 전용해와 의논한 후 암매장하는 등 교단을 독단하다가 백도교가 분열되는 틈에 백백교라 개칭하였다. 이때 우광현은 전정예를 교조로 그리고 자신은 교주로 하면서 교단 업무를 전용해에게 맡겼다. 우광현은 1924년 간부들의 사기사건과 자체 내의 불화로 교주직을 사임하고, 김공연(金公然)이 교주가 되었으나, 1927년에 이르러 차병간(車秉幹)이 교주가 되면서 교세가 약화되었는데, 이때 본부를 서울

로 옮겼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단업무는 전용해가 독점하였다. 인천도는 교세가 확장되더니, 1930년 전정예의 첩 살해사건이 폭로되면서 많은 신도들이 이탈하고 교세가 점차 침체되었다.

백도교의 교단 업무를 주관하는 전용해는 1935년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간부들을 시골에 파견하여 몽매한 농민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용해는 자신이 장래에 천자(天子)가 될 신비한 인물이며, 곧바로 백백교의 천하가 되며 교도들은 헌성금의 다과에 의하여 직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현혹하였다. 또한 몇 해 후면 세계대전이 발발하니 속히 재산을 청산하여 헌성금을 바쳐야 하고, 교주의 신통한 힘으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혹은 백백교를 믿으면 불로장생한다고 꾀어 우매한 농민들을 현혹시켰다. 이에 속은 일부 몽매한 농민들은 재산을 바치고, 딸을 헌상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 전용해는 궁전같은 집에서 20여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였다.

백백교 교주가 살해 · 암매장한 시체를 발굴하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백백교를 "끔직한 살인 백백교", "귀축도 백백교", "살인결사 백백교", "사이비 종교", "살인마 백백교"라 불렀다. 백백교도의 암매장처는 서울 · 연천 · 철원 · 평강 · 안변 · 동두천 · 사리원 · 봉산 · 보은 · 영동 · 양평 등지에서 확인되었다(≪동아일보≫ 1973년 6월 9일 부터 12월 24일 기사에서 발췌).

〈오 환 일〉

제3장 언론

제1절 신문

1. 동두천신문

≪동두천신문≫은 지역 최초로 동두천 지역 소식만 게재했던 신문이다. 1992년 11월 28일 '동두천을 사랑합시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월 3회 순간(旬刊)으로 5천 부를 발행하였다.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를 예상하고 발간한 지역 언론으로 동두천의 정치 · 행정 · 사회 · 문화 · 각종행사 등을 알리는 종합 정보지로서 7만 시민에게 향토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공감대를 조성하였다.

지역 언론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자원 봉사자로 참여 · 운영하는 지역신문으로 전국적으로 신선한 화제가 되어 ≪스포츠조선≫의 이색 코너에 ≪동두천신문≫과 기자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어 인근의 ≪의정부신문≫ · ≪양주신문≫ · ≪연천신문≫ 창간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동두천신문≫은 당시 정치를 게재할 수 없다는 언론법과 시의회의 선거법 고발로 발행인이 구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로는 동두천 소식만을 게재하는 독자적인 지역신문은 없어졌다.

현재에는 동두천 지역 소식을 알리는 언론으로는 동두천 · 양주 소식을 다루는 ≪동두천저널≫과 의정부 · 양주 · 동두천을 통합으로 발행되는 북부경기신문사의 ≪동두천신문≫이 있다.

2. 경기북부신문사

≪경기북부신문사≫는 1995년 7월 9일 북부경기신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지역을 통합하여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동두천신문≫ · ≪양주신문≫ · ≪의정부시민신문≫으로 제호(題號)만 다를 뿐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지역 소식을 통합적으로 게재한다. 발행처는 의정부로 신현섭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3. 동두천저널

≪동두천저널≫은 1996년 8월부터 양주 · 동두천 지역 소식을 함께 게재하는 주간신문이다. 다른 지역신문과는 달리 법인으로 정치 · 사회 등 기사 게재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신문이다. 발행처는 동두천이며 홍종배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4. 한북신문

≪한북신문≫은 1989년 9월 25일부터 경기북부지역을 취재권으로 발행된 유일한 광역(廣域) 순간 신문(旬刊新聞)이다. 1992년 5월 《애향인사보감》을 편찬 · 보급으로 지역인사간 화합과 민 · 관간의 행정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97년 3월 1일 ≪한북시보(漢北時報)≫에서 한북신문으로 개제(改題)하였다. 발행처는 의정부이며 홍건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5. 동두천 주재기자

동두천시에 주재하는 기자는 주로 지방 신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경기일보를 비롯하여 경기도민일보 · 경인일보 · 경인매일 · 기호일보 · 새한일보 · 수도권일보 · 인천일보 · 현대일보 · 동두천신문 · 동두천저널 · 한북신문 등이다. 주재기자는 동두천시에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동두천의 각 신문지국

신문지국은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데, 신문지국 현황은 〈표 2〉와 같다.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등 주요한 신문사는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동두천 주재기자 현황

주 재 기 자	성 명	주 소
경기일보	정 선 준(鄭善俊)	
경기도민일보	박 선 규(朴先圭)	
경인일보	이 상 헌(李相憲)	
경인매일	김 광 묵(金光默)	
기호일보	임 철 환(林喆煥)	
새한일보	진 양 현(陳良炫)	
수도권일보	김 태 훈(金台勳)	
인천일보	양 승 원(梁承元)	
현대일보	김 형 식(金亨植)	
동두천신문	김 동 철(金東喆)	
동두천저널	홍 영 수(洪英水)	
한북신문	이 석 동(李錫東)	

〈표 2〉 동두천의 신문지국 현황

명 칭	소 재 지	명 칭	소 재 지
경향신문	동두천시 생연1동 444	중앙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536-6
동아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561	한겨레신문	동두천시 생연동 578-13
문화일보	동두천시 생연3동 487-12	한국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0-2
서울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578	한국경향	동두천시 생연동 578
세계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730	경성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0-2
국민일보	동두천시 생연3동 647	경인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80-4
해일경향	동두천시 생연4동 561	경기도민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693-10
조선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578-13	경인해일	동두천시 생연동 611-96
기호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7-27	현대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0-2
새한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0-2	인천일보	동두천시 광암동 산103-10
수도권일보	동두천시 생연동 440-2		

제2절 출판

신문 · 방송과 함께 언론을 주도하는 출판은 역사적으로 종이의 발명 이래 큰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즉 종이 사용이 활성화되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목판인쇄술이 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기록 · 인쇄하므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 후대까지 기록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목판활자는 소량의 인쇄만이 가능한 실정이었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바로 금속활자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는 고려 고종 21년(1234)에 인쇄된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이나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이를 전할 뿐이다. 현존 최고본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일명 직지심경이라 함)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구테베르크보다 80년이나 앞선 세계 최고본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우리의 인쇄문화는 일찍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금속활자의 개발과 보급은 곧 출판문화의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조선건국 초기의 각종 역사서나 저서의 간행은 바로 당시 우리 출판문화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글 창제와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대두하면서 한글판의 서적인 언해본(諺解本)은 널리 보급되었다. 당시 ≪홍길동전(洪吉童傳)≫이나 ≪춘향전(春香傳)≫ 등 소설류는 대량으로 인쇄 · 판매되는 등 출판문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나아가 방대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사대사고(四大史庫)에 기록 · 보존하는 등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곧 인쇄 · 출판문화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우수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출판문화는 많은 변화와 더불어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우수한 우리 문화를 억압하는 방안으로 일련의 출판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이를 탄압하는데 악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우수한 출판문화는 점차 시대적인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후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낙후성 등은 출판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키는 요인이었다. 곧 수요 부족은 출판업 부실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컴퓨터가 각 분야에 이용되면서 출판문화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 즉 컴퓨터인쇄의 상용화(常用化)로 다양하고 빠르게 출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출판물은 이미 컴퓨터인쇄 단계를 넘어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씨디(CD)화되고 있다. 1995년 10월 현재 출판협회에 등록된 출판사가 발행하는 서적은 1000만 부 이상에 이를 정도

이다. 하지만 단 한 권의 서적을 출판하지 못한 출판사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부분 출판사는 영세한 사업규모와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출판사 난립으로 독창적인 기획보다는 모방이나 오락성이 농후한 저질 서적을 발간하는 등 건전한 출판문화를 위협하기도 한다. 출판계의 활성화 방안은 경영자들이 주체적이고 계도성(啓導性)을 갖고, 경영의 합리화 · 기술 현대화 · 프로그램의 건전화 등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출판 종사자들에게 가능한 통제를 적게 하고, 반면 출판인들도 전문인으로서 윤리와 책임의식을 인식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독자들도 현상을 객관으로 분석 · 판단하는 비판력을 배양할 때, 건전한 출판문화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동두천시의 출판문화는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대다수 출판업은 경영 규모나 자본면에서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인쇄소와 출판사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전문 경영인에 의한 출판업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동두천시가 이 지역의 출판문화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동두천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출판사와 인쇄소 등록 현황

구분 / 연별	등록된 출판사무	종 업 원 수			등록된 출판사무	종 업 원 무		
		계	남	여		계	남	여
1990	-	-	-	-	7	10	8	2
1991	1	3	3	-	8	11	9	2
1992	-	-	-	-	9	11	10	1
1993	-	-	-	-	8	10	9	1
1994	-	-	-	-	8	10	9	1
1995	2	4	4		8	11	10	1

출전: 동두천시, ≪통계연보≫

1981년 7월 1일 동두천시로 승격된 후, 시청에서 ≪동두천시통계연보≫를 1982년부터 매년 발간한다. 여기에는 시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동두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두천시통계연보≫는 전국 각 시 · 군에 배포하는 등 다른 지역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는 실정이다. ≪동두천시화보≫는 2,000부를 발행하여 동두천시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세계 속의 으뜸 동두천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동두천시의 지역여건 · 주택 · 도로교통 · 산업 · 교육 · 문화예술 · 향토유적 · 관광지 등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꿈과 희망의 도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를 5,000부 발간하여 21세기 장기발전계획 · 동두천시의 미래상 · 2001년 4대 개발권역 구상도 · 2001년 미래지표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동두천시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정보고≫와 ≪반상회보≫ 등을 발간하여 시정의 주요 사안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였다. 지역민들에게 시정을 적극 홍보하므로써 이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화합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등 책임행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단순한 시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소식지의 발행을 기대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동두천시의회는 ≪의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각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의정소식지≫는 300부 정도 발간하는데, 시의회의 활동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 결과 등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의회안내책≫과 ≪의정백서≫도 매년 500부 정도 발간하여 동두천시의회의 운영 상황을 홍보하고 있다.

동두천시문화원은 1985년부터 ≪소요의 맥≫을 매년 발간하여 동두천시 문화행사와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동두천시의 연혁은 물론이고 각지에 산재한 문화유적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를 전국적으로 배포하므로써 동두천시에 대한 다른 지방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한편 동두천시 문학동호인의 모임인 이담문학회가 문예지를 계간으로 발간하는데, ≪해동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회원은 현재 25명이며, 이들은 분과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분과는 정관에 7개로 구분하였으나, 시 · 수필 · 아동문학 등 3개에 불과할 정도를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나 활동은 왕성하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는 한편 동두천시민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소요의 맥(문화원 발행)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문예지를 발간하고 있다. 동두천여자상업학교는 1990년부터 ≪목련≫을 매년 발행한다. 이 책은 학생과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등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느

끼는 감정이나 희망사항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습작의 형태로나마 발표하는 장으로써 활용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형태의 출판물은 동두천중학교의 ≪반딧불≫, 보영여자중·종합고등학교의 ≪보영(普英)≫, 신흥중학교의 ≪신흥(信興)≫ 등이 있다. 물론 각 학교에서는 반단위로 학급문고가 이러한 형태로 매년 또는 학기별로 발간되는데, 체제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각 학교 문예지

한편 진정한 지방화시대와 지방사회의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지역신문의 발행이 요청된다. 중앙지에 의한 지역사회 동정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고, 지역민의 일상사를 제대로 기술할 수 없었다. 그런만큼 동두천시민의 '눈과 귀'를 담당할 지역신문의 발행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알려질 때,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동두천시의 건설은 성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제3절 방송

1. 동별 홍보매체 현황

책임있는 행정은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주민들에게 시정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각 동별 홍보매체 보유 현황은 〈표 4〉와 같다. 비디오 테이프 9,330개 등 많은 홍보물은 보유하고 있다.

〈표 4〉 홍보매체 보유 현황

(단위: 대)

구 분	비디오	전 축	녹음기	스피커	앰 프	계
생연1동	1,057	1,189	1,585	22	4	2,643
생연2동	1,110	1,249	1,666	10	1	2,777
생연3동	821	410	1,186	15	3	1,826
생연4동	66	832	1,081	11	1	1,664
보산동	874	971	1,262	5	2	1,943
내행동	2,082	2,467	3,137	15	5	5,705
동연동	790	791	1,180	12	7	1,979
소요동	517	206	775	30	8	1,293
광암동	525	525	788	18	6	1,314
상패동	889	889	1,220	10	7	2,223
계	9,330	9,529	13,880	148	44	72,369

자료: 동두천시 문화공보실 제공

2. 라디오와 TV 보급 현황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인간은 문화생활을 요구한다. 과거 TV는 부의 척도로 평가될 만큼 귀중한 자산이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평균 1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의

〈표 5〉 라디오와 TV 보급 현황

(단위: 대)

연 도	라디오	TV	연 도	라디오	TV
1981	12,596	12,335	1989	17,626	19,827
1982	13,212	13,009	1990	18,010	20,675
1983	15,601	15,531	1991	18,219	22,013
1984	16,335	16,284	1992	18,330	23,392
1985	16,586	17,500	1993	18,521	25,010
1986	17,023	18,164	1994	18,708	25,993
1987	17,220	17,259	1995	18,925	27,176
1988	17,427	19,037	1996	20,316	27,123

자료: 동두천시 문화공보실 제공

라디오와 TV보급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1년 시승격 당시 라디오 12,596대와 TV 12,335대였다. 그런데 1996년에는 각각 20,316대와 27,123대로 급증하였다.

3. 유선방송 현황

여가 생활의 선용과 더불어 유선방송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동두천시에 소재한 유선방송은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CATV유선 · 동두천유선 · 성광유선 · 동아유선 · 중앙음역유선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6〉 유선방송 현황

상 호	사 업 구 역	사 용 채 널	가입자수	허가년월일	소 재 지
CATV유선	생연1동(1,2,3통) 생연3동(4,5,6,3,4,8,10통) 보산동 상패동	2,4,5,6,7,8, 9,10,11,12,13	3,156	79.11.20	생연3동 577번지
동두천유선	생연1동(5통) 생연2동	〃			
동두천유선	생연3동(1,2,3,7,8,9,10통) 생연4동(2,5,6,7통) 내행동	〃	5,145	79.11.20	생연2동 821-3
성광유선	광암동	〃	997	89.11.6	광암동 494-6
동아유선	동안동, 소요동	〃	2,726	89.11.6	동안동 289
중앙음역유선	동두천시 전역	6개 채널 (50HZ~15KHZ)	152	89.3.23	생연3동 615-28

자료: 동두천시 문화공보실 제공

〈조 규 진〉

제4장 문화와 예술

제1절 문학

1. 동두천의 고시

경기도 양주군에서 분리된 동두천시는 소요산 등 명승지가 근처에 산재한 자연환경으로 일찍부터 문학적인 소재로서 인용되었다. 비록 이곳 출신의 뛰어난 문인은 없으나, 이 지역을 예찬한 많은 문학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특히 소요산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글은 우수한 문학성보다는 동두천 출신의 작자(作者)나 관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소요굴천생석나한(逍遙窟天生石羅漢)

자재소요 경기겁(自在逍遙 經幾劫): 자재암에 소요하며 지내기 몇 겁이었나
심산석굴 애관공(深山石窟 愛觀空)): 깊은 산 석굴에 공관(空觀)을 즐기었네
권군조조 회두거(勸君早早 回頭去): 권하노니 그대여 어서어서 머리를 돌이켜서 가서
최상문중 모득통(最上門中 慕得通): 최상의 도문(道門)중에 곧장 통원(通遠)함을 얻을 지로다.

이 글은 고려 공민왕(恭愍王)대 왕사(王師)인 나옹(懶翁) 혜근(慧勤)의 작품으로 소요산 자재암 석굴에서의 청빈한 수도생활을 격찬하는 부분이다. 대자연 속에서 스스로 수양에 의한 득도(得道)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2) 백운암가(白雲庵歌)

소요산상 다운백(逍遙山上 多白雲): 소요산 위에 떠있는 흰구름 많기도 한데

장반소요 산상월(長伴逍遙 山上月): 소요산 위에 뜬 달과 짝하는 도다
유시청풍 다호사(有時淸風 多好事): 때때로 맑은 바람 불어와 좋은 일도 많아
내보타산 갱기절(來報他山 更奇絶): 다른 산이 다시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와서 알리네
백운무심 편태허(白雲無心 編太虛): 흰구름 무심히 하늘을 떠도는데
기여홍로 일점설(其如紅爐 一點雪): 그 모양은 붉은 화로에 한 점 눈덩이 같구나
행우사방 무피차(行雨四方 無彼此): 사방에 내리는 비는 피차가 따로 없고
시처시물 개흔열(是處是物 皆欣悅): 곳곳마다 만물이 모두 기뻐하네
찰나귀래 차산리(刹那歸來 此山裏): 잠간만에 산속에 돌아오니
산광착색 수인시(山光着色 水咽侍): 산빛은 산뜻하고 물은 울어데는도다
고암의히 비무간(古庵依稀 霏霧間): 옛 암자는 안개속에 어렴풋한데
연운외도 창태골(連雲畏道 蒼苔滑): 구름낀 험한 길 푸른 이끼가 미끄럽네
좌경우경 왕복행(左傾右傾 往復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갔다가 돌아와서
수기전자 성즐율(誰其傳者 性櫛栗): 질률나무[1]의 성품을 전할 자 그 누구랴
노궁암문 향동개(路窮庵門 向東開): 길이 다하매 암자문이 동쪽을 향해 열리고
빈주동회 무언설(賓主同會 無言說): 손님과 주인이 함께 만났으나 말이 없노라
산점묵묵 수설잔(山點默默 水潺潺): 산은 묵묵하고 물은 졸졸 흐르는데
석녀훤화 목인출(石女喧嘩 木人咄): 석녀는 시끄럽게 지꺼리고 본인은 혀를 차네
급급서래 벽안호(汲汲西來 碧眼胡): 급급히 서역에서 오신 푸른 눈의 호승(달마)이
누설차의 매불일(漏洩此意 埋弗日): 이뜻을 누설하여 불일을 파묻고
전지조계 노노수(傳至曹溪 盧盧手): 전하여 조계땅 노수[隸能]에게 이르렀도다
우도본래 무일물(又道本來 無一物): 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말하여
가소고금 천하인(可笑古今 天下人): 천하고금 모든 사람을 웃을만 한데
불석미모 행봉갈(不惜眉毛 行棒喝): 깨우침을 주려고 봉과 갈[2]을 아끼지 않았도다
아금장하 위금인(我今將何 爲今人): 나는 이제 요즘 사람을 위하여 장차 무엇할까나
춘추동하 호시절(春秋冬夏 好時節): 봄 가을이나 겨울 여름이 다 좋은 철이니
열향계변 한향화(熱向溪邊 寒向火): 더우면 물가로 가고 추우면 불가로 가네
간절백운 의반결(間截白雲 衣半結): 틈틈히 흰구름 끊어내다가 옷짓기를 절반하였고
곤래벌와 백운루(困來閥臥 白雲樓): 곤하여 와서 백운루에 한가로이 누워 있자니

1) 질률나무는 선가(禪家) 곧 절에서 지팡이를 만드는데 쓴다.
2) 봉갈은 선가의 문답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치거나 큰소리로 꾸짖는 수행.

송풍소소 성절절(松風蕭蕭 聲浙浙): 솔바람 우수하고 빗소리는 쓸쓸하다
청군래차 보여년(請君來此 保餘年): 청하노니 그대여 여기에 와서 여생을 보전하세
기유소혜 갈유천(飢有蔬兮 渴有泉): 배고프면 나물 있고 목마르면 샘있다네

이 시는 고려 말기 임제종(臨濟宗)의 종주인 태고(太古) 보우(普愚: 1301~1382)가 소요산의 절경과 더불어 수도정진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고행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 소요사(逍遙寺)

노입한계동(路入寒溪洞): 길은 찬 시내 골짜기로 뻗어 있고
천봉낙조명(千峰落照明): 봉우리마다 지는 햇빛 밝게 빛난다
사산개졸율(四山皆崒嵂): 사방의 산봉은 모두가 높고 험한데
일간정청냉(一澗正淸冷): 돌틈에서 흐르는 물 정히 맑고도 차다
전유금은상(殿有金銀像): 대웅전에는 금은으로 조성한 불상 있어도
승다수운정(僧多水雲情): 스님 마음엔 운수처럼 떠돌 생각뿐
상왕회주련(上王會駐輦): 일찍이 상왕[3]께서 머무르시던 곳인데
경폐소인행(逕廢少人行): 지금은 길마저 무너져 인적조차 드물다

조선시대 문신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8)도 소요산을 격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오언율시(五言律詩)로서 이를 표현하였다. 다만 소요사가 숭유배불정책(崇儒排佛政策)으로 퇴락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태조가 방문할 정도로 융성한 소요사는 이제 방문하는 인적조차도 드문 곳으로 변하였다.

4) 여우계성혼 공심소요산(與牛溪成渾 共尋逍遙山)

초합산계 우양교(草合山溪 雨壞橋): 초목은 계곡에 우거지고 다리는 비에 끊어져
부지하처 향소요(不知何處 向逍遙): 소요산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네

3) 상왕(上王)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를 말함.

상봉사시 증상식(相逢似是 曾相識): 서로 만나 보니 진작부터 잘알던 사이 같아서
인입연라 공월소(引入煙蘿 共月宵): 안개낀 덩쿨속에 들어가 달밤을 함께 즐겼노라

이 시는 율곡 이이(李珥: 1535~1584)가 당시 대학자인 성혼(成渾)과 함께 소요산을 찾은 다음, 이곳에서 느낀 감흥을 적은 것이다. 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이 쉽게 친화하게 되었다고 노래하였다.

5) 유소요산사(遊逍遙山寺)

〈1수〉
소요풍악 구명산(逍遙楓岳 俱名山): 소요산과 금강산이 다 명산인데
제품전칭 백중간(題品傳稱 伯仲間): 품계를 따지자면 맏이와 버금이네
원견고인 여미견(願見高人 如未見): 고인을 뵈려하나 아직 뵙지 못하였네
유의선식 계방안(猶宜先識 季方顔): 의당 아우의 얼굴임을 먼저 알았네

〈2수〉
치도저정 숙선당(緇徒觝頂 宿神堂): 치도[4]의 승 절정에 이르러 선당에서 잠자니
고촉잔향 침점량(孤燭殘香 枕簟凉): 외로운 촛불 쇄잔한 향내음 서늘한 삿자리를 베개로 삼았네
노석함운 두상핍(老石含雲 頭上逼): 늙은 돌은 구름을 먹음이 머리 위에 가깝고
비천송우 몽중장(飛泉送雨 夢中長): 솟아오르는 샘은 비를 보내 꿈가운데 길도다
작래상한 단풍조(昨來尙恨 丹楓早): 어제 와서 단풍이 아직 이르다 하였더니
효거응첨 백로황(曉去應添 白露黃): 새벽길 흰구름 누른 빛을 더해주네
오조당년 유차지(吾祖當年 遊此地): 나의 할아버지 당년에 노시던 곳인데
황화명일 유초상(黃花明日 侑初觴): 누런꽃 내일이면 첫잔에 더하리하라

작자는 최일관(崔日觀: 1692~1731)은 소요산을 금강산에 비유하였다. 또한 소요산의 계절적인 변화를 가족의 인생 역정에 비견하는 등 인간과의 친화를 강조하였다. 즉 소요산은 곧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식할 정도이다.

---

4) 치도는 치의(緇衣)를 입은 무리라는 의미로 곧 승려를 지칭함.

6) 대중유소요산(大中遊逍遙山)

비추비하 우비춘(非秋非夏 又非春): 가을도 여름도 아니고 또한 봄도 아닌데
십월산광 여견직(十月山光 如見直): 십월에 산빛 참으로 보는 것 같네
유굴운생 무주야(幽窟雲生 無晝夜): 깊은 굴에 구름이 생기니 밤과 낮이 없고
고봉목락 노린순(高峯木落 露嶙峋): 높은 봉 나무잎 떨어지니 산의 자태가 드러나네
청금백폭 동음운(淸琴白瀑 同音韻): 맑은 거문고 소리 흰 폭포소리 운이 같고
죽장마혜 숙주빈(竹杖麻鞋 孰主賓): 죽장과 삼신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일숙선방 유미족(一宿禪房 猶未足): 선방에서 하루밤 잔 것이 오히려 부족하여
다정호이 첨오건(多情好而 沾烏巾): 다정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이 검은 수건[5]만 적시네

민사덕(閔師德)은 소요산의 선방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고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하여 이를 읊었다. 소요산의 변화무쌍한 환경은 이별하는 인간의 심성을 더욱 슬프게 한다는 것이다.

7) 소요산시(逍遙山詩)

석각소운 취벽위(石角梢雲 翠壁危): 석각에 구름 도니 푸른 바위 위태롭고
비단약설 반천중(飛湍若雪 半天重): 여울물은 눈과 같이 반공중에 드리웠네
산문돌올 개선굴(山門峽屼 開仙窟): 산문은 우뚝우뚝 선굴을 맞고
금찰영롱 침벽지(金刹玲瓏 枕璧池): 사찰은 영롱하여 구슬 연못[6]을 옆에 두고
풍진고송 번호학(風振古松 翻皓鶴): 고송에 바람부니 흰 학이 뒤척이고
월임유학 견청이(月臨幽壑 見靑螭): 깊은 골에 달이 뜨니 푸른 이무기 보이네
왕교욕득 논쇠후(王喬欲得 論衰朽): 왕교[7]는 쇠퇴해가는 논리를 얻고자 하였으나
상외청진 묘막추(象外淸塵 杳莫追): 세상 밖에 맑은 티끌 아득하여 따를 수 없네

소요산의 정취를 조영당 정현원(鄭玄源: 1609~1673)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번잡한 세상사를 다스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

5) 오건(烏巾)은 오모(烏帽)라고도 하는데, 은사(隱士)나 처사(處士) 등이 쓰는 검은 두건(頭巾)을 의미한다.
6) 벽지는 벽소(璧沼)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연못을 지칭함.

8) 유소요산사(遊逍遙山寺)

팔월소요사(八月逍遙寺): 팔월의 소요산 절에
천림상반황(千林霜半黃): 수풀에 서리가 내려 절반은 누렇네
청계연석경(淸溪連石逕): 푸른 계곡에 돌길이 이어지고
비폭락고망(飛暴落高罔): 날리는 폭포 높은 뫼에 떨어지네
고벽태함벽(古壁笞含碧): 높은 벽에는 푸른 이끼 머금었고
층계국자향(層階菊自香): 층계의 국화는 스스로 향기를 내고
만래휴주객(晩來携酒客): 늦게 술자리 가지고온 손님
동아식선방(同我息禪房): 나와 같이 선방에서 쉬었네

이 시도 정현원이 소요산의 사찰에서 삶을 전해준다. 명승경관을 배경으로 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9) 영립(咏笠)

부부아립 등허주(浮浮我笠 等虛舟): 가뿐한 내 삿갓은 빈 배와 같은데
일착평생 사십추(一着平生 四十秋): 한 번 쓴지 어언간 40년이라
목수경장 수야속(牧竪輕裝 隨夜犢): 목동이 털어쓰고 송아지를 따르고
어옹본색 반백구(漁翁本色 伴白鷗): 어부가 백구따라 고기 낚는 우장(雨裝)이라
취래탈쾌 착화수(醉來脫掛 着花樹): 술취하면 꽃나무에 높다랗게 걸어 놓고
흥도휴등 완월루(興到携登 翫月樓):흥이 나면 달구경 하는 다락에도 오르고
속자의관 개외식(俗子衣冠 皆外飾):세상사람 의관이란 겉치레 뿐이지만
만천풍우 독무수(滿天風雨 獨無愁):비바람 몰아쳐도 시름없어 하노라

이 글은 당시인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작자는 김병연(金柄淵)으로,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일관되게 살았다. 항상 삿갓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에게 '김삿갓' 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

7) 한(漢)나라 때의 신선 이름

10) 역족와팔경(亦足窩八景)

역조와팔경은 안흥동(安興洞)출신으로 하양(河陽)현감을 지낸 문신 허주(虛舟) 정치상(鄭致相, 1858~1722)이 동두천 고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1) 소요초월(逍遙初月 : 소요산의 초생달)
의미봉반파(依微峰半破) : 희미한 봉우리 반이 깨여지더니
아견용은륜(俄見湧銀輪) : 조금 있다가 은바퀴 솟는 것을 보겠네
일색공천하(一色共天下) : 그 빛은 천하를 같이 빛치니
기의사아신(祇疑私我身) : 공손이 사사로운 내몸을 의심하네

(2) 마차낙조(磨叉落照 : 마차산에 지는 해)
서입망산두(西立望山頭) : 서산머리 바라보니
욕함반낙일(慾含半落日) : 반쯤 떠러지는 해를 삼키고져 하네
연광차중최(年光此中催) : 광암이 이 가운데서 재촉하니
휴이낙환출(休詑落還出) : 쉬었다가 돌아나와 자랑하리라

(3) 송현취우(松峴驟雨 : 소래개 고개 내리는 비)
욕풍습습취(慾風習習吹) : 골짜기에 봄바람이 솔솔 불더니
영우비비하(嶺雨霏霏下) : 고개 위에 부슬비가 내리네
종견세귀풍(從見歲歸豊) : 마침내 올해는 풍년을 보리니
가무배주하(可無杯酒賀) : 가히 잔술로 하례함이 없으리라

(4) 율탄행인(栗灘行人 : 밤여울의 행인)
역역탄변인(歷歷灘邊人) : 지나가고 지나는 여울가 행인들
행행하소향(行行何所向) : 가고 또 가면 어느 곳으로 향하는고
득비조천영(得非釣川咏) : 낚시질하며 시를 읊지 아니하면
무내모촌양(無乃謀村釀) : 마을에 빚은 술 구하기 어려우리

(5) 가정조연(柯亭朝烟 : 가정자 마을의 아침 연기)

일말조래연(一抹朝來烟): 한결같이 퍼지는 아침 연기
명명복점사(冥冥覆店舍): 어둡고 어둡게 점사[8]를 뒤덮으니
내지유숙객(乃知留宿客): 이에 유숙하는 손님이 알고
취반최정파(炊飯催征靶): 밥짓고 길떠날 재촉을 않겠네

(6) 왕방모애(旺方暮靄: 왕방산 저문 아지랑이)
애애봉두기(靄靄峰頭氣): 아지랑이는 산봉우리 기운인가
작운롱만산(作雲籠滿山): 구름되어 몽롱하게 산에 가득하니
고교진세객(故敎塵世客): 고교의 진세객이
부득대라환(不得對螺鬟): 상투튼 사람을 대하지 못하겠네

(7) 저전초가(楮田樵歌: 닥나무밭의 땔나무꾼 노래)
척촉등산정(躑躅登山頂): 꽃길따라 산마루에 올라
비가상취군(悲歌相聚群): 슬픈 노래로 군중을 서로 모으네
누누다고묘(累累多古墓): 여기저기 옛무덤이 많은데
혹유아상분(或有亞常墳): 혹 맹상군의 무덤이 있으려나

(8) 원기목적(院基牧笛: 원터 목동의 피리)
도기우배아(倒騎牛背兒): 소등에 꺼꾸로 탄 아이들
요량송청전(寥亮送淸轉): 요량하게 청전을 보내누나
약사유랑과(若使劉郎過): 만약에 유랑이 지나가면
응화주마선(應和駐馬羨): 응당 주마에 부러움을 알리라

11) 소요사차벽상운(逍遙寺次壁上韻)

구월소요음(九月逍遙飮): 9월에 소요사에서 마시니
유연진려소(悠然塵慮踈): 우연히 옛날 생각이 성글더라
제휴노석재(提携老釋在): 술병은 있으나 늙은 스님 있으니

8) 점사는 점막(店幕)이라고도하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숙식을 제공함. 흔히 '주막'을 일컬는 말.

요락고암여(寥落古菴餘): 고요히 떨어져 옛암자에 남았네
은약사양후(隱約斜陽後): 은은한 언약 해저문 후라
의미산월초(依微山月初): 초생달은 산을 옆에 의지했네
동림의결사(東林宜結社): 당연히 동림에서 만날 것인데
하필예장거(何必曳長裾): 하필이면 길이 옷깃을 끄는고

12) 초당십경(草堂十景)

아래의 작품은 이유(李瑜)가 동두천과 관련된 자연을 예찬한 글이다. 그는 숙종 9년(1683)에 태어났으며, 자는 군미(君美)이고 호는 안곡(安谷)이다. 영조 34년(1758)에 사망한 문인이다.

(1) 마차숙운(磨叉宿雲: 마차산에 자는 구름)
과운유숙 엄산용(過雲留宿 掩山容): 지나는 구름 유숙하며 산의 모습 가리니
효기초동 미소종(曉起樵童 迷所從): 새벽에 일어난 초동은 갈곳이 희미하네
합대계문 연촌리(拾對薊門 煙村裏): 계문에 연기는 나무 품속을 대함과 같아
천촌리락 유무중(千村籬落 有無中): 천촌의 울타리에 떨어지니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2) 소요청람(逍遙晴嵐: 소요산에 필어나는 아지랑이)
첨피소요 산상령(瞻彼逍遙 山上嶺): 저 소요산 마루를 바라보니
비운비무 역비연(非雲非霧 亦非煙): 구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 더욱이 연기는 아니네
수능유의 장라대(誰能有意 藏螺黛): 누가 능히 먹눈썹을 뜻있게 감추어
허기성람 폐반천(噓氣成嵐 蔽半天): 숨쉬는 기운 아지랑이 되어 반공중을 가리였나

(3) 청라기석(靑蘿磯石: 청라의 낚시터)
반타기석 간지서(盤陀磯石 澗之西): 비탈진 낚시터 서쪽에
기상어간 일일휴(磯上漁竿 日逸携): 그 낚시터 위에도 날마다 낚시하네
토기경륜 종가견(吐氣經綸 從可見): 토하는 기운에 경륜을 가히 보태니
위천해독 유반계(渭川奚獨 有磻溪): 위수에마 어찌 홀로 반계[9]가 있으랴

9) 반계는 위수(渭水)로 흘러가는 강으로서 강태공(姜太公)이 낚시하는 곳으로 유명한 지명.

(4) 적암비폭(赤岩飛瀑: 역암에 날리는 폭포)
려산비폭 고운운(廬山飛瀑 古云云): 여산폭포를 옛사람이 이르더니
수식유양 승개존(誰識維楊 勝槩存): 누가 양주땅에 승지가 있는 것을 알았던가
훤훼난류 궁일석(喧虺亂流 窮日夕):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흐러나니
시비군득 이변문(是非郡得 耳邊聞): 시비를 누가 귀가에 들을손가

(5) 전산설송(前山雪松: 앞산에 눈덮힌 소나무)
창취능한 불개용(蒼翠凌寒 不改容): 눈덮힌 한파에도 그 푸르름은 변치 않으니
원연봉상 수주송(苑然峰上 數株松): 봉우리 위에 우거진 몇 그루 소나무
설중고절 능여차(雪中高節 能如此): 눈가운데 높은 절개 능히 이와 같으니
가소당년 진제봉(可笑當年 秦帝封): 진나라 황제 봉해준 당년이 우습도다

(6) 후곡상풍(後谷霜楓: 뒷골에 서리맞은 단풍)
요율적염 규한홍(寥慄商飈 叫寒鴻): 쓸쓸한 가을 변방에 기러기 부르짖는데
만산풍엽 체상홍(滿山楓葉 滯霜紅): 산에 가득한 단풍은 서리를 맞아 붉었네
착래각탄 수시염(着來却歎 隨時染): 수시로 물드는 것을 보고
불급청청 독야송(不及靑靑 獨也松): 푸른 솔에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네

(7) 미동자화(薇洞煮花: 미동의 화전놀이)
춘래병와 부지시(春來病臥 不知時): 봄이 왔어도 병으로 누워 때를 모르겠더니
견보양파 화만지(見報陽坡 花滿枝): 양지쪽에 꽃이 만발하였다고 아이들이 일러주네
적자시병 향입구(摘煮時餠 香入口): 꽃을 따 떡을 빗어 향기입에 드러가니
산거미미 숙여사(山居美味 孰如斯): 산에 사는 이 아름다움을 누가 이와 같을까

(8) 율탄관어(栗灘觀魚: 밤여울에 고기떼)
석출수청 가수어(石出水淸 可數魚): 돌이 들어나도록 물이 맑으니 고기를 셀수가 있네
취휴여장 보서서(醉携藜杖 步徐徐): 술에 취해 여장을 끌고 천천히 걸어
제강설강 은인적(提綱設綱 銀鱗摘): 그물을 끌어 그물을 치고 은어를 잡으니
절승강동 장한로(絶勝江東 張翰鱸): 강동 장한에 농어회보다 나으리라

(9) 동영망월(東嶺望月: 동쪽 산마루에 뜬 보름달)
동영반파 토신휘(東嶺半破 吐新暉): 동쪽마루 반이 깨어지더니 새로운 빛을 토하네
유영천촌 호발미(流暎千村 毫髮微): 천촌의 모든 것을 비추어주네
장조금마 적선어(長照金馬 謫仙語): 금마의 긴 빛이 신선의 말인가
낭음산상 부지귀(郎吟山上 不知歸): 산상을 낭음하노니 돌아갈 줄 모르네

(10) 서강영풍(西崗迎風: 서강에 부는 바람)
습습경풍 곡리구(習習輕風 谷裏驅): 봄바람이 솔솔 골짜기를 몰아와
개금척열 승빙호(開襟滌熱 勝氷壺): 가슴을 열고 더위를 식히니 얼음병보다 낮네
유연기상 군능점(悠然氣像 君能占): 유연한 기상을 그대가 능히 점령하여 갔으니
점야휴과 영무우(點也休誇 咏舞雩): 점령하였다고 읊고 춤추지 마라

13) 춘일유소요산사(春日遊逍遙山寺)

아래 작품은 율탄(栗灘) 정창전(鄭昌展)선생이 소요산의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1수〉
삼월초제경(三月招提境): 삼월의 봄 지경에 불너오니
금사백일선(金沙白日鮮): 금빛 힌모래 언제나 곱구나
첨비단곡저(簷飛丹谷底): 첨하는 단곡 밑으로 날으고
염권벽암변(簾卷壁岩邊): 발은 푸른 바위 가로 거두네
염송승파석(念誦僧抛錫): 염불을 외우니 승려는 주석을 던지고
제시객파전(題詩客把牋): 시를 쓰니 나그네 문체를 잡았네
양가적만학(揚歌寂萬壑): 적막한 계곡에 노래의 메아리
유일개제천(遊日開諸天): 유람하는 날 모든 하늘이 열리고
연막청라전(煙幕靑蘿展): 저녁연기는 푸른 쑥에 펼쳐지고
송반취개원(松蟠翠盖圓): 송반은 푸르고 둥글게 덮었네

〈2수〉
위봉철검삭(危峰鐵劒削): 위태한 봉우리 깍은 쇠칼같고

영뢰옥금전(靈籟玉琴傳): 신령스런 피리소리 거문고에 전하네
은수정중아(銀樹庭中亞): 은나무는 정원 중앙의 으뜸이라
담화가상련(曇花架上連): 담화는 부처님 시렁 위에 연했네
청뢰분학폭(晴雷噴壑瀑): 깨이는 위뢰는 구릉에 폭포를 뿌으며
상경협계천(霜鏡挾溪泉): 거울같은 서리 시내에 끼었네
부진선구취(不盡仙區趣): 선경의 아름다움을 다보지 못하여
도망인세연(都亡人世緣): 세상 사람과의 인연을 다 잊었네
소요천지외(逍遙天地外): 소요산은 하늘과 땅밖인가
귀식범연전(歸息梵筵前): 범연 앞에 돌아와 편히 쉬노라

14) 소요사응승인호운(逍遙寺應僧人呼韻)

풍림추만 엽번홍(楓林秋晩 葉翻紅): 단풍숲 가을이 늦으니 붉은 잎 번뜩이고
소슬한송 향석풍(蕭瑟寒松 響夕風): 소슬한 찬소나무 저녁 바람이 울리네
한기소루 경백주(閑倚小樓 傾白酒): 한가한 작은 다락 의지하여 백주[10]를 기울이니
일륜신월 상층공(一輪新月 上層空): 한바퀴 새로운 달 층계 위에 떠있네

15) 유소요산안회(遊逍遙山鴈懷)

우입선산 무반려(偶入仙山 無伴侶): 우연히 소요산에 들어와 짝이 없어서
휴호목말 일평두(携壺木末 一平頭): 나무막대기[11] 끝에 술을 매달아 메고 왔네
운매대학 송성습(雲埋大壑 松聲濕): 구름이 구릉을 덮으니 소나무소리까지 저졌네
우과층암 벽색추(雨過層岩 壁色秋): 비가 내려 층암을 지나니 석벽빛은 가을이라
천고세정 장태식(千古世情 長太息): 천고에 세상인심 길게 탄식할 뿐이요
백년호흥 차오유(百年豪興 此遨遊): 백년을 호걸과 더불어 이렇게 놀아보니
등고비아 풍진리(登高睥睨 風塵裡): 높이 날으는 비아도 티끌과 같고
진리금거 기마우(塵裡衿裾 幾馬牛): 풍진 속에 몇 번이나 말과 소를 옷깃했던가

〈조 규 진〉 (번역: 정 용 학)

10) 백주는 막걸리나 탁주를 의미함.
11) 명아주 대로 만든 지팡이.

2. 근 · 현대문학

동두천시의 근 · 현대 문학은 대다수 작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은 없다. 이 지역이 군사도시로 활동상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문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는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학동호인이 결성되었는데, 바로 이담문학회의 조직이 그것이다. 이 동호회의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은 정관에 잘 나타나 있다. 참고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담문학회 정관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를 이담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에 둔다.

제3조(목적) 향토문화의 향상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 작품활동을 고취하며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하여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이담문학지 발행 및 시 낭송회
3. 각 장르별 토론과 발표회, 강연회, 문학탐방
4. 대외 기고 및 투고 미등단 동인의 등단지원
5. 지역 유명문인의 시비건립과 기타 필요한 사업

- 제2장 기 구 -

제5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시 (2) 시조 (3) 소설 (4) 수필 (5) 아동 (6) 평론 (7) 희곡 (8) 번역

제6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둔다.

- 제3장 임 원 -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분과위원장 각1명 (4) 사무국장 1명 (5) 간사 1명 (6) 감사 2명. 단 임원은 통보없이 3회이상 불참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7) 김삿갓(김병연) 시인의 시비건립, 김립문학상 제정 운영위원 및 고문을 약간 둔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 원 -

제9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생활터전을 갖인 사람으로서 문학을 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사람은 회원 2인이상 추천을 받아 분과별 회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성문인은 가입할 수 있다. 단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고향출신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명예회원) 본회는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본고장의 출신 현역문인, 우리고장에서 거주 또는 문학활동을 직접하는 원로문인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6개월 이상 무단 불참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상임부회장이 대리한다.

제14조(분과위원장의 직무)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을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본회 사업 및 기타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재정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제16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출판사업 등에 분장된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재정과 사업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수시 감사할 수 있다.

- 제5장 회 의 -

제18조(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개정, 임원개선, 예결산 심의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단 불참자는 서면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월례회) 매월 월례회를 열고 제반 사업을 논의 결정하며 회원 상호간 문학토론과 작품합평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하며 문학적 정보를 교환한다.

- 제6장 선 거 -

제20조(회장 등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사무국장과 간사)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7장 재 정 -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에 한다.

제25조 재정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 부 칙 -

제26조(징계) 본회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본 정관에 없는 것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8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9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에 의해 조직된 이담문학회 회원은 현재 25명이다. 이들은 분과 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과는 시 · 수필 · 아동문학 등 3개에 불과하다. 분과별 회원 명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이담문학회 회원현황

분과(장르)	성 명
시	김경식, 박찬수, 김동주, 김영철, 김용재, 김천만, 신점기, 김정규, 박동주, 이영석, 방두영, 이소림, 이성호, 최창균, 이옥남, 박종금
수필	김영희, 곽세근, 김상숙, 민묘자, 강영애, 오형순, 이경남
아동문학	전종욱, 이주원

〈표 1〉에서 소설이나 희곡 · 평론 · 시조 등 분과는 회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대다수는 시분과(16명)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준다. 아동의 정서함양에 절대적인 아동분과의 회원도 2명으로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러한 양상을 볼때, 이담문학회는 아직까지 활동이 초보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보다 다양한 많은 동호인의 호응과 참여에 의한 분야별 활동의 활성화가 급선무이자 과제로서 요청된다.

현재 동두천 출신이거나 동두천 거주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문평(裵文平)

1940년 경북 달성 출생으로 1962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교직에 종사하여 1990년 동두천고등학교 교감과 1991년 동두천시 교원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두천여자상업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교직생활의 바쁜 가운데 시조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중견 작가이다. 1996년 계간 ≪해동문학≫에 〈어느 신문고(申聞鼓)〉로 제20회 신인문학상 수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외에 그의 작품은 〈장미 피는 뜨락길〉, 〈어느 등잔불〉, 〈시를 찾아서〉, 〈그리운 어머니〉 등 일상사를 정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어느 신문고(申聞鼓)

어느 行列이었나
아픔이나 찍어놓고

눈이 먼 새 한 마리
죽지 시린 아침이 오면

두둥둥 하늘문 열며
환장한 빛 한 줄기

바람이 여무는 날에
남극의 입김으로 오라

四月은 깃발 같아서
水脈으로 휘돌다

어디서 햇살이 온다
능선타고 일어선다

이제 막 나래 접는
비둘기 한쌍 돌던 곳

仁旺이 간밤부터
몸짓울음 보탠다

두둥둥 북이여 울러
바른 기운 보태보라

그의 시조 세계는 "아픔을 찍어 놓고 가는 행렬(行列)"로 어떠한 암시를 준다. '눈이 먼 새'와 '죽지 시린 아침'은 암담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린 곳에서 들리는 경각의 북소리로 정화되는 누리를 갈망한다. '바람이 여물고'와 '사월의 깃발'이 펄럭이는 날에 능선을 타고 일어서는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낙관적인 삶의 자세를 나타낸다. 바로 신문고가 둥둥 울리는 날, 새로운 조국이 탄생한다는 조국애를 바탕으로 의식 세계를 그렸다.

2) 윤용빈(尹用彬)

1940년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1980년 대한의학회 이사와 원광대 한의대 강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이사, 법무부의정부교도소 교화위원, 시조생활사 기획위원, 한국시조생활동호회 부회장 등 정력적인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동두천시에서 구인당(救仁堂)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제12회 신인문학상을 받으면 문단에 등단한 중견작가로, 작품은 〈반딧불〉, 〈대추 환생(還生)〉, 〈백제 와당〉, 〈합장(合掌)〉, 〈철모(鐵帽)와 도라지꽃〉 등이 있다.

철모(鐵帽)와 도라지꽃

戰列이 사치스러워 차라리 肉彈이던 너
砲身은 허연 하품으로 地籍을 묻지 않는다
비탈엔 녹슨 鐵帽와 도라지꽃 한 송이.

散華한 너의 몫은 화랑담배 한모금
한탄강 빈 바탁엔 戰史만 번뜩이고
저 하늘 雁行을 묻는 또 소슬한 가을바람.

이제 그 稜線은 그대 血肉 차지라네
보게나 저 鐵條網을, 달이 부신 默示錄을
무에라 어진 하늘에 낯을 들 수 있겠나.

그의 세계는 역사의식과 준엄한 시대정신을 철저하게 보여준다. 철모와 도라지라는 객체를 통해 남북분단의 아픔과 이 와중에서 이름없이 산화한 젊은이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감정에 매몰되거나 비분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객관화시키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일깨운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독자들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등 분단극복을 위한 진정한 삶의 좌표를 요구한다.

3) 이요조

1950년 부산 출생으로 1994년 제3회 시조생활사 주관 전국시조백일장 일반부 차상의 입상을 계기로 문단에 등단한 신인이다. 1995년에는 제23회 시조생활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동두천 사임당회 고문과 시조생활사 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은 〈거꾸로 흐르는 江〉, 〈석수(石水)와 돌사자〉, 〈조선소배 1〉, 〈홀로 사랑〉, 〈달맞이〉 등이 있다.

거꾸로 흐르는 강

말을 잊은 강이 있다. 거꾸로 흐르는 강
부드럽게 감싸며 볼 부벼 토닥이던
모래톱 휘감아돌아 쪽빛으로 흐르던 강.

햇살 받아 반짝이던 잔잔한 너의 눈빛
첨벙대던 정강이와 흰 이마의 내 모습
찌들은 스모그하늘과 해프게 몸을 섞고.

등돌려 돌아 눕는다. 여기는 욕스런 땅
소태같이 절여진 한 자락의 분노까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입을 다문 항거로

봄이오면 풀리고 추워도 얼지 못할
시퍼런 소름돋은 무거운 몸짓으로
걸쭉한 늪이 되어서 거꾸로 흐르는 강.

그는 자연의 객관화된 대상물을 내면 세계로 흡입하여, 이를 통한 인간사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철저한 인본주의를 절제된 의식세계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역설의 반복을 통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돋보인다.

4) 이복형(李福衡)

1956년 충남 출생으로 동두천 사임당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6년 소요문화재 주부백일장 시부분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어 계간 ≪해동문학≫에 〈소요산 언저리〉라는 시로 문단에 등단한 신인이다.

소요산언저리

새악시 붉은 치맛폭에
긴 추억 서려
그려보는 수줍은 홍조

산허리 돌아돌아
침묵하던 바위마저
손짓하는 계절

묻어날 듯
배어나는 단풍에
나머지 물들어

구절寺
돌계단을 밝으니
그윽한 향기로
들려오는 듯한 풍경소리……

5) 최숙영

1951년 경기도 동두천 출생으로 현재 사임당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2년 경기도 주부백일장 입상을 계기로 창작활동에 노력한 결과, 1996년 ≪해동문학≫ 시부분에 당선된 신인이다.

민들레

채이고 밝히고 꺾여졌어도
다시 또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이젠 만개했던 꽃 송이
밤새 찬 바람에 시달렸는가
새벽 이슬 속에 하얀 관모 흩날리더니

햇살 비친 아침엔 꽃망울 다시 피네
노란 꽃 터뜨린 민들레 자태는
모질게 살아온 연인의 혼인 듯

아지랑이 아롱대는 눈어림에
남아 있는 이슬이 여인의 눈물 같아
선뜻 손 내밀어 만져지지 않는데

흔한 꽃이라고 밟고 가는
저 길손은
민들레 삶을 아는지 모르는지

6) 조순자

1958년 동두천 출생으로 국제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 음악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동두천시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1996년 ≪해동문학≫ 시부문에 〈소나무여〉로 등단한 신인이다.

소나무여

험한 고갯마루 벗삼아 긴긴 세월
모진 바람 달게 맞으며
고집스레 지킨
한 그루 푸른 소나무

나뭇가지 길게 뻗어 안타까이
세상아! 세상아!
부르다 지쳐 가슴에 묻은
세월

7) 손용석(孫庸碩)

1968년 경기도 의정부시 출생으로 동두천시 동보초등학교와 신흥중학교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995년 예총이 주관하는 월간 ≪예술세계≫에 〈남들이 즐기는 풍경〉으로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등단한 신인이다. 이후 〈이본느와 함께 춤을〉와 〈신북 가는 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어느 시대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제2절 음악

1. 동두천의 음악

동두천 음악계는 아직까지 특출한 음악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면에서도 극언을 하자면, 현재까지 음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문화 · 정치 · 경제 등의 중심지인 서울과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음악인 스스로 향토예술에 대한 인식과



동두천여상 고적대(대만 총통 취임식 초청 공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늘어나고 있는 각종 음악학원의 추세와 다양한 연주회, 그리고 1971년부터 전국 경연대회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동두천여상으로 표기함)의 고적대 활동 등은 동두천 지역의 음악에 밝은 미래를 예고해 준다. 그리고 1992년 3월 31일에 창단된 어머니합창단의 활동도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의 승격 후에 시민회관이 건립되는 등 문화예술인들에게 폭넓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동두천여상의 고적대는 1970년대 초반 조직된 이래 동두천 음악을 상징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곧 동두천시를 상징하는 대명사로서 고적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대단하다. 동두천여상 고적대 연혁과 주요한 활동 상황은 〈표 2〉과 같다.

〈표 2〉 동두천여상 고적대의 연혁과 활동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971년 4월	봉페레이드 창단(지휘자외 단원 40명)	1992년10월	제1회 문체부장관배 전국마칭대회 금상
1977년 4월	복페러이드로 개편(단원 81명)	1993년10월	제7회 정기연주회
1978년 3월	관악고적대로 재편성(단원 81명)	1994년10월	제3회 문체부장관배 전국마칭대회 금상
1986년 9월	K.B.S배 전국마칭대회 8년간 금상 수상	1995년 5월	제78차 국제라이온스 서울대회 퍼레이드 부분 우승
1986년 9월	제10회 아시안 게임 개막식 행사 출연		
1987년 8월	독립기념관 개관 기념행사 출연	1995년 9월	제4회 문체부장관배전국마칭대회 금상
1987년11월	제1회 정기연주회	1995년10월	제9회 정기연주회
1988년 9월	88서울올림픽 기념행사 강상제 출연	1996년 5월	전국마칭페스티발 참가
1988년10월	제2회 정기연주회	1996년 5월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시민회관)
1989년 9월	제70회 전국체전 개 · 폐회식 행사출연	1996년 9월	전국 관악경연대회 연주은상
1990년 5월	대만 국제마칭축제 초청 행사출연	1996년10월	제5회 문체부장관배 전국마칭대회 은상
1991년10월	일본 오오사카 미도스지 축제 행사출연	1996년10월	제10회 정기연주회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고적대의 활동은 대단할 정도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 등 국제적인 행사에도 초청받는 등 외국과 친선관계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1987년부터 시민회관에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이제 동두천여상 고적대는 단순한 한 학교의 고적대에서 동두천시 고적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나아가 세계 속에 고적대로서 활약도 기대가 된다.



동두천 어머니 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역시 동두천시 음악의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이다. 1992년 3월 31일에 단장과 단원 50명으로 출발하였다. 구성목적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행사참여를 통한 밝은사회 건설에 동참함이었다. 즉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가정의 화목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밝은 동두천시를 가꾸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의 참여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더욱이 동두천시의 여러 사회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창단이 음악회를 유치하는 등 지방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합창단장은 초대에 조수연, 1993년부터 제2대 단장에 김경자가 맡은 이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합창단의 단원을 보면 〈표 3〉와 같다.

〈표 3〉 동두천시 어머니합창단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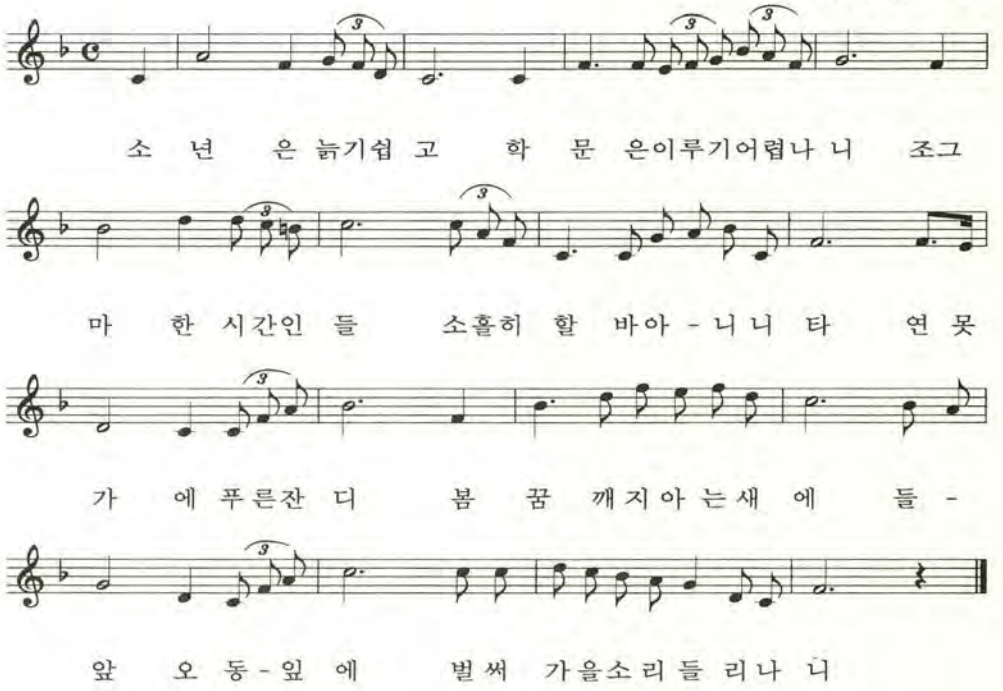
역 할	성 명
지휘자	류원수
반주자	정진희
단장	김경자
소프라노	정인자,임정옥,김명자,지정자,심도영,최경자,문진숙,김희자,정영금,박인숙,김복님
메조소프라노	이현숙,이영희,정정균,김혜자,이영자,정경자,박순천,김희숙,윤덕숙,원죽자,박종금
알토	정수미, 오옥선, 김달순, 사공주, 전매운, 홍복숙, 오윤숙, 김병순, 심근순

〈표 3〉를 살펴보면 단원은 지휘자 류원수, 반주자 정진희, 소프라노 정인자외 10명, 메조소프라노 이현속 외 10명, 알토 정수미 외 8명 등 단장을 포함해 35명이다. 이는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이다. 그런 만큼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한 어머니합창단의 활동은 도시화와 더불어 더욱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서함양을 통한 이웃간의 이해는 각박한 현실을 치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두천시 출신 대표적인 음악가는 이강헌(李康憲)이다. 그는 의정부 중 · 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 음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1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밴두부인 한성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의정부중고등학교 · 동두천중고등학교 · 여주농업고등학교 · 수원여자고등학교 · 퇴계원중고등학교 · 청평중학교 등 부임하는 학교마다 밴드부를 창설하였다. 또한의정부중고등학교 교가를 비롯해 생연초등학교 · 동두천중고등학교 교가와 동두천시 아란유치원 원가 등을 작곡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 외에 그가 작곡한 노래는 〈사은애(師恩愛)〉와 〈봄길〉 등 무수히 많다. 이 중 대표적인 악보와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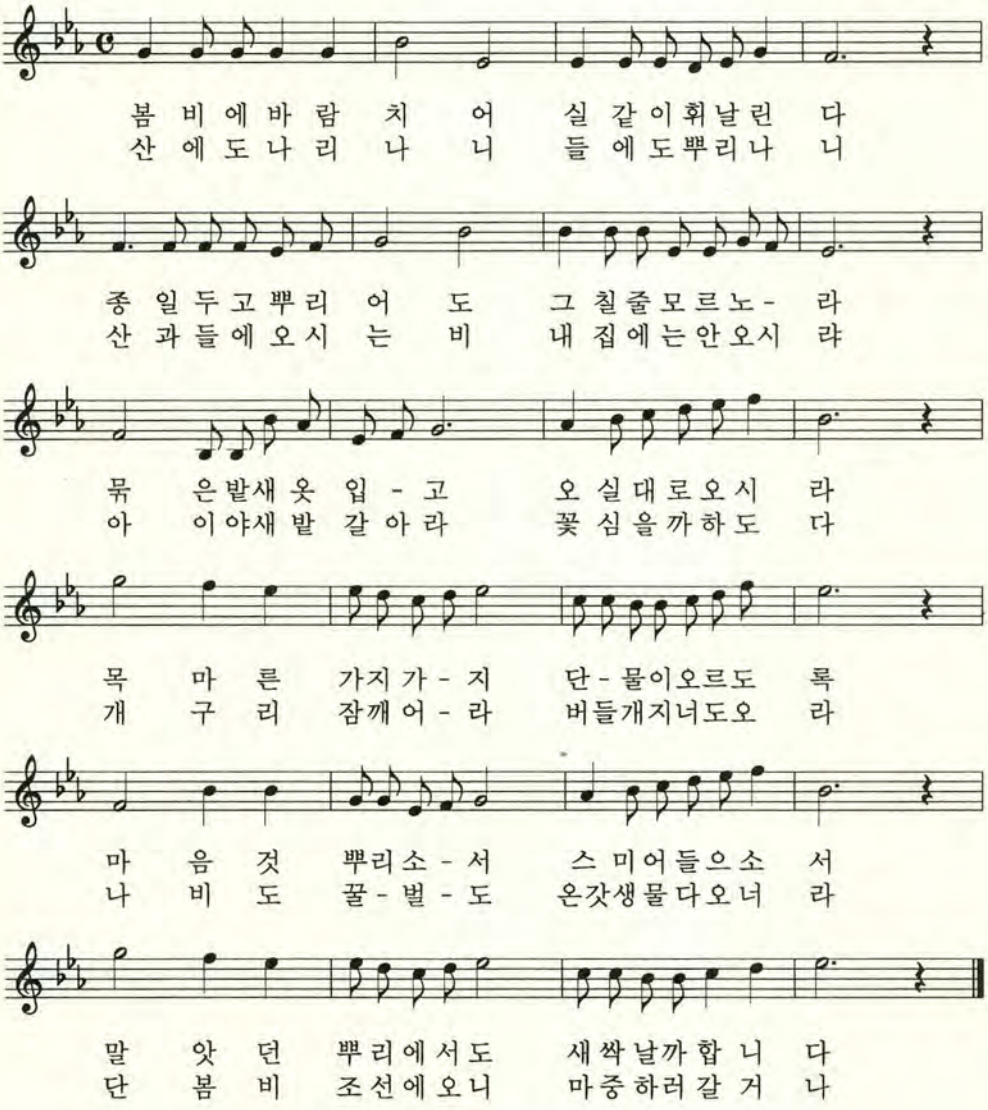
師 恩 愛

이 강 헌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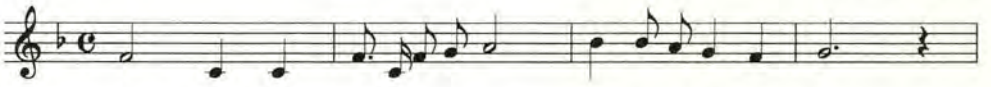
봄 비

주 요 한 작사
이 강 현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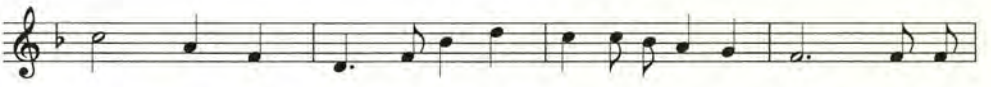


신곡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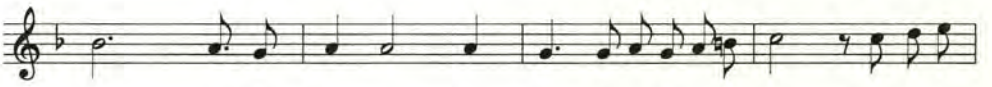
송장남 작사
이강현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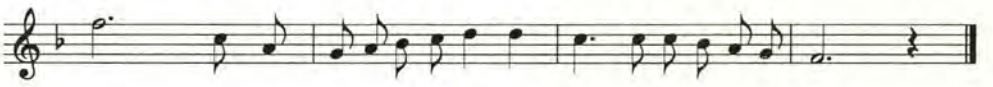
수 락 산 정 -기 - 는 햇 살에빛 나 고
해 같 이 높 -고 - 도 산 보다튼 튼 한
달 같 이 곱 -고 - 도 샘 보다해 맑 은



이 고 장 인 -걸 은 이 터에깃 든 다 장 한
우 리 는 의 기에 찬 신 곡에아 - 들 고 난
우 리 는 사 랑에 찬 신 곡에딸 - 들 새 땅



뜻 크 게 품 고 학 문 을닦 - 아 - 서 일 어 -
도 이 겨 내 며 굳 세 게나 - 가 - 리
의 새 꿈 키 워 자 애 펼쳐 - 나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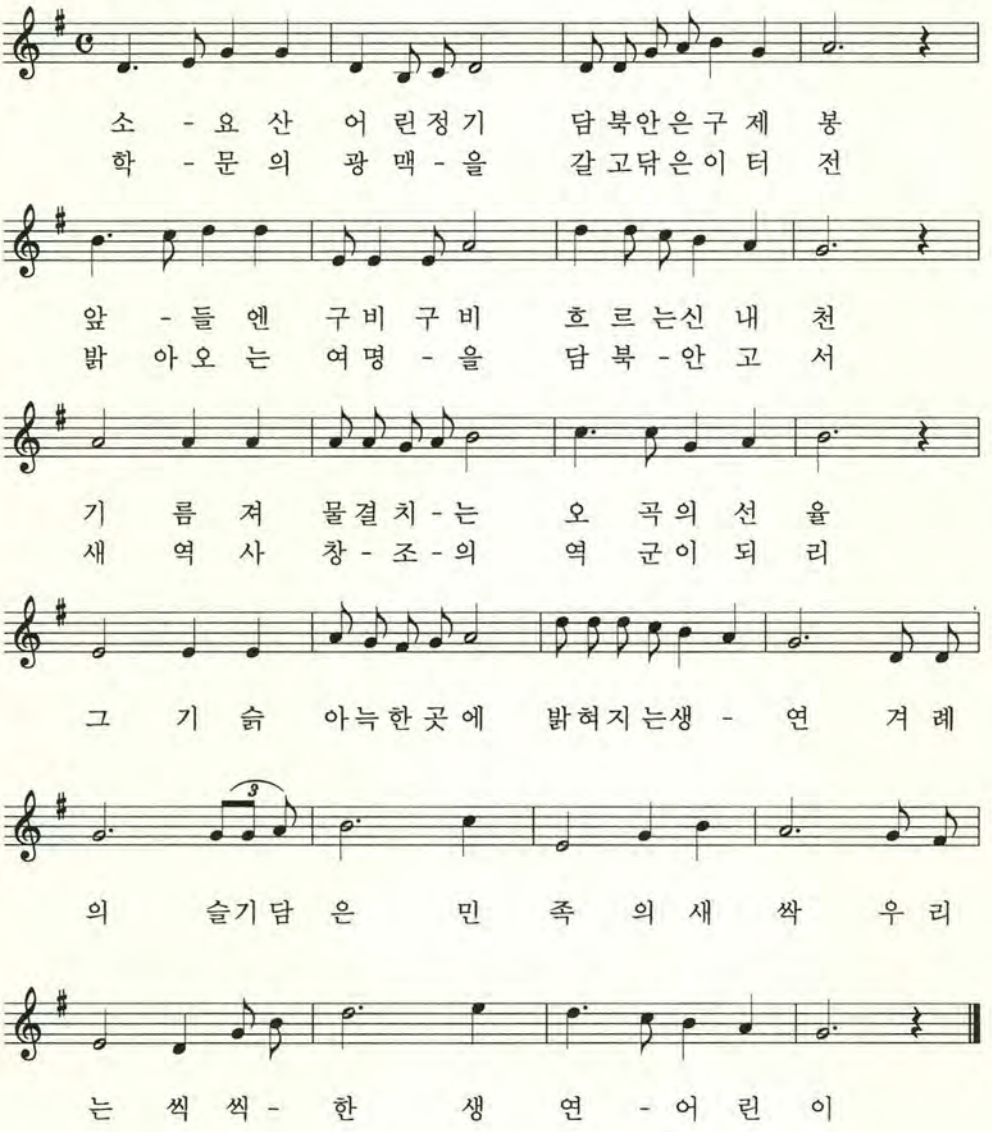


나 떨 - 쳐 - - - 라 신 곡 의건 - 아 - 여

생연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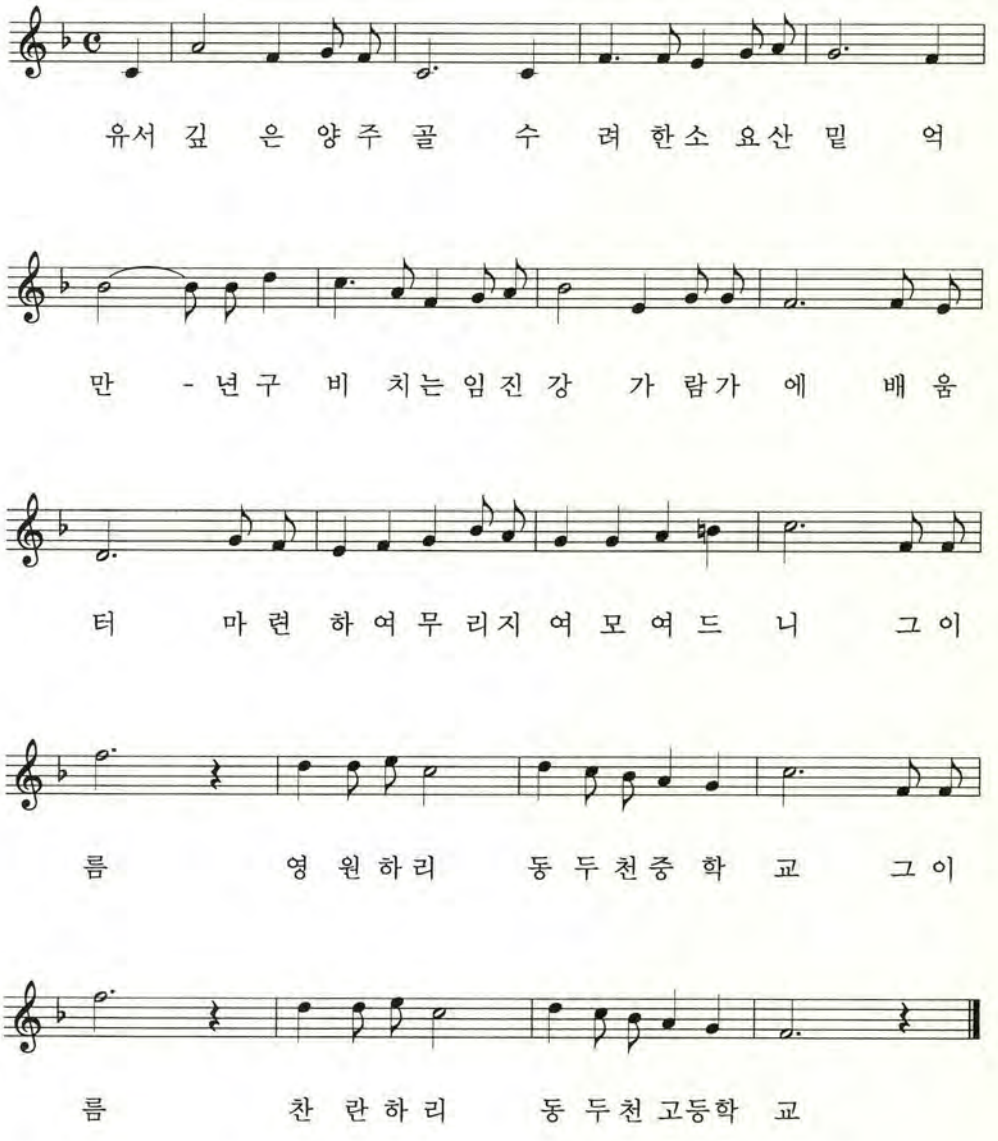
이 홍 구 작사
이 강 현 작곡

씩씩하게



동두천 중 · 고등학교 교가

김 두 영 작사
이 강 현 작곡



내용은 서정성을 풍부히 담고 있으며, 향토색이 강하게 나타난다. 동두천시에 소재한 각 학교의 교가나 졸업가 등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현재의 시각에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전통과 현재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음악세계는 이제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느낌을 준다.

2. 국악

지구상 모든 국가들은 각기 다른 문화 · 풍속과 자연환경 속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애환이나 기쁨을 표현한다. 특히 각 나라는 고유 음악인 민속음악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민속음악은 단순히 음악 자체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간 선현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여기에서 민속음악이 지닌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우리 나라는 수려한 산하와 기름진 옥토에 사계절이 뚜렷한 천부적인 여건을 가진 농경사회였다. 집단노동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은 피로함을 잊고자 노동요를 흥얼거리게 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경신숭배(敬神崇拜)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기질을 가졌다. 이는 멀리 부족국가(部族國家)시대의 각종 제천(祭天)행사에서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겼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즉 ≪三國志≫의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따르면, 제천행사 기간 중 밤마다 청춘남녀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그들의 정력을 발산하였다고 전한다. 이렇게 우리 나라 민속음악은 민중 속에서 수 천년을 이어오고 있다. 민속음악은 흔히 국악으로도 일컬어지는데, 우리 겨레의 가슴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가운데 계승되었다.

조선후기 이앙법(移秧法) 보급은 노동조직인 '두레'를 활성화시키는 계기였다. 더불어 민속음악도 노동요와 국악으로 분화되었으며, 점차 소리꾼이라는 직업적인 예능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남사당(南社黨)과 같은 사당패를 비롯한 유랑민중극단의 존재는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신분제사회에서 천대받던 소리꾼들은 호구지책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을 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인이라는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조선후기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의 정리는 이러한 산물의 결과이다.

한편 외래사조와 문물의 유입으로 조상들이 애창하던 국악은 점차 우리 주변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 물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모든 음악 중 국악이 최고라는 지나친 국수주의적 입장도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즉 무조건 '우리의 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정서를 표현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더불어 자기 문화를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훌륭한 민족정신은 국적있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가 고유한 민족음악인 국악을 등한시하고 국적불명의 외국음악을 선호한다는 것은 반성해 볼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의 무분별한 양상은 궁극적으로 자기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이다.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은 대다수 서양음악을 기조로 한다. 국악은 고사하고 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민요나 동요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동두천시 소재 일부 학교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민속춤이나 민속경기, 향토의 민요 등을 보급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동두천시의 국악계도 이와 비슷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악이 산업화로 인하여 현실적인 감성과 부합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 안된다.

국악협회 동두천지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악의 대중적인 보급을 목적으로 동두천지부는 정기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춘추로 시조강습회 개최, 각동 대항의 민요경창대회, 국악인을 초청한 시민위안경창대회, 정월 대보름의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이다. 특히 지자제의 실시와 더불어 확대된 동단위 윷놀이 대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의 친목과 화합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이나 정기적인 강습회를 통한 새로운 인재의 발굴은 아직까지 대단히 미흡하다. 생활의 일부로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각계의 관심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참고로 국악협회 동두천지부의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지부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2동 822번지이다. 설립은 1964년 4월 3일 회원 15명으로 동두천시우회 발족(초대회장은 조득원). 1967년 7월 7일 동두천시우회를 시조회(時調會)로 명칭 변경. 1975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시조분과위원회 경기북부지부 설치 승인(초대지부장 이윤형, 회원 21명). 1981년 4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기북부지부설치 승인과 동시 시조분과위원회 해체. 1988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지부로 명칭변경(지부장 이윤형).

제3절 미술

1. 동두천 미술의 개황

동두천의 미술 태동기는 아무래도 한국전쟁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선사시대와 삼국,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 지방에 미술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선 선조대만 하더라도 서화명인으로 작품을 남긴 화곡 정사호(안흥동)선생과 초서의 대가였던 김협(걸산동)선생은 동두천 출신으로 ≪해동명신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분을 미술가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담 미술회 제1회 창립전

동두천지방에 이 분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교육과 수업을 쌓은 작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미군의 주둔으로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며 미군부대 주

변엔 특수한 미술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때는 이른바 그림쟁이라고 일컬는 손재주 있는 상업미술가들이 밥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초상화 등 상업미술이 주류를 이루며 곳곳에서 성행되어 왔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초상화 위주의 상업 화랑들이 미군부대 내에 또는 부대주변 10여 곳이 성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작가활동이 어려워 상업미술에 뛰어든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

옥계 오석환은 당시 한국화의 큰 맥을 이루고 있던 '청토회' 회원이며 청전 이상범 화백의 제자였는데, 60년대 후반 동두천에 이주하여 초상화 등을 그리며 전전하다가 4년 후 인천으로 떠나버렸다. 초상화 작가로 이름이 알려졌던 차일영은 미군부대 내에서 전속으로 활동하며 외국 수반 등의 초상화를 제작하며 그 계통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차일영은 중동국가의 왕이나 왕세자 등의 초상화 제작은 물론 그곳에 초청되어 왕립 전속 작가로 활동하며 그나름대로 부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일영의 동생 차일두는 형의 연고지였던 동두천에서 몇년간 지내며 작품 활동도 하였는데, 그는 동두천의 후미진 모습들을 유화와 콘테를 이용하여 스케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열의를 보였다. 그는 2년 후 서울로 이주하였고, 독일에 유학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중진 작가로 활동 중이다.

동두천에서 상업위주의 화실, 화랑이 아닌 첫 화실은 1969년(현재 생연 2동) 남선공예사 2층에 있던 화우화실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정호양이 이 화실에서 국전출품작을 제작하였고, 중학생들과 취미생들을 지도하였다. 당시 송두영씨는 초상화와 조각 등을 제작하는 상업미술인이었는데 1962년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한 것이 인연이 되어 케네디가의 후원으로 케네디 기념관(현재 문화극장)을 건립하여 전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일반 전시가 아닌 케네디 기념사진의 공보 전시가 일색이었다. 그리고 문화원(당시 양주군)으로 사용하는 등 동두천 최초의 문화공간이 마련되었다. 송두영은 제2의 문화원장으로 추대되었고, 당시 그의 조형제작물이 문화회관 앞에 설치되기도 하였다(현재는 철거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동두천에 미술문화 발전의 큰 터전이 되었고 그 후로 미술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활동한 미술인들로서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동두천고등학교 교무주임으로 재직하던 이강혁은 학교에 미술부를 만들었고, 후임이었던 전수련은 홍익대를 나와 동두천고등학교 미술실에서 작품을 제작하여 1971년 국전에 입선하였다. 또 이종효(현재 보영여중교장)는 수도여사대를 나와 동두천여상 미술교사로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민전에서 동양화 부문에 입선하였다. 한편 서예미술계에서 활동한 서예인 이강모는 동두천 최초로(1976년) 광명서예술학원을 운영하였고, 조병무는 운중서예학원을, 조규진은 성균서예학원을 운영했으며, 중앙예대를 나온 정호양은 화실을 운영하며 많은 작품활동에 정진하였다.

이들은 어려웠던 사회적 변동기에도 끊임없이 작품에 몰두하는 한편 후학의 지도에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왔다.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동두천 미술의 명백을 잇게 해 준 공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들 외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1995년)에 이르는 동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으나, 여기에 모두 기술할 수 없이 부문별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2. 한국화

한국화 부문을 소개함에서 새삼스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일제시대 이전의 미술인들을 이야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 지방의 현실이다. 서양화가 국내에 들어온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설에서 밝힌 바 있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산수화나 사군자는 그릴 줄 알았던 시대가 겨우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자료가 없음으로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1960년대 이후에 활약하던 작가와 현재 활동중인 젊은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화방을 열고 활약한 작가는 청전 이상범의 제자 오석환 화백이다. 그는 1960년대 말기에 생연 3동에서 화랑을 갖고 활동하다가 1970년대 초에 타지역으로 옮겨갔다. 그가 동두천에서 활동한 기간은 3~4년에 불과했지만 그 자취는 동두천미술계에 큰 활력소가 되어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대에 동두천 미술회를 태동시킨 박승빈이 있다. 그는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이며 교육자로서 동두천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두천 미술계를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가운데 이곳 출신으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예영미(세종대 한국화 전공), 최차란(동덕여대 회화과 졸), 유장용(한성대 미술전공) 등이 있으나 동두천의 한국화 화단을 질머지고 나갈 유망한 작가는 예영미이다. 그가 경기 북부권 사예문화(寫藝文化)에 받친 정열은 참으로 헌신적이었다. 지금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작품활동에 많은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3. 서양화

동두천 화단에서 제일 활발한 부문은 서양화라고 할 수 있다. 동두천 미술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전공분야만 보더라도 나타나고, 개인전 · 그룹전이 열리는 빈도를 통해 활발한 서양화 부문의 추세를 알 수 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활동한 부문과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이후부터 소규모 미술활동이 시작되었는데, 1971년에 홍익공전 출신의 김영두가 동광극장 네거리에 화실을 차리고 1년여 머무르며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원다방(현생연 4동)에서 디자인전도 열었다. 1972년에는 생연 4동 소재 동화라사 2층에 정호양 화실이 1년간 있었고, 정인식이 정호양과 함께 꼬미화실을 열고 4~5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서울로 이주하였다. 당시 화우 화실전을 케네디기념관에서 열었는데 정호양 · 차일두 · 정인식 등이 참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각 학교 미술교사들을 중심으로 미술활동이 시작되었다. 1978년에 이 고장 출신인 정호양과 동두천 여상의 이기만(중앙대졸 한국화), 신흥고등학교 미술교사 이각종(경희대졸 한국화) 3인전이 문화회관에서 열었는데 이것이 순수 기성작가의 첫 전시회로 꼽을 수 있다. 이듬해인 1979년에는 문학회 모임인 목요회(회장 김용환)주최로 '재 동두천 작가전' 이 개최되었는데 목신서점(생연 3동) 2층을 전시장으로 꾸며 10명의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참여 작가로는 정호양, 신응석(신흥고 미술교사), 계용훈, 최종혁, 이기만, 권한진 등이었다. 1980년대에는 미술교사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 미술전이 성황을 이루며 미술지망생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두천 미술협회 회원

1980년대 초에 결성된 동두천미술회는 서라벌예대를 나온 한국화가 박승빈이 지역 내에 작가들을 참여케하여 창립하였다. 창립회원은 박승빈, 이강모(서예), 조규진(서예), 정호양, 방두영, 이기만, 문형진 등이었다. 전시장이 열악한 관계로 예원미술학원을 전시장으로 꾸며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전시회가 한수이북 최초의 미술단체 전시회였

다. 특히 동두천미술회는 정기전을 거듭하여 4회 전시회부터는 문예진흥원의 후원금도 받고, 전시 장소도 구시청회의실(생연 3동 사무소)을 개조하여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시회는 지역적 열악성에 부딪치며 1994년 전시회를 끝으로 정체기에 빠졌다.

이 와중에 동두천여상 출신들의 이담전이 생겼고, 공간나누기전 등 젊은신진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담전은 박란아 · 나경자 · 안영문 · 김태은 등 동두천여상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십여 명이 참가하여 네번째 전시를 앞두고 있으며, 공간나누기는 이상용 · 현재효 · 안영문 · 정영희 등 아직은 신진작가들로서 구성 회화가 아닌 조각 · 공예 등 특성을 지닌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방두영은 북부 현대작가회를 결성하여 '오늘의 제안전'과 '환경프로젝트전' 등 비중있는 전시회를 의정부 · 동두천 · 연천 등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두천 시민회관 전시실이 개관되면서 미술인들에 활력이 생기고 있는데 1995년 미술의 해를 기념하여 문화체육부 후원으로 문화원에서 초대한 정호양전은 동두천 최초의 개인전이었으며, 30여 점을 선보인 미술인들의 자랑이었다. 이후 비중있는 전시회로 정예작가 4인전이 열렸는데 방두영, 이목일, 이병민, 정호양 등 경기북부의 중견들로 시민회관 개관 이래 가장 비중있던 전시회라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는 다음과 같다.

정호양: 1953년 동두천 광암동 출생으로 학창시절과 청년기는 이 고장에서 보내며 당시 문화의 불모지로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창작활동과 후진양성에 정성을 쏟아온 작가이다(1979년 중앙대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방두영: 1947년생, 동두천 미술회 3대 회장
현 경기북부 현대작가회 회장
월간 ≪미술세계≫ 경기북부 리포터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 장애인 미술협회 회장

나병오: 1955년생,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동두천 미술회원
중견작가 초대전(92의정부: 상설전시장)
1992동두천 시민회관 개관 초대전
현 청산중학교 교사

손종길: 1960년생,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
동두천 미술회원
1986 동두천 일요미술회 창립전
1989 현대미술대상 특선
1992 중견작가 초대전
나경자: 1958년생, 동덕여대 회화과 졸업(서양화 전공) 동두천 미술회원
암데창당전(제13회 국립현대 미술관)
1992 중견작가 초대전
1992 동두천 시민회관 개관 초대전
김태은: 1957년생, 성신여자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동두천 미술회원
1990 한 · 일 현대수채회화전
1992 동두천 시민회관 개관 초대전
현 동두천여상 미술교사

4. 서 예

서예는 종이 위에 묵색(黑色) 하나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단조롭다면 지극히 단조로운 예술이며 동양민족 특유의 전통예술로 현대미술에서도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서예 회원전

광복 이후 고도의 산업 사회발전으로 생활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우리 곁에서 잊혀져 가는 한편 그 발전 역시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많은 서예가들이 출현한 것을 비롯 서예학원들이 증가일로에 있어서 후학양성에 밝은 기대를 갖게 한다. 동두천 서예계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세예가는 이강모(李康模), 조병무(趙炳

武), 조규진(曺圭鎭), 허영무(許永茂), 백인선(白仁宣) 등이다.

특히 이강모는 국전에 입선한 이래 작품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1976년 광명서예학원을 개원한 후 현재까지 후진양성에 전념하고 있는 유일한 서예인이다. 조병무는 1974년 운중서예학원을 1980년까지 운영하며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고, 조규진은 동두천 출생으로 한학자인 조부에게 한학과 서예를 전수받아 1976년 한일교류전에 특선한 이래 1981년에 성균서예학원을 운영하며 동두천여중 서예강사, 양주고등학교 서예강사, 한국학원연합회장, 교육공로상 수상 등 동두천 서예진흥에 힘썼으며 1985년 동두천 미술회 창립멤버였다. 허영무는 1990년 서예실을 운영하며 후진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백인선은 우리나라 서예계의 중진 인물로 경기도 금촌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두천에 1985년 송은서예학원(松隱書藝學院)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그동안 많은 서예인들을 배출하기도 한 서예가이다.

현재 동두천에서는 광명서예회원전과 송은서예학원 회원전이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전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5. 한국사진작가협회 동두천지부

사진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예술이다. 물론 처음에야 기자재의 태부족으로 몇몇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이 동호인으로 사진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웬만한 가정이면 카메라를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자연 사진인구가 늘게 되었다. 동두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래에 와서 여러 동호회와 사협(寫協) 또는 각 단체를 통한 활동들이 자못 활발하다.

동두천의 사단(寫壇)은 이필성(李弼星)이라는 지주가 있었으므로 해서 사진협회가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필성은 동두천 사진계의 정신적인 지주로 또한 특출한 사진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는 1960년대 말기에 당시 사예(寫藝)의 불모지였던 동두천에서 현 사협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동영회(東影會)라는 동아리를 창립하였는데, 당시 박봉근 · 기광덕 · 임석기 · 소수찬 · 이호성 · 김봉환 등과 활동하여 1971년 5월 20일 한국사진작가협회 동두천지부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필성의 활동상황을 간추려 보면 1979년 전국 9개 도시합동촬영대회 우수상, 제17회 전국회원전 십걸상, 제3회 한국국제사진공모전 금상, 1985년 전일본동경사진 촬영대회 동상, FAPA 총회에 4회 참가, 동남아 11개국 촬영기행 등이며, 1989년엔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했으



내행동 진터뜰 (1960년대, 초정 이필성作)

며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밖에 1984년 제8대 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995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작품전을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였다.

한국 사진작가협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60년 중반기 동영회(東影會)라는 동아리 창립. 아마츄어들로 구성 활동.
- 1971년 5월 20일 사협 동두천 지부가 창립 인준, 초대 지부장 김광덕, 1973년 제2대 지부장 박봉근 취임.
- 1973년 12월 26일 제1회 회원전 개최.
- 1975년 제3대 지부장 임석기 취임.
- 1977년 제4대 지부장 소수찬 취임.
- 1979년 제5대 지부장 이호성 취임.
- 1980년 11월 29일 제9회 소요단풍 촬영대회 개최.
- 1981년 제6대 지부장 김봉환 취임.
- 1982년 11월 26일 제10회 도봉산 촬영대회 개최.
- 1983년 제7대 지부장 이호성 취임.
- 1984년 제8대 지부장 이필성 취임.

- 1985년 10월 7일 제1회 소요문화제 사진공모전(전국대회) 개최.
- 1986년 10월 7일 제2회 소요문화제 사진공모전(전국대회) 개최.
- 1988년 10월 초정 이필성 소요산 사진작품집 발간.
- 1989년 10월 초정 개인전(남국의 풍경).
- 1991년 9월 초정 제2회 사진집 발간 미국기행.
- 1991년 12월 9일 김덕필 개인전.
- 1983년 2월 16일 의정부지부 분가(설치인준).
- 1995년 현재까지 이필성 지부장 재임.

제4절 무대예술

1. 연극

연극은 작가, 연출자, 연기자, 조명, 미술효과, 기타 여러 분야의 공동작업을 요하는 종합예술로서 오랫동안 인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굳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 그리고 인간은 배우"라고 역설했던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과 연극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 존재해 왔다.

오늘날의 연극은 대중예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방연극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문연극인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공연장의 절대부족, 재정상의 문제 등 산적된 난제들이 많다. 더욱이 가까운 중앙 즉 서울의 연극으로만 쏠리는 관중들의 관심 또한 지방연극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두천 극단

커다란 요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차츰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동두천의 연극도 차츰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아마추어 연극인들이지만 1993년에 '하늘땅 연극동우회'가 창단되어 지속적으로 극이 무대에 올려져 왔으며 특히 경기도가 주최한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두천 연극인들의 숙원이었던 시민회관이 개관됨으로써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데서 비롯되었다.

하늘땅 연극 동우회 연혁과 활동

· 1993년 5월 단원 13명으로 창단, 초대단장 유승호(兪勝豪)
· 1993년 10월~1996년 12월, 제2대 단장 오기춘(吳基春)
· 현재 단원 25명, 제3대 단장 안종철(安淙轍)

〈공연작품〉

· ≪우리는 하나≫: 1993년 8월 의정부 시민회관, 출연진 12명
· ≪루브≫: 1993년 10월 동두천 시민회관, 출연진 4명
· ≪나비부인≫: 1994년 8월 동두천 시민회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장려입상, 출연진 13명
· ≪꿈먹고 물마시고≫: 1994년 10월 동두천 시민회관, 출연진 8명
· ≪달래강 달래산≫: 1995년 6월 안산시 시민회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동상입상, 출연진 12명
· ≪굿 닥터≫: 1996년 10월 동두천 시민회관, 출연진 7명

2. 연예

인간생활 속에서 대중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또한 그 범위 역시 무척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노래 · 춤 · 연기 등 대중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공연부문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연예 즉 대중예술을 기술하면서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은 동두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이 부문의 종사자들이 흔히 보아 오는 연예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경시를 당하면서도 연예협회

지부를 중심으로 묵묵히 대중예술의 질적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두천의 연예계를 말하고자 할 때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동두천 연예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협회의 활동을 여기에 적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가칭 동두천연예협회는 1968년 9월 초대 지부장에 김형식(金亨植)이 선출되어 활동해 오다가 1971년 9월에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동두천 지부로 승인되었으며, 이 시기에 외국인 접객업소의 호황이 불어닥쳐 연예인들이 밀려옴에 따라 많은 회원이 확보되어 동두천의 연예활동은 활발해졌다. 이때 조영필도 동두천에서 가수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김형식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80년 초반까지 회원의 수가 무려 470여 명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연예협회 동두천 지부는 한수이북에 유일한 단체였고, 1984년에 의정부에 동북지부(한수이북 총괄)가 설치되었고 동두천 지부는 동북지부 동두천 분실로 축소되어 활동해 왔다.

현재(1996년) 동두천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주명호 회장을 필두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교도소 · 군부대 · 양로원 등의 위로공연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불우회원돕기 자선공연,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영도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안정된 취업알선에 전력할뿐만 아니라 회원 자질향상을 통해 대중예술인으로서 자칫하면 상실하기 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다.

동두천 출신 또는 동두천에서 활동하던 연예인은 남능미(탤랜트), 김인순(가수), 나미(가수), 유현상(가수) 등이다.

제5절 동두천문화원

1. 연혁

1961년 3월 5일 기지촌의 문화향상과 민족정신의 함양, 국위선양을 목표로 양주문화원을 설립하여 지방문화사업을 전개하였다.

1965년 5월 29일 박준주(朴準周) 초대원장으로부터 양주문화원을 인수하여 송두영(宋斗永)이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75년 5월 20일 김성근(金成根)이 제3대 원장으로 이어받아 도서실까지 대폭 정비하는 등 동두천의 중심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1981년

7월 1일자로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두천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1년 9월 13일 조인희(趙寅熙)가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93년 3월 시민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1994년 10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 및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되어 문화사랑방, 시청각실 등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사람 한 문화를 익히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이루워 나가고 있다.

소재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121번지 시민회관 내에 위치한다.

2. 주요 사업

본원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소요의맥



청소년겨울문화학교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 선양
· 김승록선생 추모제
·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 개천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소요문화제와 소요단풍축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 보급
· ≪소요의맥≫ 제작
·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 향토문화유적지 화보 제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청소년 사생대회와 백일장 개최
· 청소년 전통 문화교육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문화학교 운영

· 청소년 음악회

한편 역대 문화원장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처럼, 1961년 3월 5일 초대 원장에 박준수가 부임한 이래 현재는 제4대 조인희가 1991년 9월 13일부터 재직 중이다.

〈표 4〉 역대 문화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박준수	1961. 3. 5~1965. 5.28	3	김성근	1975. 5.20~1991. 2. 5
2	송두영	1965. 5.29~1975. 5.19	4	조인희	1991. 9.13~현재

동두천문화원의 임원과 회원은 다음과 같다. 원장 1명, 감사 2명, 고문 8명, 운영위원 13명, 부원장 3명, 이사 10명, 자문위원 8명 등이다. 특히 그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회원은 260명으로, 이들은 동두천시 문화의 보존과 홍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선봉장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동두천시의 암울한 과거사는 점차 희석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우리고장을 아끼고 가꾸기 위한 애향운동 전개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 ≪소요의 맥≫을 발간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향토유적지 화보를 제작하여 출향인사 · 학생 · 지역주민들에게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있다.

1988년부터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개최하고, 인격형성과 정서함양, 예절교육을 위한 청소년 전통예절교육과 우리고장의 향토유적지를 순례케 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향토문화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문화학교(서예반)

지역문화행사로 1985년부터 소요문화재와 소요단풍축제를 통하여 소요산 등산대회, 주부백일장, 각동대항 시민 노래자랑, 소요아가씨선발대회, 각문예단체 전시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옛날생활용품 모음전을 열어 우리조상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1994년 문화부가 지정한 시범문화원이 되어 시청각실과 문화사랑방 등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1995년부터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여가이용의 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더욱 활발한 문화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조 규 진〉

제5장 체육

제1절 체육활동

1. 학교체육

학교체육이란 그 용어에 나타나 있듯이 교육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지적 · 도덕적 · 신체적 발달을 통한 인격의 완성에 있으므로, 학교체육의 목적 또한 인격의 완성이며 동시에 그 전제가 된다. 즉 학교체육이란 개인적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체활동의 잠재적 조치를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참된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체육이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1895년 오늘과 같은 〈교육령〉에 의하여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말의 국난으로 상무교육이 강조되면서 각 학교는 체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배경으로 식민지시기에도 체육활동은 조선인을 단결시키는 구심체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각 학교마다 체육 장려 종목이 설정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이 강조되면서 학교체육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체육은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신체의 발달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한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적 · 도덕적 성격의 함양과 지적 ·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동두천중학교 유도선수단

동두천교육청은 1996년도 학교체육 관리의 기본방향을 "체육교육의 정상화로 심신의 조화있는 발달 도모,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기초체력과 운동기

능의 신장으로 강건한 국민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체육활동 참여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용구의 확보와 활용, 학생과외 자율 체육활동의 활성화, 학생체육(경기)대회의 효율적 운영, 체육특기자 합리적 지도 ·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시내의 각급 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특기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급 학교의 권장 체육종목 현황

종 목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육상	동두천, 보산, 생연사동, 소요동, 탑동, 동보	중앙, 동두천, 신흥	중앙, 동두천, 동두천여상
축구	사동, 동두천	신흥	
빙상	사동	동두천, 동두천여	동두천 동두천여상
유도	보산	동두천	동두천
태권도	생연	중앙, 동두천	신흥 보영여상
테니스		신흥	중앙
싸이클		동두천여	동두천여상
탁구	동보	중앙, 보영	
배드민턴	소요	보영	
씨름			신흥
복싱			중앙
로울러			동두천여상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육상은 각급 학교의 공통종목이며, 각급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으로 동두천초등학교의 축구 · 빙상, 보산초등학교의 유도, 동두천중학교의 유도 · 빙상, 동두천여중의 싸이클 · 빙상 등이 전국 명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학교는 전국적인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할 정도로 기량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흥중학교의 축구부를 다시 창단하는 등 동두천의 학교체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 교육청 산하 각 학교가 전국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양궁이나 배구 등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2〉 각급 학교경기 실적

학교명	종목	대회명								
		도대회			전국			체전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초등학교	육상									
	축구		2	1					1	
	유도			1	4	1	1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빙상	18	22	29	8	16	15		2	2
중학교	육상	5	10	15						
	축구			1						
	유도	6	1	9		1	3			2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빙상	21	13	19	31	31	31	5	3	10
	사이클	6	4	8		2				
	태권도	3	1	4						
고등학교	육상	1	1							
	유도	4		2			1	2		
	배드민턴									
	테니스									
	빙상	21	15	11	35	40	37	8	4	15
	씨름									
	사이클	5	6	3		1	3		1	
	태권도	8	13	16						
	복싱									
	로울러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2. 사회체육



게이트볼

체육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 각 부위를 고르고 튼튼하게 발달시키고, 굳세고 아름다운 정신과 건전한 사회적 성격을 기르며, 위생 생활을 습관화하여 사회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가치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체육은 여가를 이용하여 생산적 · 자율적 ·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으로 생활의 창조와 문화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 · 공포로 사회체육 진흥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법은 1982년 12월 전면 개정되면서 체육기금 조성, 체육의 날(매년 10월 15일), 체육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의 제정, 직장체육의 의무화 등이 규정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사회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시설의 완비와 지도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앞으로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관심과 국가의 관심이 국민복지와 국민건강으로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체육이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동두천시는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건강걷기 대회, 각종 사회체육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 직장 단위로 시에 등록한 생활체육연합회(生活體育聯合會)가 15개 있으며, 시에 등록된 각 경기별협회도 7개에 이르고 있다.

시내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협회 현황, 사회체육 입상성적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체육연합회는 축구 · 게이트볼 · 배드민턴 · 볼링 · 에어로빅 · 씨름 · 농구 · 야구 등 15개 종목이나 된다. 회원수도 축구연합회의 1,200명을 비롯하여 볼링 900명, 에어로빅 400명, 배드민턴 350명 등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생활 속에서 체육인 사회체육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현황

종 목	명 칭	회 장	창립일	회원수	소재지
축 구	축구 연합회	김복경	1982.03	1,200명	생연동 1동 442-1
게이트볼	게이트볼 연합회	최현철	1989.03	250명	생연3동 648
배드민턴	배드민턴 연합회	목영하	1985.02	350명	생연4동 588-31
볼 링	볼링 연합회	이정식	1990.02	900명	생연동 438
에어로빅	에어로빅 연합회	박금자	1990.06	400명	생연4동 589
궁 도	궁도 연합회	목유상	1985.03	50명	송내동 323
탁 구	탁구 연합회	한승완	1990.05	40명	생연2동 824
씨 름	씨름 연합회	문종득	1990.03	30명	생연3동 625
테 니 스	테니스 연합회	최석동	1985.	200명	생연1동
싸 이 클	싸이클 연합회	홍영표	1990.	20명	생연3동 598
농 구	농구 연합회	이철웅	1993.	400명	생연동
배 구	배구 연합회	박연순	1990.	200명	생연3동 448
태 권 도	태 권 도 연합회	박제철	1995.07	100명	지행동 475-1
등 산	등산 연합회	조성문	1995.07	150명	생연3동 666-14
야 구	야구 연합회	김형득	1995.	50명	생연동 산 44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경기의 종목별 협회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권도 · 빙상 · 축구 · 테니스 · 유도 · 골프 · 볼링 등 7개 종목이 협회를 결성하고 있다. 회원은 볼링이 900명으로 가장 많고, 축구와 테니스 등도 많은 회원이 가입하였다.

〈표 4〉 종목별 협회 현황

종 목	명 칭	회 장	창 립 일	회 원 수	소 재 지
태 권 도	동두천시 태권도 협회	박혜원	1989. 3	50명	
빙 상	동두천시 빙상 연맹	김성근	1988. 5	30명	
축 구	동두천시 축구 협회	김병기	1984. 9	40명	
테 니 스	동두천시 테니스 연합회	최만홍	1985. 6	200명	
유 도	동두천시 유도 협회	이강수	1987. 2	40명	
골 프	동두천시 골프 협회	유재덕	1986. 4	50명	
볼 링	동두천시 볼링 연합회	이정식	1985. 3	800명	

자료: 동두천시 체육회

한편 각 종목별 경기 입상 성적을 1995년도에 한정하면 〈표 5〉와 같다. 즉 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서 여성부의 우승과 남성부 3위를 차지하였다. 역시 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터 대회에서 여자 준장부는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회장기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에서 단체부분은 모범상을 받았다.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대회에서 단체는 질서상, 남자 마라톤 4위, 등산 여자부분 2위, 등상 단체부분 3위, 합기도 여자부분 3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유도와 태권도가 각각 3위를 차지하였다.

〈표 5〉 각종 경기 입상성적

연 도	대 회 명	종 목	입상성적
1995	제2회 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여 성 부	우 승
〃		남 성 부	3 위
〃	제2회 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여자 준장부	2 위
〃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대회	단 체	질 서 상
〃	〃	남자 마라톤	4 위
〃	〃	등산 여자	2 위
〃	〃	등산 단체	3 위
〃	〃	합기도 여자	3 위
〃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유 도	3 위
〃	〃	태 권 도	3 위
〃	제2회 회장기 에어로빅 대회	에어로빅단체	모 범 상
〃	제25회 카네이션컵 어머니 배구대회	여 자 단 체	3 위
〃	국무총리배 남자 배구대회	남 자 단 체	3 위

자료: 동두천시 체육회

제2절 체육시설

동두천시의 체육시설은 크게 학교운동장과 각종 사회체육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체육 시설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내의 학교운동장, 체육관시설, 사회 체육 시설 현황, 체육관 시설 등은 〈표 6〉과 같다.

학교운동장은 17개교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앙 · 동두천 · 신흥고등학교와 보영여자고등학교가 중학교와 운동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실제로는 13개소이다. 운동이 가능한



동두천 공설운동장

〈표 6〉 학교운동장 현황

학 교 명	면 적	사용가능인원	경 기 가 능 종 목	소 재 지
동두천초등학교	17,000m²	120명	축구, 배구, 농구	생연1동 461번지
사동초등학교	18,172m²	120명	축구, 배구	생연 2동 783번지
생연초등학교	9,987m²	120명	축구, 배구, 농구	내행동 411번지
보산초등학교	7,718m²	100명	축구, 배구, 씨름	보산동 370번지
동보초등학교	7,005m²	100명	축구, 배구, 농구	동두천동 213번지
소요초등학교	8,569m²	100명	축구, 배구, 배드민턴, 농구	상봉암동 237-2번지
탑동초등학교	2,700m²	50명	축구, 배구, 농구, 육상	광암동 395번지
동두천중학교	10,540m²	100명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생연1동 44번지
중앙중학교	16,759m²	120명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지행동 340번지
신흥중학교	17,330m²	120명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안흥동 38번지
동두천여자중학교	6,611m²	120명	농구, 배구, 테니스	생연1동 471번지
보영여자중학교	7,000m²	50명	축구, 배구, 농구	생연1동 522-1번지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와 동일	
동두천고등학교			동두천중학교와 동일	
신흥고등학교			신흥중학교와 동일	
보영여자고등학교			보영중학교와 동일	
동두천여자고등학교	7,150m²	100명	배드민턴, 배구	생연1동 산 43번지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종목은 축구 · 배구 · 농구 · 배드민턴 · 테니스 · 육상 · 씨름 등 거의 전 종목이다. 특히 학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체육시설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학교 체육관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각 학교는 실내체육관보다 강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내 경기에 부적합하다. 학교 체육관은 〈표 7〉에 나타난 바처럼, 동두천 중 · 고등학교가 유일한 실정이다.

〈표 7〉 학교 체육관 시설

학 교 명	면 적	사용가능인원	경 기 가 능 종 목	소 재 지
동두천중 고등학교	334.5m²	20명	유도, 태권도	생연1동 44번지

자료:동두천시 교육청

사회체육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즉 수영장 1개소, 볼링장 2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등 4개소에 불과하다. 보다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8〉 사회체육 시설 현황

시설 종별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규격	수용인원	소 재 지
수영장	동두천 수영장	23,269m²	2,506m²	500명	상봉암동 10번지
볼링장	세아 볼링장	10,106m²	14레인	84명	생연2동 809번지
볼링장	월드선 볼링장	10,400m²	22레인	132명	생연동 683-14번지
골프연습장	녹지골프연습장	8,346m²	32타석	32명	생연동 379번지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실내 체육관 시설은 시민회관 체육관이 유일하다. 시설 면적 · 규모 · 수용인원 등의 현황은 1,439m² · 300명 · 30명으로 체육관으로서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표 9〉 실내 체육관 시설

시설 종별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규격	수용인원	소 재 지
시민회관	시민회관체육관	1,439m²	300석	30명	상패동 122번지

자료: 동두천시 교육청

제3절 동두천시체육회

동두천시체육회는 1981년 7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양주군체육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각종 운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향상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 진작(社會紀風振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실정이다. 또한 아마추어 경기인과 그 단체 지회를 결속 ·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시민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에 일조코자, 체육회 회장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체육회 사무실은 동두천시청 내에 있다. 산하 지부로는 대한태권도협회 동두천시지부 · 대한빙상연맹 동두천시지부 · 대한축구협회 동두천시지부 · 대한테니스협회 동두천시지부 · 대한유도협회 동두천시지부 · 대한골프협회 동두천시지부 · 대한볼링협회 동두천시지부 등이 있다. 역대 회장 명단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역대 동두천시체육회 회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김 상 호	1981. 7. 1~1983. 4.10	7	유 재 천	1988. 6. 4~1989.12.26
2	임 석 봉	1983. 4.11~1983.12.26	8	최 종 구	1989.12.27~1991. 7.15
3	이 헌 원	1983.12.27~1985.10. 6	9	백 종 민	1991. 7.16~1992.11.19
4	김 기 형	1985.10. 7~1986.12.23	10	방 제 환	1992.11.19~1995. 3.29
5	김 용 선	1986.12.24~1988. 2.10	11	경 의 현	1995. 4.12~1995. 6.29
6	한 세 권	1988. 2.10~1988. 6. 4	12	방 제 환	1995. 7. 1~현재

자료: 동두천시 체육회

1. 대한태권도협회 동두천시지부

동두천시 태권도협회는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가입한 개인회원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해당경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의 사무소는 지행동 475-1번지이며, 사업은 시대표선수 선발과 개인회원만이 참가하는 모든 경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시장과 교육장배 시대회를 해당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개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으로 선수들의 훈련 지원, 각종 시합의 격려와 홍보,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2. 한국 궁도의 역사

1) 연 혁



활터 동호정

활과 화살이 사용된 시기와 장소는 확실치 않다. 원시인들과 직립원인(直立猿人)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G. 챠일드의 저서 ≪문명의 기원≫에는 인류가 투창이나 활을 사용한 것은 구석기시대의 말엽인 1~3만년 전 일것이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약 10만년 전부터 활을 사용해 왔다고 추정한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분명히 인류의 역사에서 문화적 향상을 의미한다. 불의 발견이나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의 발명에 의해서 맘모스 · 사슴 · 소 ·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잡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등 인류는 만물의 우위에 서게 되었다. 더욱이 활은 수렵뿐만 아니고 고대 인류의 전투 무기로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지리적 여건으로 수많은 외침에 의해 전쟁을 치뤄야 했으며 국민의 심신단련과 호국정신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의 사용과 발달을 꾀하는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전래된 것을 오직 '각궁(角弓)' 뿐이다.

활의 종류를 보면, 궁간(弓幹)의 길이에 따라 장궁(長弓) · 단궁(短弓)의 구별이 있고, 구조상으로 보면 환목궁(丸木弓)과 복합궁(複合弓)이 있다. 일본과 안다섬의 토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남동방 여러 민족은 장궁을 사용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목민이나 고대 스키타이 민족 등은 단궁을 사용하였다. 환목궁은 한 개의 목편(木片) · 죽편(竹片) · 각편(角片) · 건(腱) 등을 붙여서 만든 활로 대부분 단궁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각궁은 복합단궁(複合短弓)에 속한다.

대한궁도협회(大韓弓道協會)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통하여 국민정신 함양과 체위향상에 기여하고 고래사풍(古來射風)의 장점을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궁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의 국기적(國技的) 가치를 발휘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으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의 황학정(黃鶴亭) 사두(射頭)였던 성문영(成文永)씨 주재 아래 대한궁도협회 전신인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研究會)를 창립했으며, 1926년 5월 20일에는 조선궁술연구회를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로 개칭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점차 위축되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온 조선궁도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2월 10일 조선궁도협회(朝鮮弓道協會)로 다시 이름을 바꿔 임원을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25일 조선궁도협회를 대한궁도협회(大韓弓道協會)로 개칭하고 같은 해 10월 6일에는 협회헌장을 제정하였다. 1954년 3월 16일 대한체육회가 발족하면서 대한궁도협회는 그 가명 단체로 가입했고, 1955년 2월 21일에는 협회 헌장을 개정했다.

1961년 11월 11일 협회 헌장을 대한궁도협회 정관으로 바꿨다. 1962년에는 우리 전통 민속궁(民俗弓) 분야가 아닌 양궁(洋弓)을 도입해 각급 학교에 보급시키는 한편 1963년 7월 27일 국제궁도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 대한궁도협회 동두천지부

1968년 3월 궁도협회 동두천지부가 창립되어 그동안 많은 궁도동호인들을 배출하였음은 물론 우리 고유의 궁술을 보전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궁도인들의 연마장인 사정(射亭: 東虎亭)은 생연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부의 역대 임원은 〈표 11〉과 같다.

한편 동호정의 역대 활동과 수상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경기도체육대회 1회 대회 참가
- 전국 남녀 궁도대회 4회 대회 참가
- 경기도 정사두 단증대회 2회 대회 참가
- 경기도 한수이북 5개시군 9개정 친선대회 9회 대회 참가
- 경기도대회 3등상(1978.4)

경기도대회 장려상
· 전국 남녀 궁도대회 3등상
〃 김경환 3등상
· 5개 시군 친선대회 8회 1위
12회 2위
15회 3위

〈표 11〉 동호정의 역대 임원 현황

구분	초대(1968.3~1978.3)	2대(1978.4~1982.3)	3대(1982.4~현재)
지부장	박 차 백	김 경 환	김 경 환
사두두	〃	〃	서 봉 남
부사두	이 기 복	조 호 남	조 호 남
총두무	조 호 남	조 봉 환	김 용 주
사두범	도 기 남	이 기 하	김 익 수

제4절 동두천 출신 국가대표 선수

동두천지역은 사회체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각 학교에서도 특기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자연적인 환경으로 빙상은 동두천시를 대변하는 종목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빙상 국가대표들 중 상당수는 이곳에서 출생한 선수들이다. 이는 〈표 12〉를 통해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빙상을 제외한 야구 · 축구 · 태권도 · 테니스 등의 분야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동두천시의 사회체육은 보다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2〉 동두천 출신 국가대표(전 · 현재)선수 현황

성 명	주 소	종 목	재임기간	직위 및 훈·포장	비 고
윤의중	생연2동	빙상(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감독
나운섭	생연2동	빙상(숏트랙)		전 국가대표	현재 롯데월드 스케이트 강사
최광복	생연2동	빙상(숏트랙)	1993~1994 1995~1996	국가상비군 국가대표	
김정수	생연2동 789-29	빙상(스피드스케이팅)	1991~1994	국가상비군	사동초등학교 출신
송재근		빙상(숏트랙)	1989~1995	국가대표,백마장 기린장,청룡장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금메달 현 대구 정화여중 빙상감독
김학수	생연동 609-14	빙상(숏트랙)	1995~1996	국가상비군	한국체대 재학중
고태현	상패동 조흥Ⓐ 1-207	빙상(숏트랙)	1995~1996	국가상비군	한국체대 재학중
김형호	동두천동 217 유니온Ⓐ 303호	빙상(숏트랙)	1994~1995	국가상비군	'97동계유니버시아드 출전 한국체대 재학중
박순현	양주군 회천읍 덕정4리	빙상(숏트랙)	1996~1997	국가상비군	동두천중학교 재학중
신화영	상패동 68번지	빙상(숏트랙)	1992~1994	국가상비군	한국체대 재학중
김진수	생연동 789번지	빙상(스피드스케이팅)	1994~1995	국가대표	'97동계유니버시아드 출전 단국대 재학중
장광덕	생연2동 660	빙상(숏트랙)	1995~1997	국가상비군	'96', '97 쥬니어 숏트랙선수권 대회 출전, 동두천고교 재학중
김화연	보산동 429번지	빙상(숏트랙)	1995~1997	국가상비군	성신여대 재학중
김효상	생연3동	빙상(숏트랙)	1995	꿈나무대표	동두천중학교 재학중
김영문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793	빙상(숏트랙)	1995~1996	국가상비군	동두천고교 재학중
백국군	생연2동 서창맨숀 206호	빙상(숏트랙)	1996	국가대표	동두천고교 재학중
김보영	생연2동 818번지	빙상(숏트랙)	1995~1997	국가상비군	동두천여상 재학중
차경철	생연4동 821번지	빙 상	1995~1996	국가대표	현재 빙상 꿈나무 육성지도
조종규	생연3동	야 구		국가대표	해태타이거즈 선수역임 현 프로야구 심판 재직중
김우근	보산동	야 구		국가대표	해태타이거즈,태평양돌핀스 LG트윈스 선수 역임

성 명	주 소	종 목	재임기간	직위 및 훈·포장	비 고
최은석	생연1동 우성Ⓐ 907호	축 구	1987	쥬니어국가대표	현재 주택은행 선수 재직중
			1993	국가대표	
박승광	생연2동 698번지	축 구	1997	16세이하쥬니어대표	현재 풍생고 재학중
이경남	안흥동 38번지	축 구	1982~1983	유니버시아드대표	현재 신흥중·고교
			1983~1985	국가대표	감독 재직중
양현정	생연2동 818번지	축 구	1996~1997	청소년대표	단국대 재학중
전웅환	생연2동 664번지	태권도	1982~1988	국가대표	현재 미안마 국가대표
				백마장	감독 재직중
이범래	생연2동 819번지	테니스	1993	대학선발	명지대 재학중

〈박 찬 혜〉